

城 南 文 化 研 究

第 6 號

성 남 문 화 원

1999

城 南 文 化 院
(附設) 鄉 土 文 化 研 究 所

目 次

■ 발간사	남선우 원장
■ 연구논문	
▶ 백남욱 고려시대의 삼남지역에 대한 고찰	3
▶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21
▶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奉姫卿	43
▶ 한춘섭 행정 인물의 기초 연구	61
▶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경제성 문제	83
▶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95
▶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113
▶ 지교현『노연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연복지정책의 강화 방안	133
▶ 소진관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169
▶ 전보삼 신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193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백남옥(동서울대학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지방제도의 정비와 성남지역
- III. 광주의 호족세력 왕규
- IV. 교통로와 성남지역
- V. 뒷말

I. 머리말

오늘날의 성남 지역은 경단산·불곡산·문형산을 잇는 동부의 광주산맥 지맥과 인능산·청계산을 잇는 서부의 구릉지로 뻗어있고,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수자면 풍덕천을 경유하여 시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단천이 흐르고 있어 그 주위에는 풍부한 하천과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¹⁾ 이 지역은 과거 백제·한성시대의 중심지가 되

1) 城南市史編纂委員會, 1993『城南市史』.

는 둘 삼국시대부터 정치·군사적으로 중요시되던 곳이었고, 통일신라 후기까지는 한주(漢州)라고도 불렸다. 후삼국시대의 혼란기를 경유하면서는 효공왕 4년(900)에 황건이 광주(廣州)와 충주 등 충원 지역을 평정할 때 이곳의 호족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귀부함으로서 고려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 태조 23년(940)에 비로소 광주로 개칭되었고, 오늘날의 성남 지역 또한 광주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²⁾

지금까지 성남 지역에 대한 연구는 삼국시대의 백제 관계사와 조선시대의 병자호란 관계사를 중심으로 이해된 것이 대부분을 이룬다.³⁾ 하지만 오늘날의 성남지역은 과거 광주지역과 관계된 역사에서 그 중요성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한산성의 위치가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고려시대의 광주지역과 관계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성남지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삼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지방제도의 정비와 성남지역

고려초기 지방사회의 호족세력의 득세와 그로 인한 왕권의 약화는 국가 권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왕권의 안정과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다. 고려의 왕권은 태조대에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유지하였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왕위를 둘러싼 암투로 인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제4대 광종의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광종은 장군이나 호족세력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

2)

연 대	명 칭 변 경	연 대	명 칭 변 경
태조 23년(940)	廣州로 개칭	현종 3년(1012)	安撫使 설치
성종 2년(963)	廣州牧으로 개편	현종 9년(1018)	廣州牧으로 개편
성종 14년(965)	奉國軍節度使 설치, 關內道에 소속	충선왕 2년(1310)	知州事로 강등
		공민왕 5년(1356)	廣州牧으로 복구

3) 성남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1996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하였다. 마을리 이러한 개혁에 불만을 가지거나 걸림돌이 되는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등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⁴⁾ 이러한 성종의 왕권강화에 따라 고려의 집권체제를 안정시킨 것은 제6대 성종이었고, 이로부터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정비되기 시작해서 제8대 현종대를 거쳐 제11대 문종대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중앙관제는 중서성·문하성·상서성의 3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3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서성과 문하성이었으며, 이를 합쳐서 중서문하성 혹은 재부(宰府)라고 했다. 중서문하성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2품 이상의 재신(宰臣)과 정책을 건의하고 그 잘못을 간접하는 기능을 담당한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되었다. 상서성은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였는데, 그 실무를 담당한 것이 이부·병부·호부·형부·예부·공부 등 6부였다.⁵⁾

3성과 더불어 중요한 지위를 지녔던 것이 중추원⁶⁾이었다. 이것은 성종 때 처음 설치된 것으로 왕명의 출납과 군국기무를 장악했던 곳이다.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은 양부(兩府) 또는 재추(宰樞)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고관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짓는 것을 재추회의 혹은 도별마사라고 하였다.

그밖에 중요한 관부로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맡은 어사대가 있었다. 이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臺諫) 또는 성대(省臺)라고 하여, 국왕의 관리 임명이나 범률의 개폐 등에 서경(署經)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왕권의 전개상을 규제하기도 하였다.⁷⁾

4) 朴龍雲, 1985『高麗時代史』pp.54~59.

金基德, 1992「高麗 光宗代 王權強化와 太子冊封」『水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5) 邊太燮, 1971『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高麗政治制度史研究』.

_____ 1971『高麗의 中書門下省에 대하여』『高麗政治制度史研究』.

6) 邊太燮, 1976『高麗의 中樞院』『慶檀學報』41.

朴龍雲, 1976『高麗의 中樞院 研究』『韓國史研究』12.

7) 朴龍雲, 1980『高麗 売譙制度 研究』.

金龍德, 1983『高麗時代의 墨經에 대하여』『韓國制度史研究』.

이와 같은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는 왕권에 유리한 것이었다. 특히 6부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는 국가 권력이 국왕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정치권력은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양부의 제후에게 집중되었고, 대간의 간령과 서경도 이들 관리들의 커다란 권한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의 정치제도는 국왕과 귀족 상호간에 권력의 조화 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관제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제도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지방 제도는 군현제도(郡縣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⁸⁾ 전국 초기의 지방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수령 대신에 지방 호족들의 차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다가 성종 2년 (963) 전국에 걸쳐 12목(牧)을 설치하여 중앙의 관리가 외관으로 파견되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외관이 파견된 지역은 양주·평주·충주·청주·공주·해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황주 등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의 지방사회 치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 지역은 광주쪽으로 설치된 때부터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되었고,⁹⁾ 이들로 하여금 현지의 호장(戶長) 등 향직계통의 재지 세력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성종 6년(987)에는 강화박사·의학박사 각 1명씩이 임명되어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유교적 교양이나 의술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천거하기도 하였다¹⁰⁾. 특히 성종 10년(991)에는 지방의 중요한 곳에 별호(別號)를 제정하였는데, “성종 10년 신묘에 주군(州郡)의 별호를 정하여, 광주는 화안(淮安)이라 하였다.”라고¹¹⁾ 하였다. 이는 성종의 유교적 중앙 집권정책과 한화정책(漢化政策)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광주가 그 표본이 되었던 것이다. 성종 12년(993)에는 광주목에 상평창을 설치

8) 河炫禪, 1977 「高麗 地方制度의 研究」.

朴宗基, 1986 「高麗의 郡縣體系와 界首官制」, 『韓國學論叢』 8.

9) 『高麗史』 卷 3, 世家 3, 성종 2년 2월 戊子.

10) 『高麗史』 卷 56, 志 10, 地理 1, 廣州牧經.

11) 『高麗史』 卷 3, 世家 3, 성종 6년 8월.

1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48, 地理志, 京畿都觀察 廣州牧領.

하고 13) 공수사자(公須榮使)가 지급되었다는데, 이는 관청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 방법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하였다.¹⁵⁾ 여기에 파견된 관원으로는 목사·부사·관관·사록·참군사·의사·문사가 각 1인씩이었다. 그리고 외관 밑의 향직으로는 호장·부호장·사병·사창·총장 등이 있었다.

성종 14년(995)에는 12주절도사제(州節度使制)와 병행하여 10도제(道制)를 실시하였다.¹⁶⁾ 10도제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전국을 관내도·중원도·하남도·강남도·영남도·산남도·명동도·해양도·북방도·폐서도 등 10도로 나눈 것이었다. 이 때의 도는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이기보다는 감찰 내지는 순찰구획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행정구획의 개편에서 광주목은 관내도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12목제 대신 12주절도사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12목의 행정구역에 목사를 절도사로 대체한 것이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는 단련사·방어사·재사 등이 파견되었다. 목사가 행정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절도사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것은 성종 12년(993)에 거란의 제1차 침입을 계기로 전국을 보다 강력한 군사 통일체제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방 지역에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방어사가, 중부 지역에는 도단련사와 단련사가,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행정적 성격이 강한 재사가 파견되었다. 그에 따라 광주목의 명철도 봉국군(奉國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성종 14년의 지방제도 개혁은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 이었다고 하겠다.

현종 원년(1010)에는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계경이 함락 당하자 국왕이 광주로 잠시 피신한 적이 있었다.¹⁷⁾ 이를 계기로 그 다음 해에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가 설치되었는데,¹⁸⁾ 이는 지방통치가 군정체제에서 일반 민정 체제로 복귀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현종 9년(1018)에는 다시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부사·8목사·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의 외관조직으로 개편

13) 『高麗史綱要』 권 3, 성종 12년 2월.

14) 『高麗史』 권 78, 저 32, 食 15 1, 公須田榮綱, 성종 12년 8월.

15) 河益綱, 1988 「高麗初期의 地方統治」『韓國中世史研究』 199~200쪽.

16) 金大望, 1982 「高麗前期의 外官制」『高麗政治制度史研究』.

河益綱, 1988 「十道制의 實施와 그 消滅」『韓國中世史研究』.

17) 『高麗史』 권 4, 世家 4, 현종 원년 11월 壬申.

18) 『高麗史綱要』 권 3, 현종 3년 경월.

되면서 19) 지방제도의 정비가 일단락 되었다. 이 때의 8목은 지방행정 단위로서 광주·청주·충주·전주·나주·황주·상주·진주 등이었다.²⁰⁾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약 500개의 군현이 존재하였지만 모든 군현에 외관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고려사』 자리지에서 보면 고려 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이 130개였는데 비하여 그럴지 못한 속현(屬縣)이 373개나 되었다. 이는 중앙 정부에 의한 향촌사회 지배가 아직도 불완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속현들은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치제를 받는 행정체계를 이루었다.²¹⁾ 광주목 역시 천녕군·이천군·죽주·과주의 4속군과 지평현·용구현·양근현의 3속현을 관할하였다.²²⁾

한편 5도·양계를 주축으로 했던 고려 전기의 지방제도는 무인집권기와 원간섭기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점차 변질되었다. 5도의 안찰사가 지방행정기구로 고정되어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고, 관품도 5~6품에서 일부의 대신으로 업무하며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²³⁾ 복계의 병마사도 원간섭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남부 지역의 장관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공양왕 때에는 전국이 도관찰총좌사의 체계로 변화하였다.²⁴⁾ 이런 가운데 광주목은 충선왕 2년(1310)에 전국 주군의 읍호(邑號)를 고쳤을 때 치주사로 강등되어 8목에서 제외되었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목으로 복구되었고,²⁵⁾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전기간을 통하여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관부였다고 할 수 있다.

III. 광주의 호족세력 왕규(王規)

19) 『高麗史節要』 권 3, 현종 9년 2월.

20) 邊太燮, 1982 『高麗前期의 外官制』『高麗政治制度史研究』.

21) 朴宗基, 1990 『高麗의 郡縣體制와 邸曲制』『高麗時代 郡曲制研究』.

22) 『高麗史』 권 56, 志 10, 地理 1, 機州牧領.

23) 何炫嗣, 1988 「後周道耕에 의 轉成過程」『韓國中世史研究』 255~256쪽.

邊太燮, 1982 『高麗按察使考』『高麗政治制度史研究』 186~193쪽.

24) 邊太燮, 1982 『高麗兩界의 支配組織』『高麗政治制度史研究』.

25) 『高麗史』 권 56, 志 10, 地理 1, 延州牧僚.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 지역이 고려시대에 주목받게 된 계기는 고려초 기의 정치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건은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 밑에서 양주 등 여러 지역을 공략하고 이어 청주·충주·괴산·남양 일대를 점령하는데 크게 활약하였고, 나주를 공략한 다음에는 해군대장군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는 중앙에 올라와서는 시중(侍中)의 직책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위험을 피하려고 다시 나주로 내려가 후백제를 견제하는 전초 기지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철원으로 돌아와 홍유·선승겸·복지겸·배현겸 등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자신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송악으로 환도하였다.²⁶⁾ 이후 그는 후백제의 왕 선겸과 일리천(一利川)의 전투에서 최후로 승리함으로서²⁷⁾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통일 왕조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방의 강대한 호족세력들은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을 직접 지배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별부·활부 등과 같은 관부를 설치하여 지방면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호족들은 그 자신의 지역적 지배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려 왕조에 참여함으로서 왕권에 카다란 부담이 되었다.

태조는 이러한 호족들을 전제하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혼인정책을 정략적 파제로 삼았다. 그 결과 그는 29명의 왕비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 선혜왕후 유씨와 장화왕후 오씨는 그가 국왕이 되기 전에 결혼한 부인들이었다. 그 나머지 왕비들은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이었던 부모의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신명순성태후 유씨는 충주의 호족인 내사령 유궁달의 딸이었고, 광주원부인·소광주원부인 왕씨는 광주의 호족인 대왕 왕규의 딸이었으며, 예화부인 왕씨는 춘주의 대장 왕유의 딸이었다.²⁸⁾

태조가 고려의 국왕으로 즉위한(918) 직후 정치적인 반란이 수개월 동안

26)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弓裔傳.

27) 『高麗史』 권 2, 世家 2, 태조 19년 9월.

28) 河炫卿, 1968.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梨大史苑』 7.

여러 차례 일어났다. 때문에 태조는 자신의 지원세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그의 아내 29명 중 25명과의 혼인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출신지는 황해도와 경기도가 12명이었고, 그 다음이 경상도 그리고 기타 충청도·강원도·전라도 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다. 즉 고려 지역에서 18명, 백제 지역에서 2명, 신라 지역에서 6명이었으며, 한 가문에서 2~3명의 왕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태조의 혼인정책은 왕권의 측면에서는 호족세력을 그 자신을 중심으로 규합시키는 것이었던 반면, 호족의 입장에서는 왕권과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광주 출신의 왕규 역시 태조·혜종대에 막강한 권력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왕규는 광주 출신이었지만, 그의 출생과 가계가 누락되어 그 행적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후삼국 시기에 광주를 기반으로 했던 호족이었을 것은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 광주는 궁예의 명령을 받고 중원 지역의 군략에 나섰던 왕건에게 투항한 것으로 되어있다. 왕건이 광주에서 광주세력과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광주·충주·남양·괴산 등지의 세력들이 그에게 항복하였던 것이다. 이후 왕규는 태조를 섬겨 대광(太匡)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대광은 왕실에 커다란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고려초기 최고의 지위였다. 그가 대장이 되었다는 것은 태조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그 자신이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며, 태조 역시 그의 두 딸을 제15비 광주원부인과 제16비 소광주원부인으로 맞아 들었다. 제16비는 아들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광주원군이었다.²⁹⁾

그러나 태조의 혼인정책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알투를 불러 일으켰다.³⁰⁾ 특히 왕규는 태조에 이어 즉위한 혜종의 창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위에 세우고자 두 차례에 걸쳐 혜종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한번은 왕규가 밤에 혜종이 깊이 잠든 것을 살피고 그의 부하를 왕의 침실에 참입시켰다. 그 자객이 혜종을 암살하려던 순간 혜

29) 『高麗史』 권 127, 外傳 40, 王規傳.

30) 何桂綱, 1988 「高麗惠宗代의 政變」『史學研究』 20.

李鍾旭, 1981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高麗光宗研究』.

종이 잠에서 깨어나 그를 때려 죽였다. 또 한번은 어느 날 혜종이 몸이 편찮아 선덕전에 있었는데, 최지몽의 조언으로 거처를 몰래 중광전으로 옮겼다. 왕규는 그날 밤 직접 혜종을 빼치려고 했지만 최지몽의 기지로 실패하고 팔았다.³¹⁾ 이렇게 혜종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 기도가 왕규의 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종은 왕규의 죄를 문책하거나 용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규가 그의 장인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보다는 왕규를 융경할 만한 세력기반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왕규의 세력이 혜종의 왕권을 암도하였던 것이다.³²⁾ 이런 점은 혜종의 즉위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918년 4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태조는 선혜왕후 유씨와 장화왕후 오씨 2명의 부인이 있었으나, 아들로는 장화왕후 소생의 무(武, 뒤에 혜종이 됨)가 유일하였다. 태조는 즉위한 뒤 곧바로 7살의 무를 후계자로 정하고자 하였다. 후계자의 책봉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이런 태조의 뜻을 헤아린 박술희의 주청으로 태조 4년(921)에 무는 10살의 아린 나이에 후계자로 책봉되었다.³³⁾ 이처럼 태조가 뜻을 세운지 3년 뒤에나 책봉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혜종의 외가가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태조가 박술희를 혜종의 후견인으로 책혔던 것은 그가 유력한 호족세력으로서 강력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태조의 사망과 박술희의 부상은 여타 호족세력들의 결집력을 이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대립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박술희가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던 왕규와 대립하였던 것은 자연스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조의 왕비가 많았고 그 소생 또한 많았다는 것 역시 왕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권력쟁탈을 벌이게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왕규가 혜종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벌어졌고, 뒤이어 혜종이 사망하자 태조의 아들 요(堯, 뒤에 정종이 됨)가 서경의 왕식령 세력을 끌어들이 왕권을 위협했던 왕규를 제거하고 아울러 그의 부하 300여명을 물

31) 『高麗史』 권 127, 列傳 40, 王規傳.

32) 何桂嗣, 1981 「皇基과 王權」 『한국사』 4.

33) 『高麗史』 권 92, 列傳 5, 朴述熙傳.

살하였다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광주 출신의 왕규는 태조·혜종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도 크게 좌우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 개경의 남부 지역에 있어서 광주 지역이 차지했던 지리적·천략적인 면과 그로 인한 왕실과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교통로와 성남지역

삼국시대 하남위례성이 백제의 수도였을 때에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남지역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국토의 남북을 이어주는 길목이었다가, 조선시대 한양이 수도로서 기능하던 시기에는 수도의 관문으로서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황십리 — 송파나루 — 광주 끈지암으로 나가 경상북도, 강원도 남부,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으로 뻗은 국토 좌로(左路)의 길목과 한강전 — 일원리 — 달래내고개 — 너터라점(暉교)을 통하여 충청도와 경상도로 통하는 국토 중로(中路)의 중간에 위치하여 육상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역도(驛道) 역시 낙생역을 거점으로 충청도와 좌우로 연결되었으며, 불마역도 이용되었다.³⁵⁾

34) 『高麗史』 권 127, 列傳 40, 王規傳。

35)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오늘날의 성남지역이 전근대사회에서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고 이어서 광진교가 건설되면서 성남지역의 관문이 노량진을 거치는 한강 인도교로 옮겨졌다. 또한 철교가 부설되면서부터는 송파나루의 쇠퇴를 더욱 부채질하여 급기야 이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广州 대단지가 개발되고 열동과 광설이 개발되면서 한남대교와 광설대교가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광진교 하나를 사이에 놓고 왕래하던 서울 길이 더욱 활성화 되었고, 더구나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관교 구리간 고속도로가 둘리면서부터 성남지는 이제 교통로로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성남지역은 이러한 교통의 권리함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城南市史編纂委員會, 1993 『城南市史』 100쪽).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 때, 천근대 사회의 도시 발달은 도로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도시 역시 수도 개경을 중심 축으로 연결되었고, 그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전국에는 525개의 역(驛)이 있었고, 이것들은 22역도(驛道)로 묶여 있었다. 이 역도 가운데 산예도(獵驛道)·금교도(金郊道)·철령도(鐵嶺道)·홍교도(興郊道)·총화도(興化道)·운중도(雲中道)·도원도(桃源道)·삭방도(削方道) 등 8개는 수도 개경 북쪽으로 배치되었고, 창교도(青郊道)·춘주도(春州道)·평구도(平丘道)·명주도(溟州道)·경주도(慶州道)·충청주도(忠淸州道)·천공주도(全公州道)·승나주도(昇羅州道)·산남도(山南道)·남원도(南原道)·경주도(慶州道)·금주도(金州道)·상주도(尙州道)·경산부도(京山府道) 등 14개는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³⁶⁾

개경에서 황해도 방면으로 가는 길은 서해안을 따라 백천 — 연안 — 해주로 이어지는 산예도가³⁷⁾ 있었고, 내륙 길로는 금천 — 평산 — 신계 — 곡산으로 가는 금교도가³⁸⁾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철원 — 금화 — 평강 — 회랑으로 이어지는 도원도가³⁹⁾ 있었는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철령을 지나 금강산과 원산까지 갈 수 있다. 개경에서 서경(平양)으로 가는 길은 금교도와 철령도가 있었다. 금교도의 평산에서 서흥을 지나 차비령을 넘으면 서경의 남쪽인 철령도와 만난다. 철령도는⁴⁰⁾ 황주 — 봉산 — 재령 — 수안

36) 『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한국역사연구회, 1997 「풀길따라 빚길따라 옆리는 고려의 교통로」『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참조.

37) 『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獵驛道掌十 獵駕(開城) 金谷(白州) 淩洞(塙州) 調端(嘉栗) 望江(金剛) 楊溪(安西) 雜安(青松) 佐丘(永康)」

38) 『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金郊道掌十六 金郊(江陰) 與義(牛峯) 玉池(江陰) 安信(牛峯) 金岩(寶山) 安城(平州) 龍泉(洞州) 班石(駢驛) 潤泉(平州) 管山(俠溪) 今勿(谷州) 桓谷(俠溪) 泉頭(谷州)」

39) 『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桃源道掌二十一 桃源(松林) 白蘋(蔚州) 玉溪(章州) 龍潭(東州) 鳴淵(平康) 松間(丹林) 銀漢(交州) 鳳江驛(田原) 桃昌(南驛) 丹岳(金化) 洞陰驛(列寧驛) 峰谷(僧嶺) 通塔(交州) 麥嶺(直木) 雜壤(故城)」

40) 『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岳嶺道掌十一 岳嶺(鳳州) 洞仙(丹

을 거쳐 서경까지 가는 길이었다.

서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흥교도였다.⁴¹⁾ 이 길에는 서경에서 서남방향으로 강서 — 용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숙천 — 안주 — 박천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흥교도를 이어 의주방면의 국경지대로 뻗은 길이 흥화도였고, 평북 내륙지방으로 이어졌던 것이 운중도였다. 흥화도는⁴²⁾ 안북도호루가 있던 안주의 북쪽 방면인 천천 — 철산 — 의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고, 운중도는⁴³⁾ 안주의 동쪽 방면인 영변 — 개천 — 맹산 등의 지역을 이어주는 길이었다. 이 흥화도와 운중도의 역들이 다른 지역보다 세밀하게 파악된 것은 국경지대의 중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개경에서 원산으로 나아가는 도원도와 연결되었던 것이 삭방도였다. 삭방도는⁴⁴⁾ 오늘날 함경남도 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을 이어주는 것이었는데,

林(黃州) 陶工(鳳州) 金洞(安州) 射壘(蓬安) 週郊 生陽 高原 神地 雲峯(西京),

41) 『高麗史』 卷 82, 志36, 兵2, 站驛條, 「興郊道掌十二 興郊(博州) 興材 雲
岳(寧州) 通德(肅州) 道德 深原(永平) 安定 林原 玄岳(西京) 道和(咸從)
連城(龍岡) 安壽(安戎)」

42) 『高麗史』 卷 82, 志36, 兵2, 站驛條, 「興化道掌二十九 良寧(黃州) 安信
(嘉州) 新安 雲興(韓州) 林畔 通陽(宜州) 豊陽(鐵州) 无池(寧州) 昌泰(寧
德) 鴨羅(靜州) 會元(義州) 名駒(龍州) 雲駒(麟州) 從化(威遠) 長興(泰州)
城陽 三妓 通義 大平(蘆州) 寶寧 懿仁(安義) 花田 露川(定戎) 銀岳 檢田
(寧縣) 益舍(處州) 芳田 昌平(開州) 安高新驛(安戎)」

43) 『高麗史』 卷 82, 志36, 兵2, 站驛條, 「雲中道掌四十三 長壽(西京) 道德
善田 金川(慈州) 長梨 長歡 雜歲(進州) 薦民 新定 通路(鐵州) 舊林(延州)
永安(青塞) 石城 櫻谷 平寧(平直) 實洞(咸州) 寶田 威德(順州) 安德 安國
德林(博州) 車牛 潤澤 實川(寧遠) 蘭洞(蔚州) 靖潤(陽邑) 新豐(撫州) 雲谷
東山 泰來(孟州) 寬化 石牛(渭州) 草溪 安泰(泰州) 間平 沙川 豊川(延州)
玉兒 雲畔(雲州) 玉闕 摧田(昌州) 長林(成州) 興德(胶州)」

44) 『高麗史』 卷 82, 志36, 兵2, 站驛條, 「辨方道掌四十二 孤山(蔚山) 嶺山
(文州) 寶龍(瑞谷) 期安(亞州) 雜深(沃川) 塔池(鶴浦) 道風(霧陰) 道闢 通
達(高州) 知道(和州) 德猶(文州) 長春 通妓(長州) 長昌(定州) 茂林(長州)
歸厚(耀德) 安身(青邊) 靜山(寧仁) 懿寧 宣德 巨川(元興) 朝東(鐵漢) 平元

이는 흥화도와 운중도와 마찬가지로 국방상으로 중요하게 관리되었을 것이다. 삭방도 밑으로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길이 명주도였다. 명주도는⁴⁵⁾ 강릉을 중심으로 연곡 — 양양으로 이어지는 길과 남쪽 방면으로 옥계 — 삼척 — 울진으로 연결되는 길이었다.

개경에서 남쪽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가운데 중심이 된 것은 개경에서 남경(南京, 한양)으로 이어지는 청교도였다. 청교도는⁴⁶⁾ 개경 — 과주 — 남경으로 이어지는 길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서울 — 부평 — 인천 — 고양 — 양주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칭하였다. 이 길을 중심으로 하여 가평 — 춘천 — 인제로 이어지는 길이 춘주도였고,⁴⁷⁾ 아천 — 원주 — 제천 — 단양을 지나 영주 — 안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평구도였으며,⁴⁸⁾ 과천 — 용인 — 죽산 — 음성 — 괴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광주도였다.⁴⁹⁾

(永興) 通化(長平) 楊豐(金壤) 同德(鵠谷) 離路(臨道) 趙廟(雪岳) 高岑(高城) 美麟(蓼陽) 泰康(安昌) 竹苞 神淵(杆城) 淮木 雲根(列山) 長富(龍津)

碧木 林雲 巨坊 益守 長枝 富寧(雲岳)。

45) 「高麗史」 권 82, 志 36, 衍 2, 站驛條. 「漢州道掌二十八 大昌 橋漢 珍富 大化 方林 雲橋(漢州) 安昌 鳥原(橫川) 木界 安仁 丘山 高祖(漢州) 楊豐 (羽溪) 同德(鵠谷) 餘推(旌善) 平陵 史直 稽柯 道化 沃原(三陟) 青山 德新 奥府 祖召(蔚珍) 於雲 翼令 降仙(襄州) 騎駒(洞山)」

46) 「高麗史」 권 82, 志 36, 衍 2, 站驛條. 「青郎道掌十五 青郊(開城) 道波(臨津) 馬山(峯城) 碧池(高峯) 迎暖(南京) 平理(施水) 穆林 丹灘(積城) 繡波

(南京) 蔚原(南京) 幸州驛 從羅(守安) 金輪(樹州) 重林(仁州) 緑楊(見州)」

47) 「高麗史」 권 82, 志 36, 衍 2, 站驛條. 「春州道掌二十四 保安 哈壤 富昌 仁蘆(春州) 甘井(嘉平) 川原 芳春 山梁 原貞(狼川) 道仁(樞口) 連河(懶宗) 甘泉 連峯(橫川) 橋川驛 馬橋(麟蹄) 亂橋(瑞禾) 桑樹(豐壤) 雙谷 安遜(抱州) 南京驛 仇谷(南京) 隨川(沙川) 蒼峯 含春(橫川)」

48) 「高麗史」 권 82, 志 36, 衍 2, 站驛條. 「平丘道掌三十 平丘(南京) 幸安(廣州) 媽賓(楊根) 田谷 伯冬(砥平) 幽原(原州) 道化(川寧) 道興(忠州) 連原(忠州) 黃闊 露山 安陰(清風) 丹丘 安壤 神林(原州) 象南(提州) 道平 道山 正陽(寧越) 道泉 長林(丹山) 楊豐(永春) 楊壽(平昌) 新興 新津(黃利) 昌榮(興州) 平里 昌孫(兩州) 幽洞(甘泉) 道深(奉化)」

49) 「高麗史」 권 82, 志 36, 衍 2, 站驛條. 「慶(廣州) 謂字, 雜者註) 道掌十五 楊豐 廉安 長嘉 安業 南山(廣州) 良梓(果州) 金領(龍駒) 佐賛 分行(竹州)」

남부지역으로는 서부 방면에 충주청주도·천공주도·승나주도 등 3개의 도로가 내륙지방과 연결되었다. 충주청주도는⁵⁰⁾ 오늘날 수원—청주—연기로 내려가는 길과 온양—예산—해미—공주—부여 방면의 길을 가리켰고, 천공주도는⁵¹⁾ 천주—여산—광주 방면과 고부—태안—청을 방면의 도로로 이루어졌다. 승나주도는⁵²⁾ 고창—영광—함평—영암—해남 방면과 담양—광주—나주—화순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남해안을 따라 짜여진 도로는 전라도 방면의 남원도와 경상도 방면의 산남도·금주도가 있었다. 남원도는⁵³⁾ 임실—남원—구례—울릉으로 이어지는 길과 순천—낙안—보성—장흥 방면의 길이었으며, 장흥 방면에서 승나주도로 연결되었다. 산남도는⁵⁴⁾ 전주—진안—진주 방면으로

五行 安利(利用) 無極(陰竹) 邑安(縣城) 丹月 安富(槐州),

50)『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忠淸州道掌三十四 同和 長足 貴好
(水州) 嘉川(陽城) 東峯 叢樹 豐山 長池(綿州) 長楊 堆根(銀州) 燕山驛
金沙(燕城) 蒲谷(全義) 成觀(櫻山) 新恩(天安) 金鈞(豐歲) 長世(牙州) 昌
德(新昌) 理則(溫本) 日興(禮山) 廣庭 日新(公州) 坦平(公州) 跟山(扶餘)
維鳩(新豐) 檀楊(定山) 淩泉(伊山) 汎州驛 先世(大興) 金井(青陽) 得無(余
美) 夢原(真海) 靈樞(葛林) 菲龍(浦山)」

51)『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全公州道掌二十一 參禮(全州) 良
材(萬陽) 蒲谷(伊城) 玉壺(雲梯) 材谷(咸悅) 彩平(金馬) 檀林 内村(金堤)
蘆草(古草) 新保 居山(秦山) 川原(井邑) 蔡安(臨坡) 通賢(通禮) 珍仕(珍
同) 晴元(進禮) 敬天(公州) 平川(連山) 得延 利道(公州) 貞民(懷德)」

52)『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昇羅州道掌三十 青羅(羅州) 仙麻
敬陽(光州) 德奇(潭陽) 慶新 清潤 霽溪(路安) 廣里(甫平) 仁物(韓城) 永新
(珍原) 烏林(鐵治) 嘉林(和順) 緑沙(慶光) 丹巖(長成) 青松(茂松) 衡豐(成
豐) 檀樹(平平) 永保(靈邑) 通谷(通康) 淩山(海南) 碧山(進寧) 別珍(竹山)
甫里(黃原) 軍知(福成) 嘉新(寶城) 漢浦(北陽) 樂新(樂安) 益新 聰居(元
陽) 梁陽(昇州)」

53)『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兩潔道掌十二 銀樹 菩若 通道(南
原) 烏原(任實) 龍燈(求禮) 美樹(居寧) 印月(靈峯) 蘆草(九草) 大富(玉里)
知新(谷城) 高陽 樂本(富有)」

54)『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山南道掌二十八 錦石(全州) 雜山

나가는 길과 거창 — 합천 — 고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금주도는⁵⁵⁾ 김해를 중심으로 광원 — 빙양 — 청도 — 현풍 방면과 밀양 — 양산 — 동래 — 용산 — 연양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경상도 대륙지역에는 경산부도·상주도·경주도가 있었다. 경산부도는⁵⁶⁾ 성주 — 김천 — 횡간 — 옥천 — 보은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상주도는⁵⁷⁾ 문경 — 예천 — 안동 방면의 도로와 선산 — 군위 방면의 도로로 이루어졌다. 경주도는⁵⁸⁾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 대구 — 경산 방면과 동해안을 따라 영덕 — 평해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교통로는 수도 개경을 중심 쪽으로 하여 전국을

(高山) 丹嶺(蔚安) 半居 正樹 電村 小男(巨州) 漢葉(泗州) 新安(江城) 李
原 橋浦(河東) 半沙(括陽) 常寧(諸海) 沈沙(昆明) 富多(班城) 如男(宜寧)
連陽 閔賓(陝州) 星奇(昌昌) 茂村(居昌) 有隣(嘉樹) 沙斤(利安) 春原 排賴
望驛(國城) 慶新(南海) 鳥嶺(巨濟) 櫛溪(鵝巨)

55)『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金州道掌三十一 德山 省仍 赤頂
金谷 大驛(金州) 霽浦 昌仁(七元) 自如(義安) 繩谷(咸安) 近珠(合浦) 無乙
伊 永安 用家(密城) 內也(昌寧) 省乙颯 驪川 西之賈田(清道) 燕山(玄鳳)
一門(桂城) 摩井(慶山) 梁州驛 黃山 濟浦 頓川(梁州) 蔡山(東萊) 阿等具
機長驛 屈火 肥谷(蔚州) 雜川(彥陽)」

56)『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京山府道掌二十五 安壤 楚溪(京
山) 安林(高令) 水鄉 緣情(八當) 香火(花園) 茂洪(加利) 金泉(金山) 矢溪
(黃間) 長谷(知禮) 順陽(陽山) 土觀(利山) 利仁(安邑) 增若(管城) 作乃(知
禮) 洛陽 洛山(尚州) 會同(永川) 猛岩 舍林(羅令) 秋風(御狗) 常平(中平),
安谷(善州) 長寧(化令) 扶桑(開令)」

57)『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尚州道掌二十五 閨谷(虎溪) 洛原
洛東(尚州) 青路 鐵波(義城) 智保(靈宮) 道明(甫州) 德通(咸吉) 美泉 安基
(安東) 安鄭(豊山) 輸誠(閔慶) 守山(多仁) 雙溪(北屋) 安漢(安定) 翠昔 通
山 松歸(臨河) 連那 仇於(善州) 牛谷(義興) 上林(海平) 曹溪(率令) 文居
和目(安德)」

58)『高麗史』 권 82, 志36, 兵2, 站驛條. 「慶州道掌二十三 話里 幸良 阿拂
加里 叔谷 仍已 仇於旦(慶州) 長守(新寧) 話通 新驛 加火(永州) 凡於(壽
城) 押渠(草山) 六叱(神光) 安康驛 松靠(清河) 仁此(杞溪) 朴谷 赤元(禮
州) 阿叱達(平海) 酒觀 南驛(盈德) 琴田(英陽)」

22개의 도로망으로 구성되었고, 이것들의 관리는 병부에서 담당하였다.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정(驛丁)이 있었다. 역장은 역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졌다. 역리는 문서 전달을 담당하는 자로서 필요한 말을 준비하고 인원을 충원하였다. 역정은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자로서 사신들의 심부름을 전달하였다. 역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해전·방목의 토지가 주어졌고, 용지 조달을 위한 지위전, 역장을 위한 장전, 그리고 말 사육을 위한 마위전 등이 지금되었다.

그리고 북계·동계 방면의 역 가운데 특별하게 관리된 역들이 있었는데, 이를 22역도제(驛道制)와 별도로 육과체계(六科體系)라고 하였다. 이것은 개경과 서경 사이의 긴요한 연락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군사·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둑기 위한 것이었다. 과에 따라 1과에는 75명, 2과에는 60명, 3과에는 45명, 4과에는 35명, 5과에는 12명, 그리고 6과에는 7명의 역정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였다. 역정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 정호(丁戶)로 충당하였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농민인 백정(百丁)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역에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세워 놓아야 했기 때문이다.⁵⁹⁾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교통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지역에 포함되었던 성남지역은 고려시대 수도 개경과 남부지역을 이어주는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고려초기 왕규의 정치적 배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즉 왕규가 중앙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광주 지역의 자리적 잇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광주 지역은 수도 개경과 남부 내륙지역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개경에서 결기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청교도였고, 이 길을 따라 춘주도와 덤주도를 통해 강원도로, 광주도와 평구도는 각각 충청도와 경상도로 통할 수 있었다. 성남 지역이 포함되었던 광주도의 관할 지역은 한양 — 이천 — 음죽 — 충주로 이어지는 역로와 한양 — 양재 — 용인 — 죽산 — 읍성 — 괴산 — 연릉으로 이어지는 역로였다. 여기에 속했던 역으로는 디봉역을 비롯하여 광주의 경안역·

59) 『高麗史』 권 82, 志36, 氏2, 站驛條.

장가역·안업역·남산역, 과천의 양재역, 용인의 금령역, 죽산의 좌찬역과 분행역, 이천의 오령역과 안리역, 음죽의 무극역, 충주의 요안역과 단월역, 연풍의 안부역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역로 사이에 위치한 곳이 오늘날의 성남 지역이었다는 점과 낙성역(현재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 지역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V. 맷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그 대강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맷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성남지역이 포함된 광주는 고려시대의 전기간을 통하여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일례로 광주 출신 왕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태조·혜종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자였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도 크게 좌우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 개경의 남부 지역에서 광주 지역이 차지했던 지리적·전략적인 면과 그로 인한 왕실과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 이 지역이 삼국시대 백제의 도성이 위치했던 사실과 하천·평야지역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물산지대라는 것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 개경에서 남부 내륙지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이 지역이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연구는 수도 개경의 남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지방사회로서의 역할과 한강유역의 역사적 사실들과의 연계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과거 삼국시대의 백제 관계사와 조선시대의 병자호란 관계사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오던 단편적인 역사 이해를 뛰어넘어,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강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김기빈(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목 차

I. 머리말	4) 회군이(回軍-, 회군이)
II. 분당과 그 주변지역의 전투	2.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땅이름
1. 전투의 概況	1) 돌마(突馬)
2. 雙嶺 전투	2) 낙생(樂生)
3. 跡川 전투	3) 삼천병마골(三千兵馬-)
4. 光教山 전투	3. 기타 병자호란 관련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이름
5. 그 밖의 전투	1) 진재산(陣在山)
III. 분당의 병자호란 관련 땅이름	2) 전두골(陣頭-)
1. 직접 관련성이 있는 땅이름	3) 진너미 고개
1) 합천(陰川: 어내, 동막천)	
2) 경전파(鄭轉坡)	
3) 충청모행이(忠淸-)	
	IV. 맷는 말

I. 머리말

丙子胡亂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커다란 삼처로 남아있는 조선왕조 2대 國難의 하나이다. 이 전쟁의 결과는 민족의식에 대한 醒醒의 한 계기가 되

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 야만족으로 경멸하여 왔던 신생 국가로부터 '신하의 예'를 강요당하고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치욕, 불과 한 달 여의 짧은 기간에 극명하게 우열이 드러나 버린 전력의 차이, 그리고 이 후 1894년(청일전쟁)까지 진행된 청나라에의 依屬관계는 분명 조선 후기의 역사 팬도를 바꾼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앞서서 일어난 양진왜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壬辰, 丙子 양 난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땅이름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북쪽 대륙으로부터 漢, 隋, 蒙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또 남쪽으로는倭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전쟁의 참화가 백성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새겨진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軍事, 防壘와 관계된 지명 역시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어휘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兵營, 雉田, 봉우제, 장군봉, 진타벌, 쇄성대, 되터(되놈의 터) 등과 같은 지명들이 그것이다.

방자호관의 중심이 되었던 南漢山城의 남서부에 위치한 성남시지역과, 또 산성으로부터 4~8km를 상거한 분당지역 역시 丙子胡亂의 병화를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산성이 청군에게 포위되자 이 지역 일대는 청나라 군사의 약탈의 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남아있던 부녀자들은 대부분 청군에 납치당하였고, 이런 아이들은 버려진 채 주위에 굽주리며 얼어죽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산성 안의 임금을 구하기 위하여 남쪽에서 올라오는 勸王兵이 남한산성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다.

梨大峙는 남방으로 통로되는 곳인데 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되찾는다면 三南지방의 길이 절로 통하여 적이 말을 놀이지 못 할 것입니다……

三南길이 통할 수 있다면 진실로 要害處가 아니겠는가…… ①

설만에 포위된 국왕과 신하들이 남쪽을 돌파하여 근왕봉과 접선코자 하였

① 《남한지 (국역본)》,(광주군,1989), 285쪽

으나 그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이를 사전에 간파한 청나라 군대의 勤王兵 趨斷작전에 의하여 분당과 그 주변지역은 호란의 角逐場이 되었고, 각처의 우리 군사들은 도처에서 청나라 군사에 敗退당함으로써 분당과 그 주변지역이 남한산성의 本城지역 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당과 그 주변지역의 전투에 관하여는, 몇몇 전투에 대하여 당시의 戰況만 전해질뿐 구체적인 땅이름자료가 전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그 까닭은 구전되어 온 많은 자료들이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口碑傳承 자체가 점점 소멸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의 특성상 현지 주민의 集團移住에 따른 生存 高齡者들로부터의 지명에 관한 口傳자료 수집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고에 수록한 자료는 필자가 그 동안 분당지역에서 조사된 丙子胡亂 관련 지명과 문현 자료 등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자료수집의 한계성 때문에 누락되었거나 지명의 위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 자료는 규후 남한산성을 둘러싼 서울 날부지역(강동, 송파, 강남)과 광주군, 하남시, 그리고 성남시, 용인시 지역 등을 망라하여 병자호란과 관련한 땅이름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고는 그 조그만 시각으로서와 멀미를 제공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지명자료의 소개에 앞서서 분당과 그 주변지역에서 벌어진 병자호란 당시의 전투개황과 지역별 전투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땅이름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분당과 그 주변지역의 전투

1. 전투의 概況

1636년(인조 14) 4월 국호를 '淸'으로, 면호를 '崇德'으로,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寬謹仁皇帝'이자 '大明皇帝'라 칭한 청태종은 그해 12월 1일 청병

78,000명, 한병 20,000명, 불고군 30,000명, 도합 128,000명의 원정군을 섬양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일 먼저 기동성이 뛰어난 기마부대 6,000기를 선봉으로 하여 조선장벌군을 출병시켰다.

그 군사들이 鶴綠江에 도착한 것은 12월 8일, 풍우처럼 내달려 온 청군선봉부대가 한양근교의 불광동 부근에 도착하여 한양과 강화도를 차단한 것이 12월 14일, 청군의 침략이 조선정부에 보고된 것이 12월 13일, 土和派 최명길을 청군의 선봉부대에 보내 공격을 자연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입성한 것이 12월 14일 밤 10시, 청군의 선발대가 남한산성에 도착한 것이 12월 15일이며, 이때부터 산전도의投降까지 45일간의 남한산성 蘿城이 시작된다.

丙子胡亂이 조선군의 치욕적인 패배로 끝나기까지는 그 敗因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필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조선의 성곽중심 据點 防禦계획에 대하여, 청군의 据點 迂迴戰略 및 수도와 국왕 주둔지의 적합 공격이 주효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의주 백마산성을 비롯한 주요 산성에는 대웅명력을 전유시키 산성방어군의 발을 묶어서 고착시키는 한편, 주력부대는 뛰어난 機動力으로 南進하여 수도를 단숨에 절령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조정을 압박하여 조선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점이다.

두 번째는 철군의 수도권 진입 후 한양부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행주와 양화리에 병력을 배치하여 한양과 강화도의 연결을 遏斷한 점이다. 이미 고려때의 강화도 천도에 의한 대몽항전 이후 그들의 강화도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할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산성을 거점으로 한 서북방어군계획과, 강화도-한양-남한산성을 거점으로 한 수도권 방어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孤立無援의 남한산성 방어전략에 의존하여 국문을 걸었던 셈이 되는 것이다.²⁾

세 번째는 남한산성의 孤立化戰略이다. 만약 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에서 아군을 향하여 대규모의 攻城戰을 전개하였다만 彼我간에 엄청난 인명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조가 성을 나가 산전도에서

2) 「한민족 역대 전쟁사」(전쟁기념사업회, 행림출판, 1992) 444쪽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처음으로 청태종이 성안에 들어와 살펴본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0일, 우의정 이홍주에게 명하여 산성을 지키게 하고 왕은 세자와 함께 서문으로 나와 請陣에 가서 和約을 이루고 저녁 때 환도하였다. 清主(청태종)가 산성을 둘러보고 할 天下의 形勢이라고 감탄하였다.³⁾

남한산성은 지세가 위낙 험준하였으므로 성공격은 12월 22일 ~ 23일의 火砲공격과 雲梯.撞車 등을 동원한 4개 성문공격 이외에는 소규모 局地戰에 국한하였고, 산발적인 火砲공격에 그쳤으며, 그들의 작전의 핵심은 8도에서 올라오는 勤王兵을 도처에서 遏斷하여 산성을 孤立시키므로서, 성안의 양식, 무기, 화약, 생필품, 약품, 뱃감 등의 고갈에 의한 투항을 유도해 낸 것이다.

행궁 남쪽 나무 위에 바치가 날아와 둥지를 틀어서 사람들은 이것이 古兆라 하여, 성중에 믿는 것이라고는 이것 하나 뿐이었다.
 왕의 일부자라도 가져오다가 노상에서 모두 빼앗기고, 의창군이 山羊皮 이불 한 채를 드렸더니 지난번 눈비가 내리고 출던 날 포개어 성지키는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왕은 이날 밤부터 옷을 고르지 않은 채잠자리에 들었다.....설에 들어왔을 때에는 새벽에 닦 우는 소리를 듣겠더니 지금은 닭소리를 들을 수 없다. 아는 내게 마치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이제 부터는 그 리지 말라.⁴⁾

<남한지>에 기록된 농성 당시의 이런 기록들을 대하고 보면 그 당시의 성안 정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눈물겨웠는지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다.

2. 雙嶺 전투

雙嶺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팔주읍과 초월면 경계에 있는 큰 고개로서,

3) 『남한지』(광주군, 1305쪽)

4) 『남한지』(관계서) 295쪽

큰 고개(大雙嶺)와 작은 고개(小雙嶺)가 나란히 쌍으로 있으므로 '쌍령'이라 불러 온 곳이다.

쌍령전투는 영남지방에서 일어난 勤王兵이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다가 청나라 군사와 접전을 벌여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한 싸움터이다. 慶尚道의 勤王兵 8,000명을 아른 경상좌병사 허 완과 경상 우병사 민 영은 남한산성 동남방 40여리 부근에 위치한 대쌍령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1637년 1월 2일이었다.

당시 경상도 勤王兵은 좌병사의 군대가 우측 고지에, 우병사의 군대가 좌측 고지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청군은 2,000명의 병력으로 좌, 우의 양진영을 견제하면서 4,000명의 병력으로 좌병사 허 완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적군의 처음 공격 때에는 우리 군사를 중 포수들이 일제 사격을 하하여 적을 몰려쳤으나 그들이 제차 공격을 감행하자, 이미 화약이 다 떨어져서 적군에게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남한지>에는 慶尚道의 勤王兵이 성으로부터 30여리 거리에 이르렀는데 도 炮候兵을 대보내지 않았으며, 청나라 군사가 우리 군사를 예워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⁵⁾

그리하여 적군이 전영 안으로 돌입해 들어오자 적군과 하군이 뒤섞여 바렸고, 서로 밀치고, 부딪치고, 뛸려서 시체가 끝싸기에 서로 포개져서 밟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안동 蔡將 선악해는 출로 적의 선봉을 맞아 하여 순수 30여발의 화살을 쏘았으나 모두 적군의 木防牌에 맞아 화살이 바닥 나버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한발자국도 물려서지 않고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으며, 이 때 좌병사도 적군에게 칫밟히다시피 하여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우측 진영이 무너지자, 적의 전 군사가 일제히 좌측 진영을 집중 공격하였다. 이때 우병사 민 영의 군대는 적군을 미리 기다려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포수들이 총을 쏘면 모두 적중하여 승리를 거둘만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병사들에 대한 화약 보급에 있어 1인당 2냥씩만을 공급

5) 『남한지』(전개서), 298쪽

하였고, 모자라는 화약은 그때 그때 공급해 주었으므로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되고 말았다. 병사들이 화약을 보급받기 위하여 화약고로 몰려들었다가 그 복세동에 화약고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진영이 크게 어지러워지자 이를 간파한 청군이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여 이때 우병사 민 영도 전사하고 말았다.

<남한지>에 의하면 그 당시 안동 영광 선약해는 전의하기를 “남산에다 전을 치면 재할 리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왕병이 개멸된 것이라 하였다.

이 쌍령전투의 참패는 그 당시 수많은 무녀자들이 근왕병을 찾아와 의지하고 있다가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하자, 지금의 초월면 쌍령리 절벽에서 많은 부녀자들이 몸을 던져 자결하였으므로 이곳을 ‘落花巖’이라 부르게 되어 지금까지 한스러운 이름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초월면 대봉령리에 있는 ‘眞忠廟(죽은 精忠廟)’은 그 때 전사한 병사들의 충절을 기려 만든 묘로서, 이 표를 달고 있는 전나무에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매년 제사를 지내온 곳이기도 하다.

또 초월면 도평리의 수령 약 300년 된 참나무 역시, 그때 쌍령전투에서 강상좌병사의 군사들이 주둔한 곳으로서, 이곳에서 전몰한 4,000여 우리 군사들의 명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온 나무이다.

3. 險川 전투

험천은 지금의 삼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읍 사이를 西出東流하여 낙생저수지를 만들고, 분당구 구미동에서 단천에 합류하는 동막천(단천지류의 하나)을 말한다.

남한산성의 임금을 구출하고 외적을 물아내기 위한 근왕병 중 가장 먼저 산성 부근에 도착한 부대는 충청감사 정세규의 군대가 틀림없는 것 같다.⁶⁾

그것은 공주감영의 자리가 위치도 그렇거니와, 문현에 따라서는 충청도

6) 『용인군지』, (용인군, 1990), 97쪽

근왕병이 험원에 도착한 날짜를 <남한지>는 12월 29일, <한민족 역사전쟁사>는 1월 2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남한지의 기록에 따르고자 한다.

勤王命을 받은 즉시 관내의 군사를 모은 충청감사 정세규는 병사 이의 배를 선봉으로 하여 8천이 병력(혹은 1,000명)을 이끌고 천안, 수원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

이때 이성현감 김홍익, 남포현감 이경정, 공주영장 최진립, 금정찰방 이경재 등도 함께 출전하였다. 忠青道 勤王兵은 야음을 둔타서 밤새 猥盜(지금의 서초구 대곡동과 성남시 경계의 대모산 부근)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 서남쪽 40여리 부근인 험천(마내, 즉 동막천)에 이르렀을 때, 청나라 좌익군 제 3군의 공격을 받았다. 청나라 군사들은 근왕병을 기다리다가 우회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놀란 충청병사 이희배는 도망가고, 이상현감 김홍익, 남포현감 이경정, 금정찰방 이상재 등이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였으며, 아군은 크게 무너졌다. 이에 충청감사 정세규는 자결할 것을 결심하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으나 부상만 당하고, 수하들이 구출하여 수원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 당시 공주영장 최진립은 감사를 뒤에 세우고 선두에서 싸웠는데, 청군이 풍우같이 내달려 오자 형세가 급변하여 우리 군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진립은 선두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연신 활을 쏘아 적을 거꾸리뜨리다가 화살이 다하자 부하들에게 소리치기를 “너희는 반드시 나를 따라서 죽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한 치도 물리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표시를 해 두라” 하고는 끝까지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수원방면으로 물러난 충청도 勤王兵은 다시 재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으나 적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하여, 오히려 병사를만 희생시킨다는 주위의 만류에 따라 공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험천 싸움은 적이 먼저 邊撃隊로 아군 선봉대를 견제하면서 뒤로부터 기습하여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한 짜임이었다. 당시 충청감사 정세규는 바위아래 떨어져 있는 것을 연산의 군사 흥길복이 물레 들쳐업고 도망하여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고 한다.⁷⁾

병자호란이 끝난 후 인조임금은 맨먼저 남한산성으로 자신을 구하려 달려온 충장감사 정세규에 대하여 그 공을 가상하게 여기고, 이후 그를 특별히 우대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혐천의 한판 짜움은 전쟁을 책임진 충장병사 이의 배가 맨 먼저 도망간 반면에, 70세 노구를 이끌고 참전한 공주영장 죄진립은 끝까지 싸우다 죽으므로서 두 사람의 행적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짜움이었다.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도 물리치기 어려운 강병을 만나서 지휘통솔자가 풍무니를 내뻗 짜움이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짜움은 분당지역에 여러 가지 설화를 남기면서 지금까지 賞炙되고 있는 괴诞한 역사의 한 대목이다.

4. 光敎山 전투

광교산은 지금의 용인시 수지읍과 수원시 장안구 상왕교동 경계에 있는 높이 582m의 산이다. 이 산은 수원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옛 수원의 錦山으로 알려진 漢南錦北正脈의 일파이다.

'光敎山'이라는 이름은 고려초 왕건이 견훤을 정벌하고 돌아가는데 이 산에서 품제가 하늘로 솟아 오르므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는 뜻으로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또는 옛날 수도를 많이 한 도사가 이 산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후세에 빛이 되었으므로 '광교산'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라병사 김준용이 이끄는 8,000명의 勤王兵에 의하여 戰鬪를 올린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짜움이다.

1637년(인조 15)1월 4일 전라도 근왕병은 남한산성 남쪽 5~60리를 벌어 전 광교산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며칠전 충청도 근왕병이 패전한 혐천의 서쪽 삼류가 되며 거리로는 10여리 내외에 위치한 곳이다.

광교산에 전을 친 김준용의 군대는 적방이 대기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

7) 『남한치』, (전계서), 294쪽

고 광교산의 여러 골짜기에 포수를 매복시키는 한편 산위에 전영을 설치한 후, 저녁에는 햇불을 세워놓고 헛총질을 하여 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군사들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영 주변에 목책을 설치하여 제 1선에 포수, 제2, 제 3선에는 궁병과 황검병을 배치한 후 적이 공격해오면 총포로 집중 난사하여 청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청군이 퇴각하면 궁병과 황검병이 그 배후를 공격해 하였으며 적병과 여러 차례 겹친하여 많은 적을 죽였다.

특히 적군을 살상하는 가운데 적창 백양고리(문헌에 따라서는 백양고, 양고리, 액부양고리 등 이름에 차이가 있다.)를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렸다.

적장이 죽자 격분한 청군이 대거 몰려와서 병렬히 공격해 오면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은 대오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적병이 산 후면으로부터 암습해 오자 팔양현감의 군대가 놀라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김준용이 우리 군사를 독려하여 힘껏 싸우니, 적병은 날도 저물었으므로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군사들도 화살과 양식이 다 맷어진 상태이므로 군사를 수원으로 돌려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여 계차 공격하려 하였으나 놀란 군사들이 흩어져 바랐으므로 싸움은 끝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얼굴에 금가면을 쓰고 선두를 지휘하다가 전사한 적장 백양고 외에 대하여는, 그가 청태종의 매부라는 설 8)이 있는가 하면 청태종의 사위 양길리라는 설 9)이 있으며, 원두표의 군사에 의하여 지금의 하남시 상사왕리 범화동에서 전사하였다고 전해지는 청태종의 매부 양고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혹은 같은 사람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광교산 전투에서는 청나라 장수 3명과 수많은 적군들이 죽어서 피가 내를 이루었다고 하며, 청나라 군사들이 퇴각할 때 동료들의 시체를 태우며 울부짖는 소리가 산천을 진동하여 그때부터 이 골짜기를 '胡降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8) 『남한지』,(전개서), 299쪽

9) 『한민족 역사전쟁사』,(전개서), 450쪽

10) 『수원지명총람』,(수원시,1999), 138쪽

광교산 호항곡의 큰 바위에는 「충양공 김준용장군 전승지(忠襄公金俊龍將軍戰勝地)」라 새겨져 있고, 이 글씨의 좌우에는 「병자청란공제호남병근왕지자살청삼대장(丙子淸亂公提淸南兵勤王之此殺淸三大將)」이라 새겨져 있다.

이 바위의 비문은 정조 때 화성 성역의 총리대신을 맡은 좌의정 체제공이 호란당시 이 산에서 있었던 김준용의 전공을 듣고, 이를 바위에 새기 뒷 날의 기념으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한편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토월부탁의 「防禦谷」은 그 당시 광교산에 주둔한 김준용이 날쌔고 용감한 군사를 뽑아 이곳에 방전을 구축하였으므로 그때터 '방축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병자호란중 우리 군사와 청나라 군사들의 결전은 대부분 우리 군사들의 패전으로 얼룩져 있다. 비록 이 광교산 전투가 병자호란의 대세를 역전시킬 만한 큰 짜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장을 포함하여 많은 적을 물리친 것은 근왕병의 氣概와 護國意志를 드러낸 藝識語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5. 그 밖의 전투

남한산성의 본성 전투를 제외하면 분당과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로는 겹단산 전투와 삼각산전투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겹단산 전투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강원도에서 勤王兵을 이끌고 올라온 권경길은 1,000여명의 군사를 남한산 성 1km지점인 겹단산까지 진출하여 진영을 설치하니 그때가 12월 26일이었다.

이에 청군 진영에서는 이곳이 要害處임을 간파하고 다음날인 12월 27일 인근의 단대리(성남시 단대동)와 불당리(평주군 중부면)에 주둔하고 있던 2,000명의 군사로 우리 군사를 공격하였다.

결국 훈련이 부족한 우리 군사는 청나라 군사를 맞이하여 사력을 다하였으나 900여명의 전사자를 낸 채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결과는 남한산 성에 주둔한 조선군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실망

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외에 삼각산 전투에서 패한 유도대장 신기원의 군사 2,000명과 함경감사의 군사 7,000명, 강원감사의 군사 6,000명 등 17,000명의 駁王兵이 북쪽에서 납한산성으로 철근코자 하였으나 청군이 철근로를 모두 차단하고 있어서 직접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민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후에야 수도권으로 진출하였으나 나머지 전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III. 분당의 병자호란 관련 땅이름

1. 지점 관련성이 있는 땅이름

1) 험천(險川: 머내, 동막천)

이곳은 병자호란 당시 험천전투와 관련된 지명이다. 험천은 단천의 상류이자 그 지류에 해당하는 西出東流本로서 지금의 분당구 구미동에서 단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광교산, 바라산 등지에서 흘러내린 손곡천, 동막1~4천, 대장1~3천, 장투리천, 석운천 등 여려 물줄기가 이 하천의 지류가 되며, 낙생저수지를 만들고 동쪽으로 흘러내린다.

하천법상 공식명칭은 '동막천(東幕川)'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헌이나 현지 토박이 말에 의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험천 = 머내에 의하여 풀이하고자 한다.

한문글자에서의 '險'은 일반적으로 '험하다'는 뜻과 함께 '要害地의 땅'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이 글자가 뜻하는 대로 '험천'이라는 이름은 청나라 군사에게 '우리 군사들이 이 깨뜨려진 땅', 또는 '우리 군사가 상하게 된 땅'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글자의 字意的 해석이 아니드라도 그 어원을 풀이해 보면 험천 = 머내라는 이름이 병자호란의 참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름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隱'이 곧 '미흡 험'자로서 "미흔 일 구즌 일 널로 헛아 다 낫거 든"(고시조)에서 "험한 일 국은 일"로 풀이되듯이 '미흡다'는 '험하다'는 뜻의 중세어이기 때문이다.

곧 미흔내(隱川) → 면내 → 머내 = 遠川("멀 遠")이 되어 이 일대가 광주군 낙생면 원천동으로 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조선후기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현지의 구전조사 자료에 의하면 종전의 설화인 원천 = 머내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용인시 수지읍 하촌곡 주민들이 이곳 주막에 와서 술을 마시려면 멀리서 내를 건너와 야 했으므로 이 하천을 '마내'라 불렀다는 설이다.

또 다른 설은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 용인군과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서 광주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미내'라 불렀다는 설이다. 그러나 그 당시 광주군은 그 면적이 다른 고을보다 특히 광대하여 지금의 안산시 인근이나, 의왕시 일부까지도 광주군에 속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의 구전설화들은 조선 후기 이후 원천 = 머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로 보여지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역원조에는 "관교원: 주 남쪽 45리", "말을 천원(末乙川院): 주 남쪽 50리"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말을천'을 험천 = 머내로 보아야 한다.¹¹⁾ 그 이유는 관교원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한 점도 있거니와, 다음에 소개하는 『해행총제』 중의 동녕(東溟) 김세령(金世謹: 1593-1646)이 쓴 〈해사록(海槎錄)〉에도 비슷한 하천명칭이 언급되어 있어 그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세령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고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사간을 거쳐서 호조판서까지 지낸 인물이다. 〈해사록〉은 그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때가 병자호란 다음 해인 1637년(인조 15)으로서 충청도의 근왕병과 청나라 군사 사이에 험천 전투가 끝난 두 달쯤 후의 기록이다.

그때가 음력 3월 8일 ~ 9일경으로서 그때의 쁨상을 직접 보고 슬화한 내

11)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총진회, 고전국역총서 2), 25쪽

용은 다음과 같다.

8일(정비) 맑음. 평명에 떠났다. 용인에 닿으니 한강 이명열이 면마을(邊村)으로부터 보러왔다. 마희천(麻戲川:마호내, 머내를 말한다.)에 이르러서는 시체가 빨이고 피가 수십리에 잇달아서 말이 나아가지 못한다. 충청감사 鄭世規가 싸움에 전 죽었네. 활혹하여 슬픔을 달랠 수 있으랴. 선원(新院: 지금의 서초구 원자동 옛풀 부근)에 이르니 인마가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들판에 양재(良才)에 인가가 없다 하므로 마지못해 여기서 꼭였다.

9일(무신) 맑음. 한강을 건너니 강 연덕 일대에 어밀집들이 모조리 없어졌다. 즉산부터 한강까지 이백리 사이에는 인가의 연기가 없고, 배도는 자는 범씨 귀신의 행색을 이루었다. 도성에 들어가니 남대문. 종로 미하로 좌우 행렬이 모조리 제거되었다...¹²⁾

이 기록은 험천 = 머내를 '마희천'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의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마호내'를 '마희천'으로 표기한 것이 틀림없고,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발음천 =마희천도 同音異語에 의한 한자표기상의 단순한 차이로 보아야 한다.

특히 <래사록>의 기록은 분당지역 험천전투 결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강 부근과 도성안과 피폐된 나라사정까지 그 정황을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정을 아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 험천 = 머내 지역은 하천 양측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전에 이 마을들을 용인 쪽은 '용인머내'라 하였고, 광주군 쪽은 '광주머내'라 불리웠으며, 또 이 지역이 용인과 광주의 경계지역이 되는 곳이었으므로 이곳 개울가에 친하대장군(용인 쪽)과 지하이장군(광주군, 즉 분당 쪽)이 세워져 있어 이 일대를 '찰승벽이'라고 불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광주부지도>에는 '험천점막(險川店幕)'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일대가 대장간, 주막 등이 밭달한 길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규장각소장 <광주전도>에는 '險川驛'에 "별자금벽때진처(別子鎰伯敗陣

12) 「례행총계, 래사록」, 『고전국역총서』, 151쪽

處)"라고 표기되어 있어 금백(충청감사)의 폐천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지도에는 광주군 초월면에 大雙嶺과 小雙嶺이 표기된 이외에 대쌍령을 '要害處'라 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병자경상좌우병사전망처(丙子慶尙左右兵使戰望處)"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 지역이 쌍령전투지역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광교산 전투에 대하여는 '광교산'에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동막천을 그 당시 '험천=머내'로 불렀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종합정리해 보고자 한다.

동막천이 단천의 지류로서 조그만 하천에 불과하고, 또 지형상 '험한 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험천 → 머호내 → 머내로 부르게 된 것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 군사에게 '우리 군사가 깨뜨려진 험한 땅', 또는 '우리 군사가 상한 땅'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서울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은 단천의 상류로서 기우체를 지녔던 곳(神域)이므로 '검천(검내)' 또는 '험천'이라 하였다는 기록¹³⁾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곧 고대어의 표기에 있어서 '검'과 '험'이 서로 넘나들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 당시 험천전투가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의식적 측면에서 매우 강하게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험천 → 머호내 → 머내(원천)로 굳어졌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2) 경전파(鄭轉坡)

역시 병자호란 때 험천전투와 관련된 지명이다. 이곳은 지금 그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으로서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이름이다.

대개 지금 낙생저수지 부근의 땅이름으로 보고 있는데, 동막천 하류에 낙생저수지가 새로 설치되었고, 또 하천이 정비되어 당시의 위치를 짐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13) 「한국지명총람」,(서울편, 1988), 23쪽

‘정전파’라는 이름은 이미 험천전투 이전부터 현지에서 불리온 이름으로서, 우연의 일치로 뒷날 이곳에서 충청감사 정세규가 굴리 떨어짐으로써(혹은 죽으려고 뛰어 내렸다고도 함) 지명과 현실이 일치한다 하여 이를 「지참(地謙)」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⁴⁾

여기서 「지참」이란 말이들이 뒷날의 원과 일치하므로서 예언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군사 밤봉(봉주)이 서쪽을 경멸하다가 전사한 ‘낙봉파(落鳳坡)’를 그 대표적 지참지명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조 녹도만호 충장공 경운이 이충무공 蔣惠
에서 싸우다가 부산해전의 ‘물운대(沒雲臺)’에서 전사하였는데, ‘물(沒)’이 끼친다는 뜻이며, ‘운(雲·運)’이 다한 곳이므로 인명과 지명이 일치한다 하여 이를 「지참」으로 보고 있는 경우 등 몇몇 예가 땅이름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이곳 정전파는 경감사가 떨어지자 군사중에서 그를 급히 구하여 死地를 벗어나 간신히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며, “고개 아래 깊은 沼가 있는데 지금도 날이 굽으면 鬼火(도깨비불)가 보이고, 또 이곳에서 그 당시의 방기를 쫓기도 하였다”고 <남한지>는 기록하고 있다.

그 위치에 대하여 같은 기록에는 낙생면의 청풍산 남쪽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우며, 인근의 용안시 수자읍 고기리 부근에 ‘말구랫골(말이 굴러 떨어진 곳)’이라는 지명이 있기는 하나 그 위치에 차이가 있을뿐더러 ‘말구랫골’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 문현상 단천 상류의 이름중에 ‘찰창포(莊莊浦)’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정전파 = 찰창포의 관련설에 대하여 필자도 그 관련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개 토막이밀의 지명 한자어 표기는 그 비슷한 발음에 한자를 끌어다 붙이는 경우가 혼다하며, 앞에서 예를 든 머흐내 = 마희천 = 말을천 = 험천 = 원천의 예와 같이 지명전달자로부터 이를 듣고 한자로 표기하는 자 사이의 표기가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4) 《남한지》, (전체서), 347쪽

정전파의 정확한 위치와 '팔찰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충청모랭이(忠淸モランイ)

이 땅이름도 협천전투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 명칭을 필자에게 제보한 성원호씨¹⁵⁾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낙생저수지부근일 것”이라고 하였다.

‘충청모랭이’는 ‘충청도 모통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병자호란 당시 충청도 근왕병이 전을 쳤던 모통이를 뜻하는 것 같다. 곧 모통이>모룡이>모랭이로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방언에서 산꼭대기를 ‘물량’이라고도 하는데 물량>모량>모랭이로 변한 것이라면 낙생저수지 부근의 산마루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제보자를 만나 다시 한번 위치와 그 구전내용 등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이미 폐업을 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미친한 차로로 그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운 때문이다.

4) 회군이(回軍伊, 회문이)

이곳도 협천전투에서 비롯된 이름의 하나이다. 이곳 역시 성원호씨의 제보에 의하여 수집된 지명으로서 낙생저수지 부근이라는 사실뿐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이름이다.

‘회군’은 고려말의 ‘위화도 회군’처럼 군사를 둘러 되돌아 갔다는 뜻이다. 협천전투에서 패한 충청도 근왕병은 제반격을 다짐하면서 일단 수원지방으로 후퇴하였으나, 그것은 작전상의 후퇴가 아니라 잔여 병력의 철수이며, 폐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정전파’, ‘충청모랭이’, ‘회군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모두 동막천의 낙생저수지 부근으로 보고 있는

15) 성원호(제보자, 남, 54세), 용인시 수차읍 동현리 산내들부동산

첨에서는 같다.

2.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땅이름

1) 둘마(突馬)

지금의 분당지역은 그전 광주군 낙생면과 둘마면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그 당시의 '둘마면'은 지금의 분당신도시 시가지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지금의 분당구 이례동 삼천병마골 부근에서 갑자기 수많은 말들이 나타났으므로 '돌연히 말이 나타났다'는 뜻으로 '둘마'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곧 험천전투에서 충청감사의 근왕병이 청나라 군사에게 패하자 그때 주인을 맡은 兵馬들이 이례동의 산속에 있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마'라는 이름이 문현상 등장하는 시기도 대개 병자호란 이후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할 만한 문현상 근거는 없다.

다만 '둘(突)', '회(回)', '곡(曲)', '석(石;돈다)', '도(島;돈다)'. 등의 한자가 붙여진 이름들이 하천 푸른부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둘마' 역시 둘마을>둘말>둘마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낙생(樂生)

'둘마'와 마찬가지로 분당지역의 주축이 되는 그전 광주군 낙생면을 말한다.

'낙생'이라는 이름의 내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력도 있다. 16)

남한산성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복상한 충청감사의 군대가 관교(낙생) 남쪽의 험천전투에서 패하여 물러가자, 이 소식을 듣고, 임

16) 《성남시사》, (성남시, 1993), 1891쪽

급이 성을 나와 항복하였으므로 이곳은 '성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낙성(落城)'이라 불렀는데, 뒤에 '낙생'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낙생'과 '낙성'의 소리가 비슷하므로 병자호란과 연관지어 뒷날 부회한 것일 뿐이다. 그 까닭은 병자호란 보다 300여년 앞선 고려후기의 문현에 '낙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며, 다만 '낙생'에 대하여는 '생(生)' = '나'로 볼 수 있으므로, 낙랑 =나라로 불리우는 경우와 같이 고대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삼천병마골(三千兵馬-)

지금의 분당구 이매동 남쪽 산골짜기의 이름이다. 이곳 역시 병자호란 당시 험천전투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조사되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충청감사의 군대가 북상하다가 험천전투에서 패하자 그때 주인을 잃은 아군의 兵馬들이 이곳 산골짜기에서 나타났으므로 이곳을 '삼천병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천병마골'이라는 이름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리 골짜기에는 있는 '삼천병마골'의 임진왜란 관련 아군의 북병전설이나, '다자구야 둘자구야'설화의 또 다른 '삼천병마골' 전설도 전해지고 있어서, 전란후에 비슷한 명칭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둘마'와 '삼천병마골'이라는 이름은 '낙생'과 달리 구전되는 내용이 확실하고 또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기타 병자호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름

1) 진재산(陣在山)

분당구 금곡동 쇠골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높이 229.7m의 산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산은 옛날 전란때 군사들이 전을 쳤던 곳이라고만 전해지고 있는 얀동 관씨 종산이다.

또 이 산의 동남쪽 골짜기 (경부고속도로 서쪽)는 '진계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 산은 병자호란 당시 험천전투가 벌어진 동막천과는 거리가 1km내외 이므로 그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의 촌로들은 전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2) 진두골(陣頭谷)

분당구 금곡동의 중암마을 남쪽 골짜기이다. 조사된 자료에는 그전에 고박점화 대통령 사위의 땅이었다고 하는 바로 그 골짜기이다. 옛날 전을 칠던 '진머리'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느 전란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곳도 진계산의 북쪽 언근이 되므로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전너미 고개

분당구 서현동의 통로골과 은홍정이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통로골고개'라고도 부른다. 이곳 역시 어느 싸울때에 전을 칠던 곳의 그 너머가 되므로 "진네미고개"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싸움에 관하여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부근에 '창군터골'이 있고, 또 창군이 마신 약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서현동의 시범단지에 편입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구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맺는 말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생겨난 (구전 또는 문헌자료상)지명은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고 있으며, 그 참화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지역, 특히 남한산성 일대의 성남시, 광주군, 하남시, 용인시, 수원시, 그리고 서울의 강동, 송파 등지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지명들과 병자호란의 역사적 진행과정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가 될 것이다.

본고는 표제의 원고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기존자료와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작성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확대·점밀조사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분당지역 내에는 2개소의 이진봉(산)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으나 모두 '임진' > '이진'으로 변한 것이라는 조사자료에 따라 본고에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진'에 대하여도 '임진왜란관련설'의 기준 률을 벗어나 새롭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이 땅에 아르게 확인되어 있는 병자호란 관련 땅이름의 조사·연구와 조그만 시작으로서, 앞으로 황토사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楠珏卿

천화숙(경원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開化運動의 산실 河南省의 杞溪 楠氏와 楠珏卿
- III. 조선 YWCA 연합회의 여성운동과 楠珏卿
- IV.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楠珏卿
- V. 결론

I. 서론

한국여성의 근대적 의식은 철학·천주교·동학 등의 영향은 물론이고, 1886년 세워진 이화학당 같은 개신교의 선교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의교권이 박탈된 1905년 을사보호조약부터 1910년까지 창설된 200여 개의 사립여학교와 수십여개의 여성교육단체는,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차원에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족의식과 남녀 평등 의식을 전파시켰다. 특히 1907년의 국체보상운동 및 1919년 3·1운동 등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근대적 의식은 빠르게 성장하

었으며, 3·1 운동 직후 남녀평등에 기초한 여성해방의 논리가 크게 확산되게 된다.

바로 이렇게 3·1 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민족해방운동과 불전적 유행의 타파 및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의 철학인 고양이 요청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22년 조선 YWCA 연합회와 1927년 근우회가 창설되어 1920·30년대 여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1922년 창설되어 1938년 일본 YWCA에 강제로 예속될 때까지 존속한 조선 YWCA 연합회, 1927년 창설되어 1931년 자진하여 해산한 근우회에 대한 고찰은 1920·30년대 여성운동의 구체적 실상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YWCA 및 근우회 운동 등을 주관하였던 일제시대의 대표적 여성운동가 倉井禪은, 河南省(1989년 이전의 廣州郡)의 하산곡동과 상산곡동에 集姓村을 이루며 살고 있는 杞溪 倉氏의 후손이었다. 이에 유각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1920·30년대 廣州(하남시·성남·광주군)의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피해 보려 한다.

II. 開化運動의 蔭室 河南省의 杞溪 倉氏와 倉井禪

<표 1: 倉井禪의 家系>



첫째 杞溪 金氏 17世孫이며 충목공파의 파조인 金鴻에 대해 살펴보면, 金鴻은 물론 개화운동가는 아니지만 杞溪 金氏가 경기도 廣州(현재의 하남시)에 集姓村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흥은 1587년 明에 사신으로 가서 『大明會典』에 조선의 시조가 고려의 권신 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李氏의 世系를 바로 잡은 공으로 宗系辨説 1등 光國功臣, 鄭故立의 逆獄을 다스린 공으로 詔道 2등 平亂功臣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金鴻이 죽은 후 그의 무덤을 하남시 하산곡동 새농마을로 이장하고, 아들 大建이 비슬에서 물러나 아버지 무덤 밑의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1590년부터 기계유씨가 대대로 하남시에 거주하며 침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하남시의 金氏들은 金�鸿의 직계 후손이다.

두번째로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각경은 한말의 대표적인 개화운동가 金吉善의 조카이다. 『西遊見聞』으로 유명한 한말의 대표적 개화운동가 유길준은 하남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1866년 丙寅洋變가 발생하자 소 가족이 先塋이 있는 廣州郡 東部面 德豐里에 이사하여 1869년까지 4년여간 피난살이를 하며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다. 서울에 되돌아와 17세가 된 후 피난 시절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서 살고 있던 친척 어른 金萬柱에게 1년여간 글을 배웠는데, 유만주는 경학과 사서에 뛰어난 학자로 鳳樓 金翠煥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던 인물이다. 유만주는 광주에서 살다가 유선환 문하에서 함께 글을 배운 閔台鵠·閔奎鵠의 권유로 낙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길준은 유만주의 서당에 출입하다가 민태호의 아들 閔泳煥과 교유하게 된다. 한편 유길준의 아들로, 유각경과는 사촌인 동경대학 출신의 준재 유만겸과 유억겸이 있다. 사촌오빠 유만겸은 1939년 충청북도 도지사시절 창씨개명을 거부하다 면직되었고, 사촌동생 유억겸은 연희전문 교수와 해방후 연희대학교 교장을 거쳐 1946년 과도정부 문교부장에 취임하여 학제개편·교체변환 등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47년 유억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기념관이 광주군 동부국민학교에 건립된 바 있다.

세 번째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각경의 아버지는 金星善이다. 유성준은 광주에 피난 갔을 때 부근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운 바 있다. 형인

유길준이 사상적이며 정치적인 대 비례, 유성준은 독실하고 조직적이며 사무적이었다. 형의 배려로 일본으로 유학하였다가 갑신정변 직후 귀국하여 재정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갑오개혁 때 차관을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관파천후 일본에 망명하여 명지법률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1905년 『법학동론』을 저술하였다. 1903년 유길준의 쿠테타 음모사건으로 옥에 갇혔을 때 감옥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책을 빌려 읽었을 정도로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으며, 이승만과 감방 단짝이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 1904년 유태중에 교인이 되었고, 보성전문학교 교장도 2차례나 역임한 바 있다.

네 번째로 <표 1>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계 유에 김안의 개화운동가로는 番致衡·金承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학자 金民 金鍾午의 아버지인 유치형은 1895년 일본에 관비유학생으로 가서 동경 법학교를 졸업하였고, 헌정연구회·기호학회의 회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보성전문학교 학감으로 법학과 경제학을 강론하였다. 다음으로 유승점 역시 1895년 일본에 관비유학생으로 가서 專修學敎 理財科를 1900년 졸업하였으며, 당시부의 관리를 거쳤고, 유진준의 흥사단운동에 참여하고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활약하면서 韓末 경제학의 도입과 계몽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일제강점하의 여성운동가 金玗禪은 앞에서 언급된 유길준의 천동생인 유성준의 딸이며, 1892년 태어났다. 1910년 정신여고를 졸업한 후 장로교 여선교사의 주선으로 북경 協和女專서 유학하면서, YWCA의 봉사사업 정신과 기독 친선정신을 익히고 우리나라에도 YWCA를 창설할 것을 결심하였다. 1918년 결혼하였으며, 1922년 남편이 유학을 떠나자 YWCA 창설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첫 번째 밭기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았고 최초의 유금총무로 일하였다. 근우회의 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개화사상가의 후손 유각경이 1920·30년대의 여성운동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이는 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조선 YWCA 연합회의 여성운동과 女玆團

1. 의식개혁운동

YWCA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단체의 특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YWCA가 종교운동 못지 않게 여성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섰다. 특히 남촌여비라는 봉건적인 전통적 관습이 강하게 지배하던 당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YWCA의 여성운동에 대한 지향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자녀 출산과 함께 대가족제도 하에서 가사노동과 길쌈, 그리고 농사에서 여성들은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관습적인 무辨과 内外法이 전존하였고, 이혼이나 개가를 한 경우에는 평생 멋밋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거기에는 속침제도와 이른바 보쌈이라는 약탈혼은 여성들의 삶을 악암하는 굴레로 작용하였다.

기독교의 전래는 이와 같은 전통적·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다. 남녀평등에 의한 기독교의 사상은 여성들에게 구래의 관습을 깨뜨리고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일부일처의 가족제를 제시함으로써 조선 여성의 개화와 지위 향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 1886년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정신여학교(1895), 배화여학교(1898), 평양의 정의여학교(1899), 승의여학교(1903), 목포의 경명여학교(1903), 광주의 수피아여학교(1908) 등의 여성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여성의식의 개혁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신여성에 의해 애국부인회, 여자청년회, 여자수양회 등의 여성 단체들이 조직되어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여성의식의 개혁은 그 기반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여성의식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아름이 국민주권주의로 확립되어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여성문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에는

여성해방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이 시기 여성문제의 주된 관심은 남성과의 권리동등 및 여성의 자주독립 등으로 요약된다. 즉 여성의 진정한 지위회복을 위해서는 남성에 예속된 결혼생활을 타파하는 것이 제1차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고, 그러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유각경은 1926년 4월 『青年』이라는 잡지에서

우리의 입으로 여자해방이라는 수치의 애구를 떨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경제상 해방과 인격상 평등을 말하며 버렸던 권리들, 회복기 위하여 분투 노력합시다. 그러는 데에야 우리의 해방은 사실화할 터이을시다. 그 전에는 비록 논단에서는 해방을 굉장히 부드쳤었지만 가장 단발에 들어가는 때는 익는 것과 입는 것과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남자에게 간구하게 되며 목숨하게 되어 해방의 정신도 소멸되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활동하여 전진한 사회를 건설 창조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고로 교육에서부터 여성의 경제·자유를 얻을 것으로써 힘쓰고 또는 여성끼리 서로 도와 경제의 자유를 속히 얻도록 합시다. 그 자유만 얻으면 해방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해방이나 남녀평등을 아무리 외쳐도 여성이 경제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같은 구호도 결국 무위에 그치므로 경제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면제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남녀평등의 첨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성은 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도 충분하므로, 이런 것들이 모두 실천되었을 때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여성해방론과 여성의식 개혁의 요체를 잘 보여 준다.

한편 이 시기 기독교 여성운동가들은 결혼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결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과 권리 등을 외치하는 비루한 혼인법을 타파하고 순결하고 합리적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편이 죽은 후라도 창조를 지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제가 도 무방하고 나아가 경조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니 남녀가 동일하게 유희

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킴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남녀칠세부동식이나 내외범을 타파하여, 남녀가 함께 공부를 하고, 주인이 없을 때에는 여자도 주인 노릇을 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 禁酒 · 公娼廢止運動

금주·금연운동은 아편·축첩·매음·감기 등의 사회악에 대한 청화운동과 함께 3·1운동 전후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윤리운동인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이 운동은 YWCA가 창립된 직후부터 계시되었고, YWCA에서는 이를 여성해방의 제1차적 과제로서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YWCA 자체뿐만 아니라, 조선여자금주회와 조선여자기독교전체회 등과 같이 YWCA 유관 단체들과 연대를 이루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3년 조직된 조선여자금주회는 YWCA의 중심인물인 유팍경과 선교사 부인들이 주도하였다. 1928년 8월 충북 선천군 순회시에는 감동을 받은 밴장이 앞장서서 금주를 선언하였으며, 또 충남 공주에서는 금주 강연에 감동되어 그 지방에서 술먹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금주와 금연을 비롯하여 절제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던 조선여자기독교전체회에서도 역시 천조선연합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주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 출무 손미래는 지방순회에 앞장서 금주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금주운동에 동참하는 지방조직을 16개나 연합시킴으로써 동회의 활동을 크게 진작시켜 나갔다. 동회의 임원은 회장 유팍경, 부회장 김선, 출무 손미래, 서기 문인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임원진을 통해 볼 때 동회는 조선여자금주회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해도 될 만큼 임원이 충복되고 활동 또한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YWCA연합회 임원들이기도 했다.

한편 YWCA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공황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

을 표명하면서 공창폐지운동에 앞장섰다. YWCA의 공창폐지운동은 여론으로부터도 크게 호응을 받았다. 1925년 YWCA는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고 그 당시 가장 급선무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풀어 가고자 했다. 축첨, 조흔 문제 및 禁巫, 금주, 금연과 공창폐지운동을 여기로 통합시키고 여자노동 문제, 남녀교제 문제 그 밖의 사회 진상의 연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각경은 금주·공창폐지운동에 대해 1933년 6월 28일 『基督新報』에서 철계운동의 관점에 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철체운동의 여론은 비교적 높아진 줄 알겠습니다. 조선기독교여자철체회가 있어서 전무 총무를 두고 전 조선을 빠짐없이 순회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키며 도움 만한 이들에게는 이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결제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철체생활을 팍가하기를 권하여 왔습니다. 철체운동을 하는 개인, 철체운동을 하는 기관은 먼저 철체 그것에 있어서 백방으로 산 모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옵니다. 말로는 글로는 철체를 주장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철체를 못하거나 또는 마니하는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술집이 없어지며 양주회사가 과산이 되며 카페가 전멸이 되며 꿈창이 폐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유각경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와 앱윗청년회, 민리청년회 등 기독교 청년단체들이 전개한 철체운동에 대해 일단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철체운동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박연한 선동만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운동의 중심체는 바로 YWCA와 같은 전국적 종교사회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문맹퇴치운동

YWCA연합회는 총회와 하령회 개최시 사회복음의 지도방침으로서 문맹퇴치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여성해방을 위한 교육계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YWCA에서는 아학을 비롯하여 각종 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특히 야학은 YWCA가 행한 여성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야학교육은 경식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주로 각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경성YWCA는 태화여자관에서 영어강습을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초등·고등·특별의 세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1925년 2월에 태화여자관 안에 아학을 설치하였는데, 입학금은 무료였지만 약간의 경비를 보충키 위하여 월사금을 20전씩 받고 졸업 기한은 3개월로 하였다. 교육목표는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한문도 가르쳤다. 야학의 학생들은 주로 고무행상, 제사공장, 직조공장, 연초공장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는 부산부인들이고, 행랑부인도 입학했다. 그 중에는 '하인'으로 불리는 여성들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학생이 40여 명이었고 선생은 이화학당 교사, 대화여자관 교사 13명이 의무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야학은 개학 이래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여 불과 두 달 만에 70명을 넘어서서 보통과를 증설하고 4년제로 바꾸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언문반 외에도 편물반과 영어반을 두었다. 영어반은 3년제로 중등 이상의 정도로 가르쳤으며 생도는 30여 명이었다. 편물반은 1주일에 한 번 강습하였는데 가정부녀의 수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도가 십여 명에 이르렀다. 교사 중 손정규는 재봉교파서를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실생활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야학은 부녀에게 기독교 정신 아래 부덕을 향상하면서 부인의 교육을 보급시켜 문화향상을 돋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한편 경기도의 균우회 지회는 서울을 포함하여 개성과 인천 그리고 경동에 설치되었으므로, 广州에는 신간회와는 달리 지회가 없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경기도의 경우 1920년대에 약 40여 개에 가까운 부녀 야학이 설립되었으며, 廣州에도 1곳에 설립되었다. 이들 야학은 교회·기독교계 청년회·감리교의 청년운동단체인 엘랏청년회 등에 의해 운영되었다.

4. 농촌계몽운동

YWCA에서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20년대 후반으로, 일제의 수탈농정으로 인해 심각해진 농촌사회의 고폐화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YMCA와 연대하여 농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YWCA의 농촌문제에의 접근은 창립 초기의 도시중심 엘리트주의 성격이 크게 전환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적 YWCA의 사업 주체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민의 8할이 사는 농촌 속에 YWCA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YMCA와 함께 추진한 YWCA의 농촌사업의 내용은 주로 문맹퇴치운동·협동조합운동·농사개량·농촌지도자 양성 등 농촌문제 전반에 두루 걸쳤다. YWCA는 이 가운데 문맹퇴치운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농사강습 등을 주로 추진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전개된 협동조합 내지 농촌계몽에 국한된 협동조합사의 운동이나 브나프드 운동과는 구별되는 바가 있다. 또한 북미 출신 농업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농사개량운동을 전개하고 협동조합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업선용조합을 중심으로 하였다는데 있어서, 농촌계발·농민야학과 공동경작·소비조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도교 계열의 조선농민사 운동과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독교 계열의 장로회 종회 농촌부, 기독교농촌연구회가 추진한 기독교사회주의의 성격을 띤 농촌운동과도 그 지향점에서 상이한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YWCA 농촌운동의 운동노선은 1920년대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노선전환, 즉 실력양성운동으로의 방향전환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YWCA의 농촌운동에서는 농업문제가 일제의 식민통치구조에서 말비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고, 일제의 지배체계를 부정하

는 차원은 아니었다.

그밖에도 YWCA연합회의 여성운동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사관들 강습회, 마자회, 기근동정토론회, 흥연대회, 음악회, 순회의료, 위생강연회, 요리실습, 종교극회 등이 있었다. 즉 실생활 교육에서부터 기독교적 정서 함양에 의한 의식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YWCA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활동은 여성의 의식과 지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奉玗卿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사상의 국내 수용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전영 간에는 극심한 대립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사회주의 전영의 입장은 매우 비판적이어서 적대적 태도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현실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전영 모두에게 민족의 공통된 과제로서 혜택을 추구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민족세력의 단결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을 전후하여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협동 내지는 연대 모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은 남성중심의 조직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인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간의 연대가 1926년 초부터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6·10만세운동을 거쳐 신간회 창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민족세력 간에 협동전선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계에서도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던 YWCA와 사회주의 세력 간에 연대가 모색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전영과 민족주의 전영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1926년, 우선 민족주의·사회주의 전영을 불문하고 신식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벌이던 전문직업여성들의 모임인 망월구락부의 창립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망월구락부를 배경으로 1926년 말부터 1927년 초에 걸쳐 단일 단체의 결성을 위한 기반 조성작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은 당시 민족협동전선체

로서 찰립된 신간회에 영향받은 바 커다. YWCA의 중심인물인 김활란과 유각경이 이미 신간회 창립에 참가하고 있었던 점, YMCA 회장 이상재가 신간회 초대 회장을 맡은 것이 YWCA의 근우회 참가를 촉진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4월 16일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 주체로 조선일보사에서 60여 명의 여자유학생 출신자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여성지식인들을 규합하여 범여성적인 전국적 여성기관을 조직하는 데 합의하고 YWCA 회장인 유각경 외 12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4월 26일 서울 중앙유치원에서 40명의 발기인단이 발기총회를 열었다. 이때 유각경은 “주의와 과장을 벗어나 한 것만 위에서 조선여성을 위하여 다같이 손을 잡고 분투하자”는 요지의 개회사를 하였다. 유각경이 임시의장으로 추천되고, 차사백·최은희가 서기, 현덕신·황신덕이 사찬이 되었다. 창립총회까지의 모든 준비를 담당한 전형위원으로 蕭英俊·이현경·최은희·황신덕·이탁효 5명이 선출되었다. 발기인총회 준비위원으로는 유각경·최은희 등 13명이 선정되었다.

발기인의 구성을 보면 사회 각 방면의 여성지도자들이 출마되어 있는 데, 직업별로 보면 여의사(현덕신·진정희·유명준·정자영·이탁효), 기자(박경희·최은희·이현경·황신덕), 교원(김미리사·김선·김영순·김활란·방신영·황예사덕·김순영·손정규·임준분·전지자), 종교인(김복·이효덕·차사백·최활란) 등으로 거의 모두 전문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자 전문직업여성들이었다. 계파별로 보면 민족주의 계파에서는 조선여자교육협회를 대표하는 김미리사, 조선여자청년회의 신암배트, 조선간호부협회의 이은혜, 만도여자청년회장 신경숙 등이 참여했고, YWCA 측에서는 김선·김순복·김활란·유각경·이효덕·차사백·현덕신·홍에스터·김영순·방신영 등이 참여하여 YWCA 계열이 대거 참가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임시의장 유각경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모임에서는 최은희의 경과보고가 있은 뒤 회명을 ‘槿會’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조선여성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가정에 있어서까지 세상과는 벽을 빌고 살아 왔으니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자”는 내용의

연설이 있었으며, 15명의 찰립준비위원회를 선출한 뒤 폐회하였다. 발기총회가 끝나자 이어서 제1회 찰립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찰립대회는 5월 중순경으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담하였다.

장령·규약 초안 및 취지서 작성 : 김활관 황신덕 이현경

총무부 : 최은희 이덕요 박경식 차사백 김순영

재무부 : 유헨준 방산영 김선

회원모집 : 유각경 황신덕 이현경 김활관 현덕신 박원희 김순복

추가 : 정칠성 조원숙 김영순

찰립준비위원들은 치밀하게 준비작업을 추진해 갔다.

그리하여 5월 27일, YWCA회관에서 150여 명의 회원과 1천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유각경의 사회로 근우회 찰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정된 임시집행부에서 김활관이 의장을, 유각경이 부의장을 맡음으로써 YWCA 계열이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찰립총회에서는 취지서, 2대 강령, 규약,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7개의 의안도의와 초대 중앙집행위원의 선출이 이루어졌다. 취지서는 “과거 조선부인 운동이 분산되었던 현상을 타파하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정신에 임각하여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여기서 통일된 목표는 여성해방을 의미했다. 아울러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는 강령으로 다음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1. 조선여자의 꿈고한 단결을 도모함
2. 조선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

행동강령은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2) 일체 봉건적 민습과 미신파타 (3) 조혼 폐지와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와 공황 폐지 (5)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6) 부인노동의 일금차별 철폐와 산전산후 일금 지원 (7)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 및 야습 폐지 등으로, 그

동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이 이론적·경험적으로 구축해 온 여성문제가 충돌되되었다.

근우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원위원 7명을 뽑고, 이들에 의해 다시 21명의 중앙집행위원이 선출되었다. 전원위원은 사회주의 계열이 5명(박원희·정진성·황선희·이덕요·이현경), YWCA 측이 2명(김활란·유각경)으로 사회주의계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은 사회주의 계열이 9명(박선우·박원희·이덕요·이현경·정종명·정진성·조원숙·황선희), YWCA 측이 8명(김선·김영순·김활란·방신영·유각경·차사백·현덕신·홍예서미), 중립 4명(김동준·박경식·유영준·최은희)으로 양 진영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근우회 창립식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성상 민족·사회의 양 진영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경우 YWCA 측이 주류를 점하였기 때문에,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사실상 사회주의 계열과 YWCA 측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YWCA는 1920년대 중반 국내외 민족세력에서 일고 있던 민족협동전선의 기류 위에서 1927년 근우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우회는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조직으로 YWCA가 참가하고 사회주의 계열로는 주로 여성동우회 인사들이 참가하여 협동전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근우회의 성립은 기독신앙의 사회복음을 목표로 한 YWCA가 정치·사회·사상사적으로 극단에 서 있던 사회주의 계열과 협동전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일단 커다란 의미를 지녔다.

비록 짧은 기간으로 그쳤지만 근우회의 조직과 활동이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종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운동세력이 다시 결집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3·1운동 이후 한층 성숙해진 사회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사회의 불평등·부조리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참여와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근우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근우회에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여성해방을 공감하는 가운데, 결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근우회에서 여성 문제가 특히 부각된 것은, 근우회의 여성들이 이념을 떠나 전통적 관습에

억눌린 여성의 해방에 일차적 목표로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신간회가 차치론에 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양상을 떠었던 데 비해, 근우회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사정에 따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우회가 여성문제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항일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행동운동·광주학생운동·여공의 파업'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일본인의 멸시와 학대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근우회를 통한 YWCA와 사회주의 계열의 이같은 협동전선은, 근우회안에서 차지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강세와 YWCA측의 약세화로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즉 1928년경부터 각 지회를 배경으로 성장한 사회주의 성향의 대의원들이 근우회 2대 중앙집행위원회 대거 피선되었던 반면, YWCA연합회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은 이 중앙집행위원회 선거에서 대거 탈락하였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김활란·최한란·황에서태·김양순 등 기존 YWCA연합회 측 인사들이 근우회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양 계열간의 협동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후 비록 YWCA연합회의 일부 인사를, 예컨대 유각경·김선·차사백 등이 여전히 근우회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지만 종교이념·정치사상의 차이를 극복할 정도의 결합력을 과시하지는 못하였다.

V. 결론

이상에서 1920·30년대의 여성운동에 대해 YWCA연합회와 근우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두 단체의 창설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齊廷卿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각경은 한말의 대표적 개화운동의 산실이었던 河南市의 紀漢 奉氏의 후손, 특히 유길준의 조카로써 선조들의 개화 및 근대화운동을 계승하여 1920년과 1930년대의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선 유각경은 1920·30년대의 YWCA연합회의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의식개혁, 禁酒·公娼제

도의 폐지,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펼침으로써 봉건적 유풍의 타파 및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유각경은 좌우여성협동단체인 근우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해방의식의 고취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동맹휴학·광주학생운동·여공의 파업 대한 조사 및 지원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일본인의 학대와 멸시 등을 조사함으로써 항일민족운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하지만 유각경의先塋이 있는 광주지방(현재는 하남시)에 YWCA 지회나 근우회의 지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제치하의廣州(성남시·하남시·광주군)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의 실체가 보다 사실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다만 3·1운동 후에廣州에 부녀야학이 설립되어 문맹퇴치 등을 목적으로 한 여성교육이 실시된 것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YWCA 연합회의 여성운동은 농촌계몽운동에서 잘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노선전환 즉 실력양성운동으로의 방향전환과 같은 맥락이고, 농촌문제가 일제의 식민통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일제의 자폐 그 자체를 부정하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연합한 근우회는 여성해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인적인 결합을 뛰어 넘어 종교이념과 사회·정치사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진 해산한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1. 자료

- 『基督中報』, 『青年』, 『東亞日報』, 『朝鮮日報』, 『朝鮮新聞』, 『每日新報』, 『時代日報』, 『京城日報』
 『기독교신문』, 『基督敎報』, 『舊友』
 대한YMCA연맹, 『한국YMCA운동사(1895~1985)』, 1986.
 대한YWCA역사편찬위원회, 『YWCA40년사』, 1962.
 서울YWCA, 『서울YWCA五十年史』, 1975.
 유태경, 『YWCA와 나』, 『YWCA월간』 7-7, 1969.
 한국YWCA연합회50년사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1976.

2. 연구서·연구논문

- 姜東鉉,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강만길, 『독립운동 과정의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
 사, 1982.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지
 성사, 1987.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균우회』,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 1986.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 정음사, 1975.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朴健度, 『1920年代 韓國民族運動의 特徵』, 『韓國民族運動과 新幹會』(신간회
 창립6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문), 조선일보사, 1987.
 안신영, 『태화기독교사회관50년사』, 태화기독교사회관, 1964.
 유통준, 『金吉善傳』, 일조각, 1987.
 이근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이덕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1921~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94.
- 李禹烈, 「한국근대사와 YMCA」, 「韓國基督教와 歷史意識」, 지식산업사, 1981.
- 李禹烈,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1986.
-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 이재천, 「하남의 역사」, 퍼플뱅크, 1995.
- 장규식, 「1920~19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1899~1945)」, 경음사, 1978.
- 민족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2, 숙명여대출판부, 1963.
- 정효섭, 「일제 치하의 브나로드운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논문집」 14, 1974.
- 정효섭, 「韓國女性運動史」, 일조각, 1971(??1972), 1984).
- 趙東杰,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야학」, 「한국사상」 16, 1978.
- 천화숙, 「1920년대 독립운동의 변천과 특성」, 「경원대학논문집」, 1987.
- 천화숙,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수용과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경원대학논문집」, 1991.
- 천화숙, 「日帝下 朝鮮女子基督教青年會聯合會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上·中·下, 탐구당, 1972.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여성운동과 근우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기독교문사, 1994.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한준섭(성남기능대학 강사)

목 차

- I. 서설(序說)
- II. 인물 연구의 과제
- III. 시대별 인물 조사
 1. 고려시대의 성남시 인물 찾기
 2. 조선 전기의 성남시 인물 찾기
 3. 조선 후기의 성남시 인물 찾기
 4. 근대 이후의 성남시 인물 찾기
- IV. 소 결언(小結言)

I. 서설(序說)

설남시에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성남시계 출발을
분기점으로 하여 1973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 시(市)로서 공포
실시된 그 전날의 역사는 농경생활권이어서 광주군내 4개면 관할이었던 이

큰바, 중부면, 낙생면, 대왕면, 둘마면 구 지역을 살펴야 하며, 광주대단지의 신생 도시화 과정과 거쳐 정식 신도시 공포가 실시된 이후는 성남시 약 3개구 관할인 이른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내의 44개 동사무소 도시 생활권을 조사, 정리해야 한다.

경기도 광주군의 4개면 일원이었던 현재의 성남시 역사 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급작스러운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각종 문화유산의 자료였던 자취는 대부분 그 증거가 경화하게 보존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광주군 중부면에서 '성남출장소'가 현재의 태평1동에 개소된 1946년도 해방 혼돈 시대에 원거주민의 증언 일부와 약간의 보존문서로서 역사 자료를 보완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힘겨웠던 도시발전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1978년에 1차, 1982년 2차, 1993년 3차례 절친 「성남시지(사)」 발간작업으로 민하여 완전본의 성남 과거는 못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는 정리한 셈이었다.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성남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고 성남의 지역사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 작업을 미천한 중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은 향토문화를 영구 보존 시켜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소 외에도 성남지 자체의 시사(市史)발간과 그 외 두세 사람들의 단행본 발행도 더없이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역사 속의 인물연구는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고 믿는다. 현재의 시절에서 과거를 연역해 내는 일련의 기록과 각종 기념비, 자료현장과 구비전승의 무수한 흔적들이 모아져 '역사복원' 초석을 제 자리에 마련한다는 작업은 우리 나라 총체성의 역사 한 귀퉁이를 뛰어 맞추는 현장발굴 조사와 다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향토인물의 기초 연구」라는 대전제 밑에 아직도 시민사회 내지 향토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있는 미조사 발굴된 성남지역과 연관이 깊은 인물을 찾아보려고 함이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성남시사 특히, 결원전문대학 장삼현 교수의 「성남의 지명과 인물」, 「성남의 뿌리」 두 권 자료집이 근간이 되었으나

필적 할만한 업적이 없는 이를 위인(偉人)이라 하기 곤란하여 이 중 상당부분 제외시켰다. 다만 개인 문집이나 공동 편저서를 소유한 인물, 지금까지도 성남시 구역내에 표소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인물, 성남사내 세가성씨의 인물 중에 손꼽히는 인물 몇 사람을 기초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박상 인물을 조사하여 가장 객관성을 부여하기란 생각한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선정 기준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성남과 연관이 되면서 개인 저서(문집)가 있는 이, 현 성남시 지역 내에 유택이 보존 + 관리되고 있는 이, 그리고 성남시 세가성씨 안의 인물로 꼽히는 이로 제한하였다. 다만, 인물의 종체론까지 검증하는 연구는 어렵지 못하고 방대한 분량이어서 기초조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개개의 인물판단이라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므로써 도덕적 인 생활 모습, 부드러웠던 인간관계, 민족적 입장에서의 이념적인 관점 등 여러 가지 시점을 고루 망라한 검증은 또 다른 사업과 연구에서 하나하나 분석되고 조사되어져야 할 줄로 생각한다.

II. 인물 연구의 과제

이 연구에서 벗어는 극히 제한된 일면이 될 수밖에 없다. 성남지역의 옛 선사(先史) 내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속 인물도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고려시대 몇 사람을 필두로 하여 조선 전·후기 역사속의 성남인물과 근현대사 성남인물로 좁혀 조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역사의 길을 걷기에 주저치 않았던 사람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고, 갖가지 자기 명분을 내세운 사람에게는 치면제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남시 지원에 의하여 거둔 향토사 연구작업은 다소 만족치 못하다고 하겠으나 성남의 역사문화 바로 찾기 사업은 자랑할 만하다. 인접되어 한 줄기의 팔주문화권내 남한산성에 대한 학술화의 지원과 성남시 향토 유적 제1·2호인 강정일당·둔촌 이집 선생 인물연구 발표회, 백현 이경석 선생과 금릉 남공천 선생 그리고 충산 조선 선생 인물연구 발표회 지원은 타 지역을 훨씬 뛰어 넘은 향토사 발굴조사의 폐거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봉수티 조사연구 발표회와 성남시 관내 초중고교생에 대한 내고장 바

로 알리기 강연회와 현장답사 안내사업 지원, 성남문화원(부설)문화학교의 운영지원사업 등은 너무나 뜻있는 향토문화의 보존시책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일련의 성남시 향토문화 유산을 찾는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날한 산성과 관련한 삼학사(三學士), 향토유적 1·2호 그 주인공들의 효덕행, 백현, 금릉 두 인물의 충신 이야기들이 성남 시에서의 되살아난 역사인식이요 산 향토사의 교훈인 셈이다. 하여, 이같은 문화지원사업은 성남시 정책보다 미래를 향한 훌륭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아직은 부족함이 더 많은 성남시의 현실이다.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조사와 연구작업도 미천할뿐더러 연구되고 찾아진 성남문화유산 조차 성품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전시물 자료 조사와 수집을 비롯하여 자료보존의 전시 공간 확보 방안, 최신 장비에 의한 시설 유지 및 관리 대책을 하루 이틀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성남시 인물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으며 연구발표와 홍보에도 최일선에 나서본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연구한다하더라도 그 인물에 대한 전체 시민홍보대책이 미온적이라면 헛수고일 수가 있다. 후손들의 우선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해당 인물과 유적지에 대한 연계사업 홍보와 관리체계도 미래를 기肮한 점도가 절실한 일이다. 현재의 향토유적 제1호에 대한 미개발, 미완성 사업실태라든가 이경석, 남공현, 이수, 조견, 한계희 등 인물들에 있어 경기도 문화재 지정 현황에 관한 관리는 대단히 유감스러울 따름인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의 조사와 검증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의 연구발표회 개최, 향토유적의 지정, 시민들에게 홍보, 유적지 관리 보존 등에 있어 단계적인 문화유산 대책이 앞으로의 과제로 살아야 한다. 다만, 성남시는 신 도시화의 급조된 곳으로의 이렇다 할 역사가 없다느니, 남한산성처럼 우리 지역을 내세울 자료가 빈약하다는 향토사 쾌적의 이야기는 사라져야 한다.

III. 시대별 인물 조사

1. 고려시대의 성남시 인물 찾기

성남지역의 인물을 시대별로 정리한 문적은 아직 없다. 다만, 성남에 묘소가 있거나 충효나 관직경력이 있는 인물을 55개 성씨 총 720명에 대한 성씨별로 조사한 저서는 장삼현의 「성남의 지명과 인물」(1997년) 하나 뿐이다. 그의 성씨별 인물소개에서,

성남과 관련이 있는 가장 오래된 인물은 은조왕과 이색의 부친 이각, 강천령, 김약사, 방순, 조건, 김자수, 남경문, 목군경, 이준비, 이암, 이집 등이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김약사(1335~1406), 이암(1297~1364), 이준비(1233~1287), 이집(1327~1387), 조건(1351~1425)외에는 그들의 생몰 연대조차 불분명하게 인물조사 첫 출발부터가 난관이다. 이외에도 이강(1333~1368), 이지직(1354~1419), 이자강(1363~1427), 남경문(1370?~?), 유계문(1383~1445), 이원(1368~1429), 남재(1351~1419), 이백유(1352~1399), 안종약(1355~1424) 같은 인물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세한 행적을 찾지 못하므로써 결국, 고려시대(918~1392)의 성남시 인물로 살펴만한 자료는 고작, 10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 표1. 고려시대 속에서의 인물

이 집(1327~1387) 조 건(1351~1425)

이지직(1354~1419) 이 원(1368~1429)

남경문(1370~?) 김자수(?)~1392)

[*]표1에서 이집, 조건 두 사람은 이미 향토인물연구 학술회의(토론회)행사를 가졌다. 그러므로 나머지 4명의 인물자료만을 소개한다.

<자료1> 이지직 (李之直 1354~1419)

고려말 문신, 청백리, 첫이름 途(도), 자 伯平(백평), 호 灰川(단천), 본관 광

주, 26세때 문과 야원급제하여 내한림교리-관찰사-보문각 직제학 체임 중에 鄭悌(소도)의 변관(1400년)이 일어나 끝까지 바른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을 말하므로써 죽음 직전 태종(당시 방원)과 주위사람들 변론에 의해 극행만 변한 채 강주망 단천(현 성남시)면의 杉谷(촌사)에 은밀히 묻혔다.

세종 즉위초 형조우참의로 임명하여 불렀으나 부임조차 못하고 서거하였으므로 훗날 청백리로 선정되어 영의정에 추증, 묘소 : 하대원동 산 3-1, 저서 : 『단천선생유고』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2> 이원 (李原 1368~1429)

고려말 조선초 문신, 자는 次山(차산), 호는 容軒(용현), 시호 真憲(양현), 본관 고성, 17세때 문과 급제하여 사부서승-공조·예조좌랑·병조정랑 역임후 조선조에 좌부승지·좌명공신·현성군에 봉해짐. 대사헌-관찰사-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평야부윤·증군총제·참의의정부사·대사헌·관한성부사·추증의대좌명공신으로 예조판서·이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의정부참찬·한성사·우의정·좌의정에 올랐으나 사헌부 판례으로 예산방에 유배된 후 病死(병사)함.

저서 : 『용현집』, 『월성연방집』, 묘소 도촌동에서 친장되었음.

<자료3> 남경문 (南京文 ?~?)

생몰연대가 불확실하므로 忠景公(충경공=南在) 후손들의 袍諧(파보)에 기록만 옮긴다. 26세때 요절하였으므로 爲正大夫行(봉정대부행) 명조의랑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의령부원군 남재(南在), 아들 3형제중 3(충간공~묘소가 충북지방문화재), 檑(의제학~묘소 김포), 輦(의산위~묘소가 경남지방문화재) 이후 자손중에 명유, 충신, 재상이 많다. 본관 의령, 묘소 대평동 산 3-1.

<자료4> 김자수 (金子粹(自粹) ?~1392)

고려말 문신, 자는 續中(순중), 호는 桑村(상촌), 본관은 경주이다. 문과 장원급제(1374년 공민왕 23년)하여 덕령부주부-황명 거역하여 돌산으로 유배

- 천교부령-판사재시사-대사성-제자좌보덕-판전교시사-과상시-형조관서 재임 중 고려가 멸망하자 안동방에서 은거, 조선 개국 후 태종 때 형조관서에 임명되었으나 거절 후 자질하므로써 節義(절의)충신의 칭송받음. 묘소 불당동.

고려시대에서의 성남인들 6명도 이원의 묘소는 이미 도시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근의 광주군 톡리로 이장된 실정이다.

2. 조선 전기의 성남시 인물 찾기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찾아진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30% 이상은 개인별 生沒(생몰)연대 조차 명확치 않고 특히, 성남시 이 고장의 신도시화 바람에 의한 광주대단지 개발, 분당신도시 개발에 의한 전통보존의 양상이 급작스럽게 무너지므로 하여 대부분 묘소가 옮기게 되어 현존하는 몇몇 분묘만이 남아있는 뒷으로 인해 실제 검토대상 인물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서 오래 살아왔던 世居姓氏(세거성씨)조차 대부분 생활터전을 이리저리 옮기므로 하여 문헌 살펴보기와 면담조사 조차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하여 물 때 朝鮮前期(조선전기, 1392~1592)에 해당하는 성남시 인물찾기는 물과 몇 명이다. 이 가운데 확실한 근거로 연구의 대상은 더욱 한정되어 있다.

[*] 표2. 조선 전기시대 속에서의 인물

이예장(1406~1456)	권 반(1419~1472)
한계희(1423~1482)	이극감(1427~1465)
이극균(1437~1504)	이극중(1431~1494)
이극돈(1435~1503)	이 육(1438~1498)
한사문(1446~1567)	이 세경(1461~1529)
민재민(1493~1549)	정대년(1503~1578)
이 중(1525~1600)	정용희(1531~1589)
권 청(1538~1598)	윤막현(1538~1594)
송언선(1542~1612)	한효순(1543~1621)
한명숙(1567~1652)	이 수(1569~1645)
권득기(1570~1622)	이 살안(1575~1627)
남이홍(1576~1627)	이 경현(1585~1651)

<자료5> 이예장 (李禮長 1406~1456)

조선초 문신으로 세조때의 공신, 자는 子文(자문), 시호는 平簡(평간), 본관은 전의이다. 26세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거열-舍人(사인)에 있을 때 세조의 정란공신으로 통정대부 병조참의가 되고 좌익공신에 책록-별세 후 정현대부 예조판서 수문전대제학 金城君(금성군)과 시호 받음.

<자료6> 권 반 (權 榮 1419~1472)

조선시대 문신이며 자는 子龍(자룡), 시호는 安庭(안양), 본관은 안동, 을보로 현릉직장-상서승-계유정판에 공을 세워 수충경절 좌익공신 2등-전농시 소율-참치증추원사-세조의 허락으로 담상관에 오르고, 식년문과 병과로 급제-가선대부(예문관제학)-花山君(화산군)에 봉해지고-한성무윤-관찰사 겸 개성부유수-사직 후 청계산에 은퇴하여 <무진정>짓고 금토동에서 살았다. 삼남시 만동권씨 첫 장학인물로 사당은 을성원. 글씨를 잘 썼으며 표소 이장.

<자료7> 한계희 (韓繼禧 1423~1482)

조선시대 문인, 자는 子順(자순), 시호는 文靖(문정), 본관은 청주이며 24세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김현전 경자-수찬-세조로부터 학덕을 인정받아 교리 겸 문학-세자(덕종)에게 강학을 가르치고 좌필선, 집의-예문관 직제학-세자 우보덕-좌보덕, 치병조사, 병조참의-우승지, 좌승지, 꿈조참판-이조참판으로 세자 시강관 우부반객 겸임-42세때 이조판서-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고 西平君(서평군)에 봉해졌다-좌리공신 책록-좌한성.

기내훈구파에 속하는 유학자로서 세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자서 :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 『외방유취』 (30집) 일본 주관, 묘소 유통

<자료8> 이국감 (李國감 1427~1465)

조선시대 문신, 자는 德與(덕여), 시호는 文景(문경), 본관은 광주. 17세때 식년문과 급제하여 김현전 보직되고 이어서 20세때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부수찬-강서원 우찬독-겸연사경-겸인지 천거에 의해 사가독서하였다. 뒤이

이 의정부감상-좌익공신 3등으로 책록되어 廣城君(광성군)에 봉해짐-이조
참의 겸 세자 보도-동부승지-좌승지, 묘소 야탑동
저서 : 『국조보감』 수찬, 『치평요람』, 『의방유취』 수교 간행, 『北征錄
(북정록)』 환전.

<자료9> 이극충 (李克增 1431~1494)

조선시대 문신이며 자는 景撝(경위), 시호는 慎長(공장), 본관은 광주이다.
20세때 생원에 합격되고 음보로 종묘녹사-25세때 삭년문과 급제되어 군기
사직장-이조절량-성균관 직장 겸 의정부감상-술人(사인)-익대공신 2등에
책록되어 廣川君(광천군)에 책봉되었다. 도승지-이조판서-좌리공신-호조판
서-전라도관찰사-우참찬 때 경조사가 되어 명나라 다녀옴-동지성균관사-한
성부관윤. 저서 : 『대전속록』 편저, 묘소 야탑동

<자료10> 이극돈 (李克墩 1435~1503)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士高(사고), 호는 四峰(사봉), 본관은 광주이다. 22
세때 친시문과 급제하여 전농시주부-성균관 직강, 응교-33세때 문과중시에
율과로 급제되어 예조참의-한성부우윤-대사현-형조참판-좌리공신 4등에 책
록되며 廣原君(광원군)에 봉해짐-성결사로 명나라 다녀옴-예조참판때 주청
사로 제작 명나라 다녀옴-한성부판윤-이조판서-병조·호조판서-관찰사-좌
찬성-훈구파의 1인자로서 무오사화 일으킴-파직 당했다가 다시 광원군에
봉해짐.

저서 : 『신편 동국통감』 편찬 서문지음, 時務(시무) 12조 갖고 향학훈도교
수안 선정하였다.

묘소 하대원동

<자료11> 이극균 (李克均 1437~1504)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邦衡(방형), 본관은 광주. 19세때 삭년문과에 급제
하여 선관판-무술에도 뛰어나 회령도사-지평, 도체찰사의 종사관-동지증추
부사-명나라 사은부사로 다녀옴-이조판서, 서북면 도원수가 되어 야인 토

별에 공을 세우고 관중추부사-경상우도 地圖(지도)를 만들어 바침-파찬성-우의정 좌의정때 갑자사화로 인등에 귀양가서 사사되었으나 뒤에 신원됨. 廣南君(광남군)에 책봉, 묘소 애답동

<자료12> 이육 (李陸 1438~1498)

조선시대 문신, 자는 放翁(방옹), 호는 青坡(청파), 시호는 文光(문광), 본관은 고성이다. 14세때 사마시에 합격한 뒤 지리산에 들어가 3년동안 학문한 뒤 26세때 혼암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직강-되어이 발영시에 2등, 문과중시에 을과로 재차 급제하여 문학, 응교-장령-대관-판결사-대사성-관찰사-호조, 예조참의, 형조참의-관찰사 재임중 사임-한성부윤-강원도관찰사-경조사로 명나라 다녀와서 형조참판-고무청시청승습무사로 명나라 재차 다녀온-경기도관찰사-대사헌-호조참판-동지중추부사-병조참판 역임, 묘소 도촌동

저서 : 『철파집』 <규장각 소장>

<자료13> 한사문 (韓斯文 1446~1567)

조선시대 문신, 자는 子藝(자예), 시호는 慶節(공간), 본관은 청주, 읍보로 여러 관직을 거쳐 좌부승지-전라도관찰사-개성부유수-한성부좌윤-동지중추부사로 명나라 다녀온-대사헌-방조, 공조참판-공조판서-함경도관찰사-충종 반경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이 되어 西川君(서천군)에 책봉, 묘소 을동

<자료14> 이세정 (李世貞 1461~1529)

조선시대 문신, 자는 仲樞(중권), 본관은 광주, 읍보로 와서별제-내자시 주부-장악주부-사헌부감찰-장례원사평-제강시강원보덕-동정대부 방조참의-갑자사화 때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예조, 병조참의-장례원 판결사-광주목사-전주부윤-해주목사-돈령부도정 판결사-관찰사-승정원좌승지-도승지-예조, 병조, 조참의 역임, 효행이 두터웠고 점소하였으며 묘소 하대원.

<자료15> 민제인 (閔齊仁 1493~1549)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希仲(희중), 호는 立巖(입암), 본관은 예홍, 27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가독서 대의직 역임-부제학-위사공신 2등이 됨.
안명세가 기록한 '時政記(시정기)'를 제작하려다가 광주로 유배되어 별세함.
저서 : 『입암집』 6권, <규장각 소장>

<자료16> 경대년 (鄭大年 1503~1578)

조선시대 문신이며 자는 景老(경로), 호는 憲菴(사암), 시호는 忠貞(충정),
본관 동래이다. 28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을시에 창원 급제하여 예
빈사주부-예조정랑-사헌부-자평-직제학-예조정랑-중국 연경에 다녀온-양
주, 청주, 철원 목사로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였다.
그후 좌찬성-이조판서-좌찬성에 제자 임명되었으나 나흘만에 별세하였다.
묘소 신충동(구 날을촌-옹정산)에서 이장됨.

<자료17> 이증 (李增 1525~1600)

조선시대 문신이며 자는 可謙(가겸), 호는 北庄(복재), 본관은 한산, 시호는
자簡(자간)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역임,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추증, 楊川君(아천군)에 책봉.
저서 : 『북에시고』 <규장각 소장>

<자료18> 정윤희 (丁潤熙 1531~1589)

조선시대 문신이며 자는 景鍇(경석), 호는 願庵(고암) 또는 頤庵(순암), 본관
은 나주이다. 21세 때 사마시 급제, 25세 때 알성문과에 창원금제하여 전직-
절언 별조좌랑-수찬-지평-이조정랑-사가독서-사인-장령-옹교-집의-사복사
경 재임 때에 문과 중시에 창원금제하고 판결사-장단부사-예조, 호조참의-
강원도 관찰사 역임, 四六文(사류문)에 뛰어나고 흥문판과 예문관의 모든
문서를 관술하였다. 묘소 백현동.
저서 : 『고암집』 <나주 경시 문중>

<자료19> 권정 (權衡 1538~1598)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面道(이원), 호는 松菴(송암), 시호는 忠正(충정), 본관은 안동이다. 24세때 별시 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여 검열·주사·별조파랑·춘추관·기사관·우·좌승지·형조참의·관찰사·형조참판·임진왜란에 일어나자 임진강에서 일본군과 전투하였으나 패배하고 권을 장군과 함께 의병에 가세하여 전투함·서울 탈환작전에 참가·금조관서로 명의 장수 이예송의 화친에 반대하면서 왜군 토벌을 주장하였다. 묘소 금토동.

<자료20> 윤탁연 (尹卓然 1538~1594)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育中, 호는 重淵(중호), 시호는 慶敏(현민), 본관은 칠원이다. 20세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이후에 알성문과에도 급제하면서 사관으로서 춘추관기사관·동래부사·상주목사·형조참판·경기도관찰사·형조호조판서·家系錄評(종계변무)의 공으로 풍독공신 3등 漆系君(칠계군)에 봉해짐·임진왜란 때에 왕세자를 호종·하명도관찰사 역임.

시문에 능하였음. 묘소 하대원동.

저서 : 『개사일기』와 『명종설록』 편찬에 참여함. 『중호선생 문집』 <개명대 소장>

<자료21> 송언선 (宋言愬 1542~1612)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宣尤(과우), 호는 退峰(호봉), 시호는 榮襄(영양), 본관은 여산이다. 명종때 불교를 배척하며 승려 보우(普雨)를 죽이라고 건의했다. 35세때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검열·부교리·평안도관찰사·동면 순검사·이조판서 역임하였으나 몇 차례 좌직, 유배도 있었다. 묘소 상대원동. 저서 : 『설학지남』, 『호봉집』 등 있음.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22> 한효순 (韓孝純 1543~1621)

조선중기 문신이며 자는 牯叔(면숙), 호는 月齋(월단), 본관은 청주이다. 33세때 식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수찬·영해부사·재임중 임진왜란 전공을 세워 경상좌도 관찰사·별조참판·감상·전라·충청도 체찰부사·제중

추부사-이조관서-평안도 관찰사-판중추부사-우찬성-이조관서-우의정-좌의정-인조반정으로 관직이 추탈되었다. 중국과 일본에 선위사, 사은사로 다녀온, 시호 莊獻(장현), 행조참판, 제찰사 재임시절에 화기주조와 명술 간행 및 이순신과 함께 거북선 모양의 창선 건조, 수군 경비 강화에 힘썼, 묘소서현동.

저서 : 『신기비결』 2권, 『진설』, 『사서오경』 고정 편저있음. 시호 서홍부원군에 책봉.

<자료23> 한명숙 (韓明訥 1567~1652)

조선중기 문신이며 자는 勉載(육재), 호는 栗軒(율현), 본관은 칭주이다. 39세때 진사가 되고 호조정랑-현감-45세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되어 예조 좌랑-사서-정언-지평-장령-군기시정-군자감정-봉상시정-양서여사-동지사 겸 지돈녕 부사 역임. 79세때 기로소에 임시하여 지중추부사로 낙향. 관직 책임중 두차례에 파직, 유배생활 하였음. 묘소 율동.

저서 : 『삼체집』 편술.

<자료24> 이수 (李舜 1569~1645)

조선중기 왕손. 자는 明遠(명원), 본관은 전주이다. 부정-선전관이었다가 순친 유배-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 왕을 강화도로 호종-崇憲大夫(승헌대부)제수받고 멸세 후에 정1품의 丽祿(현록)대부(경1품)추증. 시호 忠肅(충숙).

묘소 궁내동, 묘소가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됨(1980년)

<자료25> 권득기 (權得己 1570~1622)

조선중기 문신으로 자는 重之(중지), 호는 晚晦(만회). 본관은 안동이다. 40세에 식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고산도 찰방 사임하고 은문처사로 일생을 마침. 멸세후 이조차관 추증. 묘소 금곡동.

저서 : 『만회집』, 『연송참기』 <규장각 소장>

<자료26> 이상안 (李尙安 1575~1627)

조선중기 무신이며 자는 靜而(경이), 시호는 忠愍(충민), 본관은 광주이다. 젊어서부터 강직한 성격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광주 첨사-강계 부사 때 파리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가 정묘호란(1627)발발에 자창하여 별장으로 서 남이홍과 함께 안주성에서 화약 불더미에 몸을 던져 전사함. 시체없는 의관예장 차른 후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경 판의금부사 추증, 안주 충렬사 배향.

묘소 하대원동, 철려문 함께 있음.

<자료27> 남이홍 (南以興 1576~1627)

조선중기 무신으로 자는 子豪(자호), 호는 城隱(성은), 시호는 忠莊(충장), 본관은 의령이다. 무과 급제후 선전관-부총관-포도대장-충청·경상도 병마절도사-구성부사-안주목사-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연안부사로서 전무공신 1등 및 宣春君(의춘군)에 책봉-평안도병마절도사, 영변부사-정묘호란(1627)발발로 안주에서 후금군사와 분전중 성에 불을 지르고 짚어들어 자결. 영의정 추증, 府院君(부원군)추봉되고 안주 충민사에 배향. 묘소 대평동에서 성남시 개발로 충남 당진군 충장사로 천장. 현재 충남 도지정문화재 52호 지정

<자료28> 이경현 (李景憲 1585~1661)

조선중기 문신으로 자는 汲思(여사), 호는 茗田(자전), 본관은 대수이다. 33세때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좌부승지-정사원종공신-병자호란 발발 당시에 남한산성에 왕 호종-병조참판-개성부유수-사은부사로 청나라 심양에 가서 불모로 잡힌 세자를 본국의 원손으로 대신시켰다하여 남양에 유배-후에 경기도관찰사-동지돈령부사 등 역임.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묘소 상작동.

조선전기 중의 성남인문 28명이 현재로서 권 반, 경대년, 남이홍은 이미 다른 지역에 천장된 실정이다. 이 논고에서 누락된 인물도 몇 사람을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몰연대나 조사된 수많은 각 쌍씨의 선조들을 모두 조사의 인물로 결리할 수 없었다.

3. 조선 후기의 성남시 인물 찾기

조선 전기에 비해 향토인물로 손꼽히는 선조들은 오히려 많지 않다. 높은 관직의 인물도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남시 관내의 묘소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인물은 더구나 몇 사람일 뿐이다. 수백년 뿌리를 내려온 각 문중의 성씨별 조사에서도 이 지역의 연건상 묘역은 제한되므로써 전국 각 지방으로 분산되었다고 보여진다.

朝鮮後期(조선후기, 1592~1910)에 해당하는 15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둔다.

[*] 표3. 조선 후기시대 속에서의 인물

이 강식(1585~1674)	이 익(1601~1614)
원 시(1604~1672)	이 칠(1644~1733)
이 별태(1688~1733)	이 광덕(1690~1748)
남유용(1698~1733)	남공철(1760~1840)
남주현(1760~1821)	강정일당(1772~1832)
강 위(1820~1884)	남상목(1876~1908)
윤치창(1876~1971)	한백봉(1881~1960)
한순희(1885~1961)	

[*] 표3.에서 이경석, 남공철, 강정일당 세 사람은 이미 향토인물연구 학술회 행사를 가졌다. 그러므로 나머지 12명의 인물자료만을 소개한다.

<자료29> 이의 (李의 1601~1614)

조선 후기의 선조 아들인 영창대군으로 인목왕후의 소생으로 선조의 14황자 중 막내, 유일한 정궁(正宮)의 소생이므로 선조는 은밀하게 왕세자로 책봉된 광해군 대신에 영창대군을 왕세자로 삼고자 논의한 사실이 선조가 갑자기 끊어하므로써 반로되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고 뒤이어 영창대군까지 억모 연루죄의 누명을 씌워 서인(庶人)으로 강등 시켜 강화도에 위리안치시켰다. 8세때 강화부사 정 흥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으며, 그 후 수경구 태평동 골목길 공사장에 영창대군 묘비명 발견

<자료30> 권시 (權時 1604~1672)

조선후기 학자로 자는 忠誠(사성), 호는 壯翁(단옹), 본관은 안동이다. 32세 부터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여러차례 임명되었으나 무임치 않고 굳이 사양하였다. 59세때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지만 윤선도의 禮証(예송)문제로 격론이 일어 서인(西人)에 의해 규탄, 파직되어 낙향 은둔, 64세에 재차 한성 부좌윤에 임명되었으나 사양, 송시열과 같은 鶻湖(기호)학파로서 禮論(예론)에 해박한 학자로서 좌찬성에 추증, 공주와 도산서원에 배향, 묘소 금곡동, 저서 : 「단옹집」 <규장각 소장>

<자료31> 이집 (李摶 1664~1733)

조선후기 문신으로 자는 老泉(노천), 호는 醉村(취촌), 시호는 忠憲(충현), 본관은 딕수이다. 20세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뒤이어 33세때 경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또다시 43세때 문과증시에도 병과 급제되면서 승지-예조참판-황해도관찰사-예조판서-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역임, 묘소 고등동, 저서 : 「경종실록」 칸술에 참여하고 <백세첨풀비>(해주)와 <청평묘비> 글씨가 있다.

<자료32> 이병태 (李秉泰 1688~1733)

조선후기 문신으로 자는 幼安(유안), 호는 東山(동산), 시호는 文肅(문청), 본관은 한산이다. 28세에 전사가 되어 여러 보직을 역임-예조참의 재임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할아버지 鄭國(순국)하였으므로 傷書回答(왜서회답)의 예를 피하기 위해 사직함-호조참의 중에 영조의 당평책에 반대한 사건으로 파직-뒤에 경상감사, 승지 보직을 거친-협친군수로서 亂民(기민)들의 구호에 힘쓰-무제학-관찰사-후에 이조판서 추증, 칭백리였음, 묘소 수내동.

<자료33> 이광덕 (李匡德 1690~1748)

조선후기 문신이며 자는 梨賴(성뢰), 호는 冠陽(관양), 본관은 전주이다. 32세때 경시문과 을과 급제하여 선서가 되면서 노소론 담쟁의 중도파로서 극렬파에 미움을 받음-지평-교리-관찰사-암행어사 재임중 노론파 무고로 파

직-사은부사로 청나라 다녀오고-대제학 재임중 정주, 해남에 유배-풀려나 한성부과유에 임명되었으나 거절, 과천에 은거, 묘소 석운동,
저서 : 『관양집』 <한국전력 산기문고 소장>

<자료34> 남유용 (南有容 1698~1773)

조선후기 문신이며 자는 德哉(덕재), 호는 霽澗(뇌연)·小華(소화), 시호는 文清(문淸), 본관은 의령이다. 23세때 진사가 되고 강릉·함경·세자익위사시직·영춘현감·42세때 말성문과 병과 급제로 세자시강원·승지·대제학·예조참판·원손보양관·예문관제학·과부빈객·대사헌·대제학·예조참판·우빈객 역임. 문장과 시에 뛰어나고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묘소 율동,

저서 : 『뇌연집』, 『명사정감』 <규장각 소장> 『천의리편』 편찬 당상관.

<자료35> 남주현 (南周顯 1769~1821)

조선후기 문신이며 자는 文甫(문보), 호는 宜齋(의재), 본관은 의령이다. 29세때 사마시에 합격하여 세마·호조좌랑·감찰·함양, 무주 등지 군수 재임중 45세에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되어 사간원, 사헌부, 흥문관, 세자시강원 등의 요직을 두루 걸쳐 혈조참의·충진부사 역임. 별세후 대제학 추증. 묘소 율동. 문장과 시에 능숙하였다.

저서 : 『남재집』 <의령남씨 문중 소장>

<자료36> 강위 (姜煥 1820~1884)

조선후기 문인이며 자는 仲武(중무)·莘玉(위옥), 호는 秋翠(추금)·古懽子(고환자), 본관은 진주이다. 곤궁한 가문 출신이나 다양면에 해박한 지식을 섭렵하여 당대의 대시인으로 방랑할. 강화도조약 체결당시 華談(필담)을 책임맡았으며 64세때 博文局(박문국) 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간행으로 국한문 혼용에 많은 공을 세웠다. 韓末(한말) 3대 시인. 묘소 복정동.

저서 : 『동문자모 분해』, 『용하체』, 『손무자주첩』, 『고환당집』 등 <규장각 소장>

<자료37> 남상목 (南相穆 1876~1908)

한말 의병장. 호는 동천, 자는 문일, 본관은 의령이다. 28세 이전에 주역·고문·방서·답나리하며 일본에 항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낙생면 중심으로하여 대왕면·돌마면 그리고 용인군에 이르러 수백명 의병을 소집하고 안성·죽산 등에서 채적과 격전을 벌임. 뒤이어 광주군 일대의 여러 둥지와 함께 이강년 의병 대장 휘하에서 참모관 일历来 받아 조령계곡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고향인근의 광악산 부근에서 일본 현병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로 수감. 혹독한 고문에 의해 장파열로 순국. 건국포장 추서(1983년)후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1990년). 묘소는 하산운동에서 분당구 개발에 따라 현재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으로 천장.

<자료38> 윤치장 (尹致長 1876~1971)

한말 의병장. 본명은 在述(재속), 본관은 날원이다. 15세 결혼하고 효경·논어 등 익히며 농군으로서 일제 조선총독부 탄압결치에 항거의지를 지녀 오다가 31세때 대왕면 일대의 청년들과 함께 과천면, 낙생면, 연주면과 연계하여 청년의병 70여명과 일본 현병, 경찰과 대항하였음. 그 이듬해에 허위·이강년과 함께하여 서울진격 도중 미아리고개에서 전투하다가 체포, 수감사형연도에서 15년 감형이었다가 일제시대 왕자 단생의 특별사면에 의해 석방(1923년)되었다가 해방을 맞음. 그후 별세때까지 96세 일생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1983년). 묘소 금토동.

<자료39> 한백봉 (韓百鳳 1881~1950)

한말 독립운동가이며 자는 聖儀(성의), 호는 松軒(송현), 본관은 청주이다. 울동 향리에서 한학 수업중 한일합방에 통분하고 기미 3.1운동에 적극 찬동, 고향 인군의 분당리 장날(1919년 3월 27일) 울리 동민 50여명을 모아 마을 뒷산에 봉화 울리고 돌마면, 낙생면, 오포면 주민들과 분당리 장터에서 시위하다가 일본 현병대에 체포.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구속되고 출옥후 新幹會(신간회) 광주지회 결성하여 물산장려 및 농민운동의 민족혼 일깨웠음.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 추서. 묘소 울동.

<자료40> 한준희 (韓順會 1885~1961)

한발 독립운동가이며 호는 露菴(제암), 본관은 청주이다. 漢學(한학) 특히 4서3경 통달하였으나 한일합방에 풍분하고 기미 3·1운동 만세에 적극 주도자로 앞장을 섰음. 1919년 3월 만세 당시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서 이천, 예주, 원주, 음성 등지와 연락하며 운동자금 모금에도 협력함. 新韓會(신간회) 광주지회장으로서 침략국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을 기원하는 특별기도회 주전. 53세 때 기도사건으로 구속되어 고초를 당하였다. 묘소 을동, 대동령포장 추서(1993년), 독립기념비 건립(1998년).

4. 근대 이후의 성남시 인물 찾기

앞에서 밝힌 대로 성남시 개발 이전시대에 있어 풍청 죽주군 4개면 관할의 농촌지역이었던 때는 이 고장 대대로 수백년 동안 자리잡아 살아온 각 성씨 문중 안의 인물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역사적 인물이라고 내세울 만한 이가 아니었고, 현재 전해 들을 수 있는 인물이라야 고작해서 출향인사 몇 사람에 불과하다. 염밀하게 말하자면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부터 1973년 성남시체 실시 기간중에는 이 고장 농촌지역 원주민의 행정관료로서 중부면, 둘마면, 낙생면, 대왕면 4개면내 면장이 가장 손꼽히는 사람으로 봐야한다. 하므로, 정치가, 교수, 경제인 극히 한두 사람들이 이곳 농촌지역안에서 손꼽히는 정도로서 세거집성촌 문중에서나 논의할 정도인 것이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인물이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일합방에서 성남시체 공표까지의 60여 년 동안 인물 찾기는 현제로서는 곤란할 따름이다. 설사 있다하더라도 크게 내세울 만한 두드러진 행적이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남시체 말효의 1973년 이후, 급격한 지역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각 분야에서 특히, 성남시를 빛냈던 현대사회속의 인물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 중에 또한 어려운 일이다. 광범위한 각 분야에서 지역을 빛냈던 인물선정이란 용이하지 않다.

역대시장이라하여 부조건 인물로 볼 수도 없고 이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관공서의 각 기관장 등 실로 엄청난 반자취가 남아있는 이 시절에서 아무

래도 지역성을 고려하고 괜찮을 만한 치적을 살펴가는 일은 성남시의 역사 속에 관목한 치적이 눈에 나타나 공적을 살기 어렵다. 적어도 현직에서 퇴임한 후라도 성남시에서 살았고 성남시 관할내에 치적을 살을 만한 근거가 확실한 정표물, 개인저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자면 선정의 현대 인물 찾기는 아주 까다로운 자료 검증의 힘겨운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근대이후 광주군 4개면 관할의 농촌지역 역사속에서도 인물 찾기가 어려웠던 것 처럼 시체 실시 이후 현대까지도 구체성을 띤 근대 이후의 인물 찾기는 일단 보류해 두고자 한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공연된 현대사 속에서의 성남시 인물찾기는 사회 각 분야를 말라한 선별위원회 조직안에서 심도있게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3년관의 『성남시사』(성남시 발행)에서도 역사적 인물 총 88명이 성명의 자모순서대로 차표를 넣고 있으나 모두 조선후기 즉, 근대 이전의 인물로 한정시켰다. 한편, 성남시사를 편찬주관하였던 조윤제 편 『성남인물사』(1990년)에 개재된 총 155명은 당시의 지역인물 충람으로 위었다고 하나 이 출판물에 개재된 상당수의 인물을 검증하고나면 당시의 인물중에서 엄선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기에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성남시 인물을 함부로 거명한다는 문제는 아주 침례한 논란이 대두되므로써 한 가지 과제로서 지적해두고 싶을 뿐이다. 빠른 시일안에 정리되었으면 좋겠으나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현대사속의 성남시 인물찾기는 하나의 과제로 보류해야 한다.

다면, 성남시 현대사에서 생을 마친 이들 중에 혹, 몇 사람을 조심스럽게 거명해 볼 수는 있겠다. 예를 들자면, 작곡자 박태현(1907~1993), 경제인 변상호(1917~), 경제인 홍사봉(? ~ ?), 극작가 권기홍(1930~ ?), 무용가 정금란(1942~ ?) 외 작고 인물에 있어 그들의 치적은 손꼽힐 만하기 때문이다.

IV. 소 결언(小結言)

이 글은 어디까지나 청남시 미발굴의 향토인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 범위도 극히 한정된 과거일 뿐이다. 오늘날 분당구가 설치되어 행정구역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는 현재로서는 수청구, 중원구, 분당구 3개구 만의 44개동을 포함한 인물찾기는 아무래도 근현대의 시대인들은 더 후일에 평가되고 선정되어져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작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필자가 정리한 고려시대 속의 6명, 조선 전기시대 속의 24명, 조선 후기 시대 속의 15명 총 45명 조차 면밀한 검증으로 치적을 살펴보면 그도 또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인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인물도 또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명된 인물조사는 한낱, 기초자료를 뽑아 나가는 과정중의 첫 사도일 뿐임을 재상 밖에 두고자 한다.

이같은 조사·연구의 사업은 심히 조심스러운 일이며 미지않아 근현대 속의 청남시 인물을 찾으려 할 때에도 항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되 청남시를 위해 공적이 확실한 이, 보소와 추모비가 청남시 안에 설치되었었는 이, 문집 및 개인저서 등이 청남시 역사와 문화발전에 도움되었던 이 등으로 기준을 세워 살펴야 할 것이다.

필자가 힘겹게 생각하는 근현대사 안에서의 청남시 인물조사 그 대상을 어찌 생각하자면 개인 이전에 청남시 관할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각 사회단체 그리고 학술연구단체와 지역내의 여러 대학내 연구소에서 여러 과장의 검증을 통한 1차 자료조사와 기초조사가 단체별로 엄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결국, '역사의 바른 길'을 위해 일생동안 의지로서 살다 간 우리 고장의 인물찾기 사업은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진행되어져야 할 검증과 정립을 천명하면서 결론에 못 미치는 소결언으로 링수고자 한다.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허창무(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三學士 節義精神의 朝鮮朝的 認識
- III. 三學士 節義精神의 清朝的 認識
- IV. 三學士 節義精神의 可塑性
- V. 결론과 계의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4년 성남에 위치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로 임명되면서부터 관교권 문화적 특징과 역사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경신화연구원의 이웃동네인 석운동에 맥현공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향토문화연구자 연찬사업을 본인이 주관하게 될에 따라,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의 200여 문화원장을 모시고 지역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같이 고뇌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때 성남문화원의 이창렬 원장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판교부터 정신문화연구원 입구까지 늘어선 가로수를 지켜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당시 오성수 시장과 가로수를 놓고 문화논쟁을 벌인 것이 동기가 되어 성남문화원의 부원장으로 3년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돌아와 생각하면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안 17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다. 십수년을 해외에서 생활한 필자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부임차 판교의 대호갈비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지은 한수의 시가 생각난다. 그 첫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외국을 봄마다닌지 십수년 만에 고국에 다시 돌아와 내가 머물 뜻을 찾으니, 천진난만한 길 가던 어린이가 웃으면서 운중동에 정문연이 있다고 손 끝으로 그 방향을 가리키네.”(周遊天下十數年, 仙童笑指雲中洞) 이때부터 필자는 운중동 동민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문연에 초임할 때만 해도 필자는 성남문화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이리라, 시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하는 마음에서 맹목적으로 성남시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에 물어 보았으나 문화원의 소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이만큼 성남문화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지난 날의 성남문화원을 오늘에 와서 돌아와 보면 그 당시가 성남문화원의 전환기에 있었던 것 같다. 예산은 1억 전후에 불과하였고, 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멤버이사들은 30명이 있었으나 이사회비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필자는 부원장의 신분이라기 보다는 영업사원의 자세로 이사회비를 받기 위하여 여러 이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문화원의 시대적 역할과 문화인들의 사명을 촉구하는 첫 걸음마를 하면서 시로부터 그 해 3억의 예산을 중액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로 전국의 타 문화원에서 그 때까지만 하여도 일찍이 시도된 바 없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다음해에는 문화대학을 개설하여 300여명의 회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 3년째가 되는 1997년도의 신청 예산은 성남문화원의 적정예산인 10억 전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부원장직은 반려하고 향토문화연구소와

연구위원으로만 참여함으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다소 가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이 필자에게는 성남문화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 된다. 왜나하면 『論語』에서 이미 지적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말처럼 옛날에는 성남에 산재한 문화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유의해 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심지어 삼학사를 모시는 ‘충절사’가 남한산성의 동편 산쪽에 있었던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가 성남문화원의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그곳을 참배할 수 있었고 현절사에는 흥익한, 윤집, 오달재 삼학사를 모시는 외에 김상현과 정온을 배향하고 있음을 아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필자로 하여금 성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사실 종래에 남한산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성남을 취욕의 땅 쯤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의 수준이었다.

식민사관에 의하여 관수된 편견을 버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삼학사의 절의정신이 북벌운동-위정척사운동-개화독립운동-삼일운동-근대화 사상으로 이어지는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흐르고 있는 민족정신을 예감하면서 삼학사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삼학사의 절의정신을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시도하여 보았다. 비록 하나의 사론에 불과하지만 필자와 같은 독자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양자의 연결 고리와 삼학사의 절의정신이 성남의 시민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여 볼 것이다.

II. 三學士 簡義精神의 朝鮮朝의 認識

15세기 조선조의 학풍과 정치적 지향점을 추정해 본다면, 사대교련을 전제한 도학정치의 구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의 계면에는 정도전이 추구했던 고토회복의 영원이 승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당시의 지식인들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이면서 정치가였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론인 화이론은 그들의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중국인들의 인식체계에서 중화관 지역적으로 중국, 종족적으로

한족, 문화적으로는 인륜과 도덕을 중심축에 두고 있는 유학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문화를 뜻한다. 이러한 중화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즉 중국에 비금가는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의 중화인식은 지역적, 종족적 외회를 벗겨내고 문화적 의미에서만 과학하려 한 것 같다.¹⁾ 따라서 불사이군과 불경이 부를 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주하던 시대적 상황논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수양대원군의 찬탈을 문제 삼아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유신과 생육신의 의리정신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국에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권을 계승하는 상나라의 '형종제'가 있었고,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기득권을 상속하는 주나라의 '종법제'가 있었다. 형종제급제 입장에서 보면 세종의 차자였던 수양대군이 마땅히 문종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었겠지만, 종법제의 입장에서 보면 단종만이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나쁜 삼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조가 후자에 정통성을 부여한데서 생육신과 사육신과 같은 철의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철의정신은 조선조 5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 일례로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명분을 찾아 생사를 도박한 무오, 갑자, 기묘사화 같은 와중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는 기풍만은 승상되어 왔었다. 이러한 사상사적 백략을 찾는다면 정봉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성리학적 학풍일 것이다. 유학의 청명론이 국가발전에 역기능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사회에서 정통성 문제를 두고 무엇이 옳으며 그린가 하는 가치관 형성에는 심화된 성리학과 예학 그리고 춘추학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한국인으로서 또는 문화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 하였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개는 명분의식과 원리주의가 이러한 정신사적 배경과 의식구조의 전환으로 한층 더 성숙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철의정신의 양태배경과 형성과정을 통하여 조선 후기의 전개 양상을 경육자 교수의 글을 보면 그 대강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입진왜관과 병자호관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 사화는 심각한 후유

1) 정육자, 「丙子胡亂時 三學士의 活動과 意義」, 『남한한성과 삼학사』(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97), 20쪽.

증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에 치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17세기는 와해된 조선사회를 재정비한 시기다.²⁾라고 전제하고 한중일 삼국의 국제경세를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세계대전을 틀타 만주에서 힘을 기른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병자호란이 일어나 국체의 상징인 왕(인조대왕)이 삼전도에 나아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였다.”³⁾ 이러한 와중에서 삼학사와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부국강병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은 소를 도둑 당하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혐국이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리 시대 우리는 동고침입의 뼈아픈 경험이 있었으나 당시 문치주의에 배울되어 있던 조선의 조정은 이율곡의 100만 양병설과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병자호란을 당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던 조선지식인들은 정묘호란 이후 이미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갈려 사론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삼학사의 절의정신은 당대 사림세력의 이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북방 오랑캐인 여진에게 군신관계를 요구 당한 것 자체가 치욕적인 사실로 인식되었다. 일례로 여진의 풍속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러 부인들은 애비를 대신하여 태라고 살아야 한다는 ‘娶其庶母’의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풍속을 두고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여진족들을 애미와 함께 사는 호로자식으로 취급하였으며, 부인이 죽으면 처제를 데리고 사는 왜인들의 풍속을 보고 동물과 같은 놈이라고 폐하하였다. 그러나 야만족으로 평가했던 여진족과 왜족 앞에 무참히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두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조선의 선비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학사 절의정신의 계승과 평가는 조선 후기 지식층들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관점을 통하여 삼학사에 대한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란후 조선후기 사회가 재정비되면서 병자호란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평가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체질화

2) 정옥자,<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19쪽.

3) 정옥자, 말의 논문, 20쪽.

된 성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북방오랑캐인 여진족과 형제의 의리나 군신의 의리를 뱉는 일은 자존심의 포기이자 가당치 않는 군욕이므로 송파불구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립사회의 공론으로 국문화 하였으니 이것이 칙화론이다. 칙화론의 대세속에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철과의 화의를 모색하여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화론이다. 전자가 이상론 내지 원칙론이라면 후자는 현실론이었다. 이 두 주장은 현실타개의 원칙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⁴⁾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삼학사의 명분론이 청나라에 준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될 수 있는 한 회피하면서, 차관정부가 실리외교를 지향하지 못하여 병자호란을 자초하였다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화의파들의 실리외교만을 평가절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이 우리민족의 경제성화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그로 한 해독을 빼자리게 느끼고 있다.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삼학의 철의정신을 높게 평가한 점은 식민사학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논지와는 달리 청나라가 앞세우는 힘의 논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한계는 있었지만,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삼학사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III. 三學士 節義精神의 清朝的 認識

위의 논리를 앞세운 청나라로서는 조선 조경이 현실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칙화론자들의 주장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상대를 영원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익숙되어 있지 않았던 북방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각에서 당시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칙화론자들을 희유하는 한편 화의론자들을 그들 편에 서게 하는 전략을 다

4) 앞의 논문, 21쪽.

각적으로 구사 하였다. 청태종의 요구조건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국왕은 반드시 출성하여 신하의 예로서 항복해야 하며, 세자와 왕자 등을 인질로 삼양에 보내는 동시에 명약을 파괴하겠다는 한 주모자금 23명의 척화론자들을 삼양에 보내어 청의 국법에 따라 후세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⁵⁾라고 하였다. 이에 조선 국왕은 국가와 민족의 보존하기 위하여 청태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진도에서 인조를 굴복시킨 청태종은 척화론을 주장한 세 철은 관리를 대동하고 삼양으로 돌아간 다음, 이들에 대하여 청은 회유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먼저 호송된 흥익한에게 연회도 베풀고 조식으로 성찬을 대접하는가 하면 관직으로 회유하기도 하였다. 흥익한은 다른 척화인을 살피는 협박에 굽하지 않고 청태종 앞에서도 무릎을 끌지 않고 철의 무례함과 정묘호란 때의 약속을 과기하였음을 맹공하였다. 청 태종이 척화를 부르짖으면서 포로가 된 현실을 비웃으니 “언관으로서 대의를 밝히는 것일 뿐 성패, 존망은 논할 바 아니다.”라고 뜻을 들어 의견을 개진하고 “빨리 죽여 달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1637년 1월 28일 언조에게 하직하고 죄명장을 따라 청진으로 들어 가게 되었는데, 철의 찰수 용골타가 그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청태종의 말을 전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나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나와 싸울일이지 왜 남한산성에 숨었느냐?” 하였다. 이들 역시 흥익한과 똑같이 “우리가 말하고 자 하는 것은 대의일 뿐 이기고 지는 일과 존망은 논할 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들 역시 다른 척화인을 대라는 협박에도 굽하지 않고 죽음으로 향거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삼양에 불참해 갔어도 변함이 없었다. 용골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박하는 한편 청 조정에서 벼슬하며 처자를 테리고 와서 살라고 회유하였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결국 삼양의 서문밖 형장으로 끌려가 처형 당하였다.

조선 세 언관들의 주군에 대한 군은 철의와 불요불굴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조선 지식인의 만만치 않는 정신세계를 알게 되었다. 황태극은 이들의

5) 『淸太宗實錄』 卷33, “可先誅送二十三臣。朕示以警後人。”

정신세계에 빠져되어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다. 따라서 빼방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였지만, 이들은 그의 애탄은 마음을 몰라 주기에 부득이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 본 청태종은 “인조가 부립구나. 죄려한 신하를 두었으니.....”하며 한탄하면서 후장해 줄 것을 명령하였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태산과 북두성 같이 우뚝 선 조선의 선비라는 뜻으로 “三韓山斗”라는 네 글자를 비석에 새겨 영원히 이들의 철의정신을 기리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청태종이 그의 후손들을 처다 보면서 “너희들은 무력으로 조선을 다시는 침략하지 말라. 짐이 무력으로 비록 인조를 굴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조선의 세 선비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조선의 수 많은 선비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한 사실이다. 청왕조 270여년 동안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다시 오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삼학사의 철의정신이 중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삼학사를 중원절의의 상당으로 대표되는 문헌상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도 “인류정의를 실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삼학사가 청왕조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죽음의 시련에 당면하였어도 민족의 대의를 지켰고, 동시에 명에 대한 대의도 함께 고수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삼학사의 행위를 두고 청조의 입장에서 보면 대역 죄인으로만 평가 걸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삼학사의 철의정신은 중국 땅에 아직까지도 숨 쉬고 있다. 삼학사는 비록 청왕조에 의하여 살해되었지만 그들이 표현한 한민족의 정기와 숭고한 기개는 한민족 뿐만 아니라 예진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준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나라 조정은 삼학의 높은 기개에 감복하여 섬양성 서문밖에 그들을 추모하는 사당과 비석을 세우고 “삼한산두”라는 글까지 새겨 주었다고 청사연의는 전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오랜 역사를 거쳐 그 비석과 사당은 사라졌지만 300년이 지난 1935년에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 유지인사들이 “삼한산두”라는 비의 일부를 섬양 서문 밖 흙더미에서 찾아내었다고 한다. 드디어 그들은 이 비를 다시 충전하였다고

한다. 그 비문의 첫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조선은 단군을 조상으로 하고 기자에 의해 국토를 업어 중효를 숭상하는 민족으로서 인의를 표방하는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동방의 지국으로 불리져 왔다.” 인의를 숭상하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민족은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자신들 즉 여진족과는 철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삼학사의 행위방식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IV. 三學士 韓義精神의 可塑性

첫째, 민족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정신을 발휘한 삼학사의 정의 정신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대아직 생명을 위하여 소아적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이타주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조의 세 선비들은 불의의 전쟁 앞에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생명을 초개 같이 버린 이들의 민족적 정의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행과 지행의 불일치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말 따로, 말 따로 놀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 심각한 부조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서구의 수준 높은 학문을 모방하여 경제적인 부를 다소 소유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잠시 접어 둔 채,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여명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한번쯤이라도 개인의 이해와 생사를 초월하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불의 앞에 과감히 맞선 삼학사의 정의관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냉철한 이성과 서구적 합리성을 중시해온 우리의 머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산적 두뇌로 변하여 이기심에 극도로 전도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동경심이 절여된 채 힘의 논리만으로 조선을 유란한 병자호란의 뼈아픈 경험은 삼학사가 민족정의를 몸소 실현해 줌으로 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민족적 이타심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삼학사의 정의정신은 남한산성과密切한 관계가 있으며 성남시는 남한산성의 산록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360년 전 적대관계

에 놓여 있었던 심양과는 현재 자매도시로의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과 역사인식을 주제적으로 반추하는 노력이 없이는 즉 성남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시대적 변화에 관한 지혜가 없이는 시민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민으로 하여금 시민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은 시대정신이 무엇이가를 파악한 다음 21세기의 역사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삼학사 사건은 과거에는 한민족의 자존과 민족정신을 외국에 표현한 하나의 상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선란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정부는 이 비의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를 알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비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전까지만 하여도 심양의 서문밖에 있었으나 이 문학의 혼란기에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5년 심양의 혼하강 강변에서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것을 당시 요녕대학 교수였던 천문갑씨가 거금을 주고 사들여 지금 삼양시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마침 삼남시와 심양시는 자매도시로의 관계를 형성한 지가 2년이나 되었다. 지금쯤은 양시의 기념사업으로 심양에 삼학사의 비와 사당을 중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한산두” 네 글자가 쓰여 있는 비두와 비를 건립한 취지가 새겨져 있는 비신을 원형 그대로 모조하여 중앙고원에 그 비를 세운다면 젊은 학생들에게 성남에 삼학사의 철의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향토의식이 스스로 자생할 것이며, 이러한 민족사적 인물이 바로 이곳에서 활동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민공동체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남문화원에서 한번 시연한 바 있는 “삼학사모시오축제”를 매년 성남문화예술제의 핵심으로 삼아,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키야 할 역사성과 시대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는 본래 불여리, 벽거리, 놀끼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시민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과거처럼 동원개념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참여개념으로 문화행사의 성격을 전환하여, 이 행사에 시민과 단체들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질 때, 시민공동체적 경체감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병자호란은 조선 지식인들의 자존심에 막침을 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양에서 표출된 삼학사의 절의정신은 오히려 중국의 지식층에게 한민족의 민족자존과 선비정신을 선양한 기회가 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 후기 지식층은 국토의 좌절감에서 자기 회복의 방안을 강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문의 성향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벌론을 제창하는 목표설정은 동일한 것이었지만 방법론 상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랑캐인 청을 쳐서 복수 설치하겠다는 북벌론은 당시 양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고수하려는 공통된 목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북벌론은 의식적인 면에서는 절대당면의 선행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계반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명분론만 고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결지어 볼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삼학사모시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담는다면 논개를 소재로 한 전주 개천예술제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성남시민으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가상공간에서나마 한민족의 고토회복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상처받은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그 당시의 북벌론과 존주론은 조선의 자기회복의 방안이기도 하였다. 전자는 무력으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중원의 주인이 된 청나라를 토벌하여 복수설치하겠다는 논리이고, 후자는 명나라가 멀망한 현실에서 주나라로부터 전승된 중화문화를 조선이 존중하여 계승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 당시의 방법론적 차이는 오늘 지방화와 세계화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 가야만 하는 난제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작품으로 전환할 때 성남시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이 스스로 나타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남문화원과 같은 유관기관은 삼학사를 비롯한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이곳에서 배출된 사실을 널리 알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이 살기 좋은 고장인 것으로 일식시키는 일이다. 우리 관념의 저변에는 "人傑地靈이

라”는 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즉 출중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것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기가 융성하고 산수가 빼어난 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 시대 지리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사람이 살 터를 잡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으로 생리가 좋아야 하며, 그 다음은 인심이 좋아야 한다. 끝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비록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곳이 못되고, 생리는 비록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장하게 하지 못한다.”⁶⁾ 이중환의 논지를 오늘의 시점에서 성남시에 적용해 본다면 성남시는 그런대로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분당이라 는 신도시가 급조되면서 구시가지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아직까지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심좋고 살기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간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V. 결론과 제의

1. 경제성 확립의 필요성

21세기는 지방화와 세계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전산정보화의 적극적 수용과 지방문화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책을 수행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적 여건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기도 어려운 이 마당에 어떻게 자아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사

6) 李重煥, 『擇里志』(乙酉文化社, 1981), 161쪽.

상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94-1

회가 과연 어떤 사회이며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일례로 성남사회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르므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나는 성남의 시민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성남시민 즉 현대인의 공통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는 바로 인격체의 삶실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이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인격적인 실체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정체를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과 연결하고, 우리의 민족적인 실체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인격이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의 인격적인 실체를 이룩한다는 것은 그의 생활공동체 즉 성남시민이라면 성남의 시민적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냐?”하는 의문은 내가 어떤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인격체라는 것도 나의 시민적 생활공동체와는 상관없이 혼자서 이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기대와 신뢰 또는 공도의 규범을 통한 단련 그리고 공도의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의 자아의 정체(self-identity)는 그의 조국의 문화적·민족적 정체(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와의 연결 아래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⁷⁾

성남시를 발전시키려면 성남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일에 행정 당국은 일차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체성은 공동체를 결속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발견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성남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관외 사람들에게 성남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는 즉 결속력, 자신감, 자아확인 등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7) 한보환, 『국민을리피 용어사전』(도서출판 인간사랑, 1989), 78쪽.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체성 문제를 예로 든다면, 특히 동아시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족주의 또는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입장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었다. 개중에는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보아 왔다. 한국의 경우 근대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부를 다소 축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산감이 불어 서구 일변도 논리의 불합리성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때부터 자아의 경체성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정치적 정체성 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고 그동안 서구에 의해 강요된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문화적 선호도나 유적 등질성에 따라 전파력이나 융집력이 생기기도 하며, 유적 이질성에서 오는 차별성에 따라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⁸⁾ 따라서 비서구 사회 특히 동아시아에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것이 잘못 이용되어 문민주의 또는 지역주의로 변질된 형태로 나타는 경우가 있는데 성남은 지역주의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평이다.

필자는 성남시를 <소한국>이라 칭하는 때가 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에 의하여 축성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군에서 행정 구역상 성남시로 독립되면서 초창기부터 입주한 시민들 대부분은 이곳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대대로 살아왔던 원주민보다 전국 각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이 높아 가고 있다. 성남시민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관련시켜 삼학사의 철의정신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 본다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민족의 이익을 우선한 살신성인적 삼학사의 공익우선주의는 성남시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을 제의한다. 따라서 <삼학사주모사업추진위원회계획>(안)을 제의한다.

2. 「삼학사주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안)의 제의

8)샤류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김영사, 1998), 19-22쪽.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94-3

1) 사업취지

첫째,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제 2대 황제인 태종이 남한산성 아래 송파까지 와서, 친병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조선의 인조를 10만의 군사력을 앞세워 항복할 것을 강요해 왔다. 주화파와 쳇화파와의 논쟁 글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문서를 올리게 되었지만,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했던 흥익한·윤길·오단세 등 세 사람은 문화의식 때문에 청국의 무력 앞에 끝내 굽복하지 않고 명나라와의 관계유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봉천(신양)에 끌려가서 최후를 마치게 되었는데, 조선국민은 이들의 절의정신을 높히 '삼학사'라고 불렀고,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들의 기개에 감탄한 청태종은 '三韓山斗'란 비글자를 비석에 새겨 그 곳에 비각과 사당을 세우고 이들의 충절을 영원히 기리게 하였다. 그후 청태종의 이러한 절의에 대한 추모정신은 여진족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268년 간 우리는 청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게되었다. 이 비석은 1970년대의 문화혁명 때 유실된 것을 발해대학 천문간 학장이 파나는 노력 끝에 다시 찾아 현재 발해대학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석은 중국측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청국의 수도에 건립된 삼학사비는 한민족의 정신을 중국에까지 널리 알린 귀중한 문화재라고 할수 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선시대에는 남한산성에 삼학사를 모시는 '顯節祠'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성남·광주·하남의 시군민들은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1세기 동안 식민사관에 의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어서 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곳에 분향이라도 할수 있도록 고장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주변환경을美化한다면, 그곳은 바로 남한산성을 찾는 성남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창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취지에서 성남문화원에서는 성남시민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2차례 걸쳐 한중일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남한산성의 의미와 삼학사의 절의정신을 발현해 있으며, 또한 "삼학사모시오"축제를 거시적으로 개최하여 2,000여명의 문화가족들이 중앙로 5km를 행진하는 시

가행렬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행사를 성남문화원에서 계속 개최한 의도는 성남시민들로 하여금 삼학사의 절의정신을 내면화시켜 충전의 고장 성남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선흥도시로서의 성남시는 현재까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전국제일의 시세를 자랑하는 100만의 거대도시로 급성장 하였다. 그럼에도 건전한 시민의식과 성남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지 않는다면 행정당국의 노력에 비하여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 당국은 이점을 참고하여 삼학사추모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례로 성남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대학 청학생이 이 추모사업에 줄거리에 동참할수 있도록 성남시와 교육청이 유도한다면 그들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즐겁게 참여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5대 도시중의 하나인 심양은 과거 청나라의 수도인 봉천인 동시에 현재는 동북삼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의 중심지로서 요동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제시대에는 해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유서깊은 곳이다. 민족운동사 측면에서 심양과 상해는 한미족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말해시대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가 숨쉬던 고토이기도 하다. 현재 심양은 요녕성의 성도로서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물동량의 80%이상이 거쳐가고 있다. 이와같이 심양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병목과 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한민족의 흥망성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더구나 1998년 8월 31일 김병량 성남시장은 심양을 방문하여 慶賀新 심양시장과 함께 양도시간의 '友好都市結緣調印書'에 서명함으로써 양도시간에는 행정·경제·교육·문화·제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활발해지리라 기대된다. 그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심양시에는 성남관을, 성남시에는 심양관을 상호 개설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 복원계획과 건축비용의 내역

청태종이 심양에 삼학사비를 세우게 된 깊은 뜻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경제성 문제 94-5

있다. 그 하나는 비록 삼학사들의 반첨월위가 청태종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반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왕조의 종묘와 사적을 지키려는 그들의 충절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대론적 윤리관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삼학사를 바라볼 때 조선에 우뚝 선 인물이라는 뜻으로 '三韓山斗' 네글자를 비석 정면에 새기게 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삼학사 같은 선하를 두고 있는 인조가 부립구나"한 그의 말을 미루어 볼때, 청왕조의 건국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삼학사 같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하가 절실히 요청되었을 것이다. 그의 心中 깊은 곳에는 아마도 "나의 선하 여러분들도 삼학사의 철의정신을 배우라"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그의 숨은 뜻이야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중국의 황제가 조선조의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서 비를 건립한 경우는 중국 역사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조선초기 사육신의 충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와는 반대로 "병자호란 시기 삼학사의 철의정신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느냐"하고 물으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중국사회에서 충의의 상징적 인물로 대표되는 명망의 문чин상을 삼학사에 비견하면서 "그들의 충절을 인류정의의 실현이라"고 극찬함과 아울러 그런 분들이 살아왔던 한반도를 "수준높은 문화국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할때, 이 복원사업은 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양시경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아직까지 경제문제에만 치중하여 문화사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김안(국내설과 환도설)을 돌아본 한국인이라면 중국정부가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소수민족 문화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양시 정부도 문화정책만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중국적 상황 하에서 성남시와 삼학사 비를 보관하고 있는 발해대학이 꿈동으로 복원, 건립을 계획하게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사료된다. 또한 관립장소로 발해대학 교정을 짍은 것도

시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선비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물론, 앞으로 남북한 학생들까지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발해대학의 설립취지에 따라 그들은 동일한 캠퍼스 안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 1,000평은 발해대학이 제공하고 건축비는 성남시가 부담한다면 이 주모사업은 성공리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따로 작성할 계획이다.

1) 대지 : 1000坪

2) 건평 : 200坪

3) 석비 : 30万元(한화 5천만원)

(정각-12만원, 도로·식수-7만원, 조경-3만원, 비수리-5000원, 기타-500)

4)기념관: 180万元(한화 3억 원)

3. 추진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마을신앙
 - 1. 설문지 조사결과
 - 2. 동제의 실제모습
- III. 가신신앙
 - 1. 설문지 조사결과
 - 2. 가신고사의 실제모습
- IV. 무속
 - 1. 설문지 조사결과
 - 2. 주민들의 삶과 무속
- V. 뒷말

1. 머리말

마을제사는 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마을 사람들과 가족의 안녕과 함께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올리는 공동제사를 말한다.

1968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제사에 대한 질문지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5년에 발간한『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에 의하면, 광주·성남지역의 마을제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달	도당	산신당	산제당	상당	서낭당	우물	(무용당)	계
2	1	1	6	1	1	2	1	15

이것으로 보아 광주지역의 마을제사는 산신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제사가 행해지는 날을 보면 다음과 같이 1월 초와 10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마을제사는 정월에 거행했던 부여(扶餘)의 田鼓(영고)나 10월에 거행했던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나 예의 무천(舞天), 그리고 삼한시대에 농사를 끝낸 뒤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전통을 계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춘	택	기	무	계
초	보	름										추	입	파	용	당
4	1				2	1	1	7			1	2				19

광주지역에서는 마을제사와 함께 장승과 솗대를 세우고 고사를 올리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98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경기지방 장승·속대신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마을에 장승과 속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초월면 : 무갑리, 서하리

퇴촌면 : 우산 2리, 판읍 2리,

광부읍 : 목현리

증부면 : 갑복리, 임미 2리, 하면천리

『한국의 마을체당』과 1991년 한양대학교·경기도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의 광주지역이었던 성남지역에서 마을체사를 지내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생면 : 대암리, 판교리, 하산운리

돌마면 : 도촌리, 야탑리,

현재만 과거와 또,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장 되는 여타 변화 요인들이 합쳐져서 현재를 이룬다. 따라서 지역연구는 현재 주민들의 삶의 행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과거의 삶의 행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요인을 연구하고 밝혀 낼 때 비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본인은 판교의 민간신앙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행태를 규명해 보고, 이러한 것들이 판교인들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본인이 본 연구에서 민간신앙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민간신앙은 대다수 한국인의 삶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의 엘리트 문화에 못지 않게 한국인의 일상생활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연구는 판교 주민들의 삶의 일 측면을 이해하는 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본인은 판교 주민들의 민간신앙에 대한 설문지 조사결과와 주민들과의 개별면담 그리고 민속의례(가신고사 등)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하여 판교주민들의 민간신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관련사항에 대한 문현조사는 하지 못했다.

II. 마을신앙

1. 설문지조사 결과

<표1> 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원	퍼센트
없어져야 할 유산	12	21.1
소중한 문화의 일부분	21	36.8
모르겠다.	24	42.1

“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구용 설문지 질문에서 없어져야 할 유산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2명(21.1%)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중한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1명(36.8%)이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4명(42.1%)을 차지했다.

<표2> 동신당을 다시 짓고 동체를 부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원	퍼센트
찬성	13	22.8
반대	22	38.6
모르겠다.	19	33.3

“동신당을 다시 짓고 동체를 부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구용 설문지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이 13명(22.8%) 반대 22명(38.6%) 모름 19명(33.3%) 기타 3명(5.3%)이다. →위의 설문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체에 대해서 찬성 또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동체의 실제 모습¹⁾

지난 11월18일 차정에 관교 앞산에서 동체가 행해졌다. 본인은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환강한 반대로 끝내 참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8일 오후에 동체 준비과정을 지켜보고 산에 올라가서 山堂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1) 우리가 조사지로 선정한 마을은 관교2동이나 관교2동은 과거에 1동과 함께 통체를 해오다가 지금은 2동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관교지역의 동체의 특성을 살펴 본다는 점에서 1동의 동체에 대한 관찰도 의미가 있어리라고 생각된다.
관교2동 주민 이장범(70세, 연안이씨)에 의하면 전에는 1,2동이 같이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동체를 지내오다가 70년대 후반 행정구역이 1,2동이 구분되면 서(즉 관교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2동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난 18일과 29일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동네의 명칭을 주민들은 혼히 山祭라고 부르나 주민 김종용(68세, 판교1동 토박이로서 조상 대대로 판교에서 살아 왔다고 함)의 말에 의하면 도당제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도당제와 산제라는 말이 혼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호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명칭은 모르고 山호 또는 산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부른다.

호은 마을 옆 고속도로 길 건너편 산 장상에 있으며, 큰 참나무로 神體를 삼고 있다. 참나무 밑동에는 짚으로 작은 짚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터주신을 모신 것이라고 한다. 원래 신체는 큰 고목 2개로 되어 있었으나 6·25 때 총을 많이 맞아서 인자 그후 말라죽어서, 지금의 나무를 신체로 삼았다고 한다.

호神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로 부른다고 김종용은 말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호칭도 모르고 있다.

제일은 매년 음력 9월 그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제를 지내는 시간은 10월 초 하루 낮 0시가 넘어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제일 선정 후 준비기간 안에 마을에 초살 또는 부정한 일이 있으면 3일 혹은 7일 후에 다시 날을 받아 지낸다고 한다.

제주 선정은 전에는 마을 이장이 주선해서 제주를 선정하는 데(보통 제지내기 前 5일전쯤), 초상, 삼재, 부인이 원경 든 집 등 부정이 없는 집을 가리어 인근의 만신³⁾에게 가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주를 선정한다. 그리고 학식있는 자로 축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계관으로는 동네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 대표자들이 제에 참석한다고 한다.

제일 5일 전에 제주를 선정하는 것은 부정을 타는 기간을 최소한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일이 선포되면 제주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모두 보

2) 이날 같은날 같은 시각에 운중동, 하산울동(금년에도 이날 지냈음), 판교, 문달의 정자동(신도시 개발 때 산자체가 없어짐)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판교에서 산제지낸 때 산에서 보면 하산울동과 정자동의 블빛이 동시에 잘 보였다고 한다. 백현동은 과거에도 공제를 한지 않았음

3) 판교, 백현동등 이 지역 주민들은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른다.

는·먹는·말하는·듣는 부정을 폐하여 근신하며 제주는 부부관계를 긍한다. 제 자네는 날 본인이 찾아갔을 때 주민들은 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극히 꺼렸으며 본인에게 제가 끝나고 나면 와서 물어보라고 하였다.

제비는 예전에는 9월 말일 밤에 깁집마다 돈을 거두었다고 한다. 동네기금으로 하며, 98년의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祭 준비는 제주집에서 모든 음식과 제와 관련된 준비를 한다.

제주가 선정되면 제 준비기간 동안 제주집에 송침이 끊힌 금줄을 치고, 대문 앞에는 좌우 양쪽에 황토흙을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⁴⁾. 전에는 당에 하루 전에 가서 주위를 청소하고 그곳에 물 떠는 곳이 있어 그 물로 술을 빚고(하루 전에 담았으므로 좀 덜 담구어겠으나 그대로 유통다고 함), 그 물로 죽석에서 밥을 해서 제사 배를 준비했다고 하나, 산사태로 물떠는 곳이 없어진 후 지금은 제주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올라 간다고 한다.

제일 전날 주민들은 당에 올라가 주변청소를 하고, 당에 올라가는 길을 닦고, 절으로 터주가리를 다시 만들고, 제물 차릴 상을 당나무 앞에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천막을 친다. 다음날 저녁 자정이 가까워지면, 제주 및 주민대표 일행은 훌수를 맞추어(산에 오를 때는 훌수가 되어야 한다.) 산으로 간다. 보통 7명 정도가 간다고 한다. 시계를 보고 12시가 넘어 10월 상당 초하루로 접어들면 주민들은 제를 지낸다. →제상⁵⁾을 차리고 제주가 향을 퍼우고 술을 따라 올리고 철 두 번하면, 축관이 산신축을 읽는다. 그리고 암반 제사대와 판이 찬을 올리고 절할 사람은 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다같이 절을 하고 끝낸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간소화된 것 같다. →제가 끝나면 제관들은 간단히 한잔하고 제주집으로 내려온다. 제주집에서 다시 한잔하면서 음복을 한다. 옛날에는 큰 통돼지를 나누어 먹과 함께 깁집마다 물렸으나 지금은 제주집에서 한잔하는 것으로 음복은 끝난다.

祭器로는 전에는 나무그릇과 놋그릇으로 된 제기가 있었으나, 놋그릇이

4) 제주집에 황토를 칠고 금줄치는 것은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안한다고 함.

5) 제상에는 과거에는 통돼지를 올렸으나 지금은 떼지머리만 올린다. 밤, 국 2그릇, 백, 암색과일, 코 터주신께 줄 끓여(제자낼 때 터주가리에 끓여준다), 초, 향, 기타의 제물을 올린다.

가격이 비싸자마 주민 중에 누가 팔아먹었는지 없어져서 지금은 스텐레스 그릇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해 놓았다가 사용한다고 한다.

*** 동제와 家神고사와의 관계 : 산제사를 지내고 나야 집집마다, 집안고사를 지낼 수 있다고 함, 만약 부정이 있어 산제사가 연기되면 가신고사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함.

*** 서낭당 : 과거에는 농협 앞에 고개 올라가는 곳에 고목이 있었고, 그 앞에 돌무더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낭당이라고 부르며 오가는 사람들은 돌무더기에 돌을 옮겨놓기도 하고, 가끔씩 밤에는 만신들이 와서 밀기도 하고, 벽을 살로 빼어 나무에 달아 놓기도 하고, 오색천, 싸구려 옷감 등을 빼어 두기도 했다.(마을 통장은 옛날 어린 시절 이런 풍경을 가끔씩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서 죽지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도 6.25전쟁 후 사라지고 지금은 고속도로 속으로 묻혀졌다.⁶⁾

*** 마을 시장봉의 큰 느티나무(1통에 수령이 500년 가량 된 보호수)와 줄다리기 : 경월 보름이 다가오면 주민들은 줄넘고도 분주해 진다. 보름이 되기 3일전부터 마을의 남절대들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 넓은 시장봉 앞⁷⁾에 모여 줄을 묘기 시작한다. 쌍용 줄다리기라고도 하는 이 줄다리기에 는 큰 용과 같이 굽고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미를 묘어야 한다. 많은 사람

6) 이 부분은 판교1봉 통장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사실임. 한편 주민 이의동에 의하면 과거에 대왕면 금현동에도 서낭집이 있었다고 하며 만신들이 그곳에서 흥사를 지내는 것도 자주 보았다고 한다.

7) 이 부분은 필자가 1통 주민 김종용의 말을 대부분으로 하고, 1통 통장과 2통의 이근태 할머니, 2통의 이평범(70 연안미씨)의 제보를 보조적으로 참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서 설득있게 재구성해 본 것임.

8) 고속도로가 나기전에 그곳에는 신작로가 있었으며,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5일마다 장날이 되면 인근의 주민들도 이곳에서 장을 보았다고 한다.

9) 마을 청년들은 깁집마다 걸을 한 두단씩 겨우어 줄다리기에 사용한다. 평가 100

들의 협동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한 줄을 꼬다보면 아낙네들은 출국에 막걸리를 가지고 온다. 몇 잔의 술이 들어가면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노래가락이 흘러나온다. 언제 왔는지 풍물제가 옆에서 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줄은 꼬지 않고 노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놀며 쉬어가며 3일 동안 곤 즐은 어느새 쓸용이 되었다. 보름날 저녁(6-7시) 주민들은 느티나무 앞으로 모인다. 느티나무 앞에서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면서 제를 지낸 후 그 시장통 넓은 공간(지금은 이 자리가 고속도로가 되었다)에서 주민들은 즐다리기를 한다¹⁰⁾.

풍물제는 연선 풍물을 처대고 한껏 신령이 오르고 마을의 대보름 축제는 이렇게 그 절경을 이룬다. 어디 이것이 판교 1동만의 축제랴, 평소에는 양반님네 하고 거리를 두던 너봄바위의 연안이씨들도 이날만은 하나가 된다. 인근의 화산운동, 운중동, 백현동은 물론이거니와 멀리서 까지 구경온 사람들도 있어 마을은 흰산한해¹¹⁾를 이루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느티나무 옆에서 큰 가마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아주머니들의 손도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던 즐다리기는 3년에 1번이 되고 5년에 한번이 되더니 어느새 사라졌다(60년대쯤?).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즐다리기가 행해지던 그 넓은 시장통 거리는 고속도로가 놓여 그 이전의 생활환경은 파괴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만을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맡해주고 있다. 즐다리기에는 많은 사람의 협동심과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봉장의 말로는 천 만원은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몇 해전 성남문화원에서 600만원을 지원 할 테니 즐다리기를 재현해 보라고 했으나 그 돈으로는 어렵도 없고, 이젠 많은 사람의 협동심도 구하기 힘들어 주민들은 거절했다

호일 때 2단씩이면 200단 정도된다. 즉 즐다리기에 짚이 100-200단 정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은 3가닥으로 짚을 굽게 하여 10명정도가 잡고서 풀려서 끈다고 한다.

10) 남녀로 나누어서 즐다리기를 한후 여자편이 반드시 이야기 한다.

11) 2동 주민 이광범에 의하면 과거 1,2동을 합치면 100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즐다리기가 멀어지면 한집에 5-6명씩만 나와도 5-600명은 되었다고 한다.

고 한다. 그러나 2000년에 판교 농협에서 천 만원의 예산과 기타 보조금을 통해서 줄다리기를 재현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 볼 만하다.

지금도 과거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어서 일까? 경노당 노인들은 정월 보름이 되면 노인절에 보관해둔 약기를 메고 아침 11시쯤 풍물을 치며 느티나무 아래로 간다.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간단히 제를 올린 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면, 이집 처집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부른다. 노인들은 신나게 그 집 앞이며, 바당 등지에서 자신을 밟아준다. 이렇게 판교의 대보름은 지나가는 것이다.

*** 2동의 느티나무와 민간신앙 : 마을 한 가운데에도 수령이 500년 가까이 된 보호수가 있다. 주민 이광범의 말에 의하면, 이 느티나무에서는 마을 전체적으로 제를 지내는 경우는 없었으나 주로 느티나무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느티나무가 위낙 커서 자신의 집에 해라도 입지 않을까 해서 가끔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야탑리의 마을제사를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의 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은 굴참나무와 옆에 있는 터주가리로 되어 있다. 산신제당이며, 하당은 장신나무라고 하여 징승을 대신하는 참나무 옆에서 지내는 장신제당이다. 일반적으로 산신은 남신으로, 장신은 여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초에 지내는데, 9월 30일에 마을에 유자들이 일진을 보아 좋은 날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5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계삿날이 정해진 이후에 출산이나 초상과 같은 부전한 일이 발생하면 제사를 연기한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같은 산부정은 일주일, 초상과 같은 부정은 3일이 지나야 새로운 날을 받는다고 한다.

제관으로는 당주·유사·축관 3종류가 있으며, 9월 30일 계삿날 백일을 할 때 마을 사람중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의 경우 그 해의 나이와 일진을 보아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부가 함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당주는 안당주 1명과 겉당주 2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당주는 장신제뿐만 아니라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내며, 제물도 마련한다. 겉당주는 유사라고도 하는데, 안당주를 보좌하여

당일 아침에 샘을 푸는 일, 산신당과 장신당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 제물 운반, 나무하는 일 등 짐일을 도맡아 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마을에서 는 가축을 도살하거나 이웃과 다투거나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자식들을 혼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관들은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며, 가능한한 바깥 출입을 삼가며, 언행도 조심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도 않으며, 매일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하게 한다.

제관을 선정하면, 절당주는 산에 가서 황토를 떠다가 안당주의 대문 양쪽에 퍼고 원새끼로 꾀은 인줄에 춤가지를 꽂아 대문에 건다. 안당주의 집에는 이장이나 절당주 이외에는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장신당과 산신당에도 황토를 푸린다. 나무 있는 곳과 안당주나 절당주에게는 그 수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가을에 벼베는 품삯을 기준으로 하여 수고료를 차등있게 준다. 축관은 글깨나 읽고 학식이 있으며,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고 있다.

마을 제사에 드는 바용은 예전에는 풍물을 차서 가가호호 밟 한되씩을 추련하였으나, 6.25이후에는 기독교 신자의 증가로 때마다 현금을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다. 제물은 안당주가 목욕제례하고, 아침 일찍 모란장에 가서 반드시 처음 들어 간 집에서 사는데, 가장 좋은 물건으로 비싸더라도 깎지 않고 산다고 한다. 절당주 2명도 역시 목욕제례하고 볏짚 6단으로 이영 2개를 각각 만들어 산신당에 가서 터주가리를 보수한다. 그리고 터주가리안에 보관되어 있는 제기를 지게에 쳐서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샘물에 가서 씻어서 안당주의 집으로 가서 제물을 장만한다.

마을제사는 장신제를 먼저 올리는데, 밤 10시쯤 떡 1시루·막걸리·통복이 1마리와 함께 원새끼풀과 창호자를 준비하여, 떡시루 위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창신나무에 창호자와 북어를 새끼풀로 매어 단다. 안당주가 절을 2번 올린 다음에 떡을 조금씩 매어서 “고시래”하면서 사방에 버리는 것으로 끝낸다. 다시 안당주의 집으로 돌아 와 산신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산신제의 제물은 대추·말·감·백설기·조라술(감주)·소머리로서, 그밖에 소지종이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소머리 대신에 소의 앞다리와 뒷다리 하나씩을 사용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전설이 끝나면 옆에 불을 피워 놓는다. 안당주가 조라술을 따르면 절당주가 받아 백설기시

부 위에 놓고, 일동이 부복하면 축관이 고축을 올린다. 소지는 안당주·곁당주·축관·이장·반장 이하 주민들 모두 올려 주며, 끝나면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이어서 안당주의 집에 내려 오면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 결산을 하고, 대동회의를 한다.

축문은 서리와 도적을 물리치고 육축을 번성하게 하며 오곡이 풍성하고 날씨가 순조롭게 되기를 토지신과 산천의 신령에게 비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I. 가신신앙

1. 설문지 조사결과

<표3> 가신신앙有, 無

	과거에 모쳤다	안모셨다	현재모신다.	안모신다
성주	9명(15.8%)	42명(73.7%)	3명(5.3%)	47명(82.5%)
조왕	7명(12.3%)	44명(77.2%)	3명(5.3%)	47명(82.5%)
터주신	12명(21.1%)	40명(70.2%)	5명(8.8%)	46명(80.7%)

위에서 살펴본 설문지 조사결과 상으로는 가신을 과거에는 21.1%정도 현재는 8.8%정도 모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관행상에서 가신을 모신 神體는 없으나 매년 봄이나 가을에 김안신에 대한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집안신에 대한 관념이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설제로는 설문지의 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가신고사¹²⁾의 설제모습

12) 주민들은 가신고사를 정월에 하는 것은 정월고사라고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가을 고사라고 한다. 정월달에 하는 것은 보통 섯달에 흰벽을 할 때 같이 박살을 해서 초사흘날 쭈 지낸다. 만약 누가 죽거나 무슨 동물을 잡거나 부정이 끼면 못한다. 가을 고사는 햇과를 추수하나니 가신에 감사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다. 부정이 어떤 안한다. 가을고사의 세월은 보통 시월상달 말날이나 월지날에 많이 하는데 만일 10월 상달에 못하면 동지달에도 행하나 첫달은 벽은 달이라고 해서 안한다.(백현주민 환은네짜리 대답에서)

이 마을에서 가신을 모시고(성주를 거실 들어가는 출입문 위의 벽에 모심) 설제고사를 하고 있는 집을 본인이 직접 만나본 때은 김성배씨 댁과 이광범(70세 연안이씨)이다.

1) 이광범씨 댁의 경우

가신을 봄에는 음력 3월에 날을 잡아서 하고, 가을에는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한다. 전에는 집에서 절구동에서 직접 빨을 짜여 고사妣을 하여, 대청, 부엌, 대문 등지에 가서 비손 하였으나 지금은 대청에서만 간단히 한다고 한다. 이광범씨 의하면 대체로 이 지방에 뿌리를 내렸던 토박이들은(특히 농사를 짓는 집들은)가신 고사를 한다고 한다.

2) 김성배씨 댁¹³⁾의 경우

김성배씨의 처 이상숙에 의하면 음력 10월상달 초에 시어머니가 대일하여 고사를 한다고 한다. 고사는 보통 오후 4-5시쯤에 방앗간에 가서 고사妣(쌀 한 말 정도, 한 시루)을 하고, 북어, 설, 清水, 술(막걸리2통), 과일 등으로 고사상을 준비하여 家長이 절을 세 번하고 대문, 광독, 부엌, 변소에 막을 한 점 시 놓았다가 떼어놓고 북어와 설을 현관 문 위에 달아 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숙의 반대로 고사를 치내는 것을 본인이 직접 참여관찰하는 것은 거부당하였다.

본인은 따라서 다른 집을 물색하고 있는 도중 마침 백현동에서 가신 고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11월 19일(음10.1) 아침 8시에 홍대석(47세)씨 댁으로 찾아가서 다행히 가신고사를 참여관찰할 수 있었고, 홍의 모친 한은녀(백현동출생, 76세)로부터 가신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3) 독실한 불교신자 집안으로서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도 차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김성배(53세)는 관교 태생.

그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루 방문 드나드는 곳 앞(방문 앞)에서(설주께) 상(상은 고사먹시루와 막걸리 촛불만으로 간단히 차려 놓았다.)¹⁴⁾을 놓고 비손하고→ 건너방 문앞에서(걸림개) 삶 놓고 비손→ 안방의 항아리에 (엄대감향아리)에다 떡 한 그릇, 술 한 잔 놓고 비손→ 부엌에 떡, 술 놓고 비손→ 터주(옛날에 터주가리가 있던 자리 지금은 공간이 있다.)에 떡, 술 놓고 비손→ 창팡(잠독위에 떡, 술 놓고 비손, 장맛 좋으라고), 우물에다(용왕께 우물 잘 나오라고)떡, 술 놓고 비손→ 대문에(수비 먹고 가라고 주는 것, 문신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님)→ 차고 앞에(차에 아무 탑없게)→ 찻문쪽에(수비에게 먹고 가라고) ***대문에는 떡을 조금 떼어서 둘러 두고 술은 주위에 뿌리며 다른 곳도 떡을 조금 떼어서 주위에 던지고, 술도 주위에 뿌린다. 남은 떡과 경반은 잠시 후 다시 가져간다.

3) 판교 2동 한옥순씨(이 67세 독실한 기독교인 교회권사) 대의 경우

예전에 한옥순씨가 시집왔을 때는 서부모님들이 터줏가리를 모셨다고 한다. 창독대 앞에 터줏가리가 있었는데 항아리 단지에다 볍씨, 돈, 창호자 등을 넣고 매일 모셨다. 음식을 해서도 먼저 이곳에 바쳤는데 하물며 칼국수를 만들어도 이곳에 올렸다고 한다. 이 터주가리는 조상 대대로 대물려서 계속된 것 같지만 자신이 사길وا서 없앴다고 한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판교 2동의 가신신앙에 대한 설문과 질문조사 결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마을의 토박이의 경우는 가신을 모신 神體가 있거나 신체는 없더라도 봄고사, 가을고사를 통해 가신에 대한 의례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 “대체로 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어 오던 토박이들은 봄고사, 가을고사를 대부분 한다”는 주민 이광범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지인이거나 이 마을에 아주 한 지

14) 다른 집에서는 과인도 차려 놓고 하나, 요즈음 집안 형편상 간단히 차렸다고 한다.

15) 이 부분은 유성훈이 한옥순과 인터뷰하여 조사한 내용을 본인이 개인용한 것임

얼마 안된 주민들의 경우는 거의 가신신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현동이나 하산운동 등의 판교 인근 마을의 경우에도 현재 토막이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가신을 모시거나 봄고사, 가을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⁶⁾

IV. 무속

1. 설문지 조사결과

<표4> 점을 쳐 본 경험

	인원	퍼센트
있다	24	41.4
없다	32	55.2
무응답	2	3.4

<표4-1> 종교인들이 점을 쳐 본 경험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대진회	천도교
있다	7명(15.22)	1명(2.17)	7명(15.22)	0	1(2.17)	1(2.17)	1(2.17)
없다	7명(15.22)	9명(19.57)	4명(8.7)	1(2.17)	1(2.17)	0	0

“점을 쳐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24명(41.4%), 없다.32명(55.2%)이다.

종교인들의 경우는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은 점을 쳐 본 적이 없으며 한 명만이 있다고 하여 그 편차가 매우 심하나 다른 종교의 경우는 무 종교인들의 경우와 같이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교 인들의 경우에 기독교인들과는 반대로 점을 쳐 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하산운동과 백현동의 경우는 본인이 한번가서 간단히 주민 한사람과 만나서 그 현황만을 물어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아야 함

<표5> 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원	퍼센트
목사나 스님같은 사제	2	3.4
사기꾼 같은 사람	16	27.6
무속을 담당한 중요한 사람	13	22.4
기타	27	46.5

<표5-1> 무당에 대한 종교인들의 의식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대진회	천도교
목사나....	1(2.17)	0	0	0	0	1(2.17)	0
사기꾼....	5(10.87)	3(6.52)	1(2.17)	0	1(2.17)	0	2(4.35)
무속을....	2(4.35)	1(2.17)	5(10.87)	0	1(2.17)	0	1(2.17)
기타	7(15.22)	6(13.04)	5(10.87)	1(2.17)	0	0	1(2.17)

"무당1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목사나 스님과 같은 사제로 생각한다는 2명(3.4%), 사기꾼으로 생각한다는 16명(27.6%), 무속을 담당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13명(22.4%) 기타는 26명(44.8%)이다.

종교인들의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무당에 대해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데 반해서 불교인들은 긍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6> 무속에 대한 견해

	인원	퍼센트
없어져야 할 유산이다	15	25.9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29	50
모르겠다	14	21.4

<표6-1> 무속에 대한 종교인들의 견해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대진회	천도교
없어져야....	1(2.17)	6(13.04)	1(2.17)	0	0	0	0
나름대로....	11(23.91)	1(2.17)	7(15.22)	0	2(4.35)	1(2.17)	2(4.35)
모르겠다	4(8.7)	3(6.52)	3(6.52)	1(2.17)	0	0	0

"무속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없어져야 할 유산이다 15명(25.9%), 나

17) 관교 주민들은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관교에 만신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고 한다. 주민 이외동에 의하면 과거 일제 시대에 금도동 궁내동 등 인근마을에 만신이 가주하고 있었으며 관교주민들은 굿이나 점을 할 때는 그 곳의 만신들에게 피뢰했다고 한다.

하며 다른 여타종교에 비해 타종교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여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금기시 하므로 이 또한 분석의 틀로서 유통성이 있겠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연안이씨/비연안이씨의 관계 속에서는 민간신앙에 차이점이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토착민은 민간신앙에 다소 참여적인 경향이 많았으나 비토착민들은 동제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으며, 경월고사나 가을고사를 하는 집도 없었다. 또한 종교 별 현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하여 민간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전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과는 반대로 불교인들의 경우에는 민간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전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巫·佛 습합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밖에도 이 연구에서 과거/현재의 축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은 이 글에서 과거/현재를 대비해 가면서 통시적으로 살펴 보려 했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 또한 연안이씨/비연안이씨, 기독교/비기독교를 구체적으로 대비해 가면서 일관된 체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나 이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이 글의 한계임을 시인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위에서 본인은 동제, 가신, 무속이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조사과정 중 본인이 느낀 점은 관교는 서울 근교에 있고 또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마을 토박이를 중심으로 민간신앙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제 전날 본인이 마을에 왔을 때 보는 부정·말하는 부정·듣는 부정 등 일체의 부정을 폐하고 근신하려는 동네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민간신앙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조사와 멘담조사에서 주민들은 가능하면 민간신앙이나 옛 풍속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건설, 도시화, 외지인의 대량 유입, 농업기반의 붕괴 등은 전통적인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동제나 놀이, 기타 민간신앙 등에 심각한 손상과 변형을 야기 시킬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전도사업도 관교의 민간신앙의 변화에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박순임(상명대 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전통문화교육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
- III. 시민 사회교육의 실태와 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의 성남은 크게 두 개의 문화적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구(舊)성남과 신도시 두 공간은 지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상호 이질성을 날카롭게 드러낸 채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성남이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된 두 부분을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두 개의 배타적인 문화층위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종합하는 相生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시가지 성남은 개발연대의 우리 문화를 상징한다. 구시가지는 최근 상당한 변모를 보여 주고 있고, 차츰 내부적으로 활발한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시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이 아직그다지 높은 수준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성남의 독특한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개발연대의 성남은 외부세계로부터 혼히 문화의 불모지로 알려져 왔다. 도시 빈민들의 뿌리 깊은 삶이 도시의 모태가 되었던 성남은 문화에 있어서도 일종의 연결지대였다. 떠나온 자의 삶, 소외된 소시민의 경신적 꾀꼬리, 삶의 꾀꼬리가 뿐인 도시의 일상, 조악한 균대화의 여러 가지 흡혈, 이러한 부질적인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거기에 활발한 문화운동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윤홍길의 소설이나, 장영수의 시편 등에서 묻어 나오던 성남의 빈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의 가감없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구 시가지의 성남이 스스로의 불리한 문화적 한계를 서서히 극복하고 있었던 80년대 말, 갑자기 신도시의 건설이 결정되었다. 본당 신시가지의 출현이 그것이다. 한국의 평균적 중산층이 대중을 이루는 분당 신도시의 출현은 구 시가지의 도착민이나 새로운 신도시 시민 모두에게 엄청난 문화적 실험을 강요하고 있다. 도착민들은 새로운 이주민들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코드를 지닌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하여 배타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신도시 주민들은 구 시가지를 낙후된 문화권으로 결원시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같은 사회의 시민들이다. 문화적으로는 상호 갈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남의 현 실정이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리된 두 지역을 과연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적인 통합은 양자가 지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통합의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문화의 허나가 우리와 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할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의미 재해석의 가능성은 모색해 보는 것이다.

II. 전통문화교육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

먼저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 교양교육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을 도모하는 방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문화 교육은 시민 교양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다. 최근 우리의 정신문화 유산을 알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욕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준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가 인문학 서적으로 꿈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김용옥 교수의 강의가 인기 절정에 있는 것은 이러한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러한 지적 욕구는 앞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 필수로 더욱 더 확산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는 평면적으로 타 문화권에 대한 폭넓은 접촉과 이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개방화는 동시에 자국 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욕구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 세계 각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필요성은 이제 특정 전문가 집단이나 일부 학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틀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소수 특정집단 안에서만 논의되고 중요시되던 한국문화의 의미를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문화를 좀 더 개방적인 상태로, 생활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순수 학문적인 연구 중심 차원에 안주해서 사회 교육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문화는 일반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매우 고담적인 학문적 담론으로서 폐쇄성을 면하지 못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활성화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한 호기심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층이 무くん히 생성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도 사

실이다. 개항 이후 한국학의 발전 과정은 그 자체 내에 온존한 불건적 요소와 식민성을 극복하고, 학문의 근대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심화해 가고 있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경과해 오는 동안, 전통문화란 새로운 발전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통이란 어차피 폐기되어야 할 남은 것이라는 반전통주의적 정서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 근대 이후의 한국학 연구는 강한 반 전통주의 경향과 힘겨운 마음을 전개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전통 그 자체를 명목적으로 추구하는 수구적 전통주의자와도 상당한 불화를 경험하였다. 구한말 서구 문화의 유입은 전통 문화의 내용과 형식 일체를 문제시하는 반 전통주의의 흐름과 같은 충돌을 경험하였다. 서구문화에 입도당한 근대론자 중에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의 원인을 전통적인 요소에서 찾음으로서 그것과의 급격한 단절을 쳐하고, 그 공백을 완전한 서구화로 메우고자 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반전통주의적 경향은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는 것이었고, 일제 이후 한국학의 과제는 이러한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데 최대의 에너지를 소비하여야 하였다.

이와 함께, 상업성과 공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통과 전통문화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문화가 우리의 현재적 삶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러한 회의는 “한국의 전통적 민족문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화일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¹⁾ 특히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가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표방되는 현사회에서 과거와 전통이란 자칫 민족주의 경서를 활기할 수 있는 국수적 이데올로기로 매도될 위기에 있다.²⁾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 체계(Cultural Identity)이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문화의 순수성만을 고집해서도 안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세계문화의

1) 남경희, “가족유사적 연속체로서의 민족문화”, 『문화철학』, 한국철학회판, 1995년, 187면

2) 정준우, “한국전통사상의 문화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제21집, 1999, 20쪽 참조.

한국화를 통하여 성장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세계적인 의사 소통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교차문화적 이해(Cross Cultural understanding)와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시각의 교육도 필요하나, 문화정책성을 개발 발전시키려는 교육과 더불어 이를 교육을 위해 '한국적'인 것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³⁾는 설명은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우리가 추천하고자 하는 시민 교양교육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양교육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로 삼되,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가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상태로 빠지지 않고, 세계문화와 함께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원칙 속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전통과 전통문화를 하나의 폐쇄되고 완결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단일한 이미지로 고정된 것으로 알리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과거와 전통도, 그것을 해석하는 현재의 觀點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열린 문화 체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⁴⁾ 우리는 여기에서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動詞"라는 반퍼슨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하나의 문화는 변환불가능하고 고정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허락하는 개방적 형태라는 것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에서 이러한 개방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교재와 방법론, 그리고 비교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성남에는 한국학 연구 기관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연구자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은 세계문화와 타자를 함께 이해하는 열린 형태의 운동을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학의 성립은 他者와 존재

3) 한명희, "정보화 시대의 문화 문제와 교육의 과제",『교육철학』 제21집, 1999, 15쪽

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준우, 상계논문, 20쪽 참조.

5)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강영안 역), 새광사, 1994, 21면, 132 참조.

를 인식하면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학의 전통에서 단재의 '역사의 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我力은 他力 혹은 非我에 의해 그 존재가 규정되어 진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가 我와 非我의 구별 속에서 조선학의 성립가능성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한국학의 방법론에 엄청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학은 자국 중심의 고립적이고 계획적인 논리체계 속에서는 결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또한 他力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我'의 성격도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我'는 카멜레온의 변신과 같이 수시로 그의 신원을 달리 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적 我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상에 있어서 언제나 상속성과 보편성을 담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한국학은 타문화와의 끝임 없는 교호 작용속에서, 他力を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식 체계로서 일정한 보편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⁶⁾

이와 같은 사실은 세민교육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국수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 문화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그속에서 문화적 동일체의 기쁨을 확인함으로서 새로운 문화해석의 가능성 을 열어 두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세계는 각국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 와 상장을 내세워 타국과 경쟁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패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서 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문화는 주로 정신적인 면을 자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문화라는 개념이 매우 확대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 펠은 "좁은 문화개념"에서 "넓은 문화개념"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문화는 자본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계화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브람스,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문화를 제 4의 자본 으로 인식하고 경제 발전론에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도입하려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측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순후, "한국학의 역사성과 개념"(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비간행 참조.)

다백제 시대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유품으로 내세우면서 자국의 문화 내지 문화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⁸⁾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문화상품을 경제적 및 경제외적 편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외적 편익이 문화의 본래적인 가치이므로 경제적 편익보다는 중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꿈과 정책도 고용이나 소득 창출의 목적으로 문화정책을 암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마인드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자본이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 소르탕 (Guy Sorman)이 주장하고 있듯이, 현대인들은 상품을 그 기능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속에 녹아 있는 문화적인 상징이나 이미지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고문헌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것을 통해 꾸준히 시민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미 문화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있는 규장각은 이미 외국의 학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과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문화와 비교되는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말하고자 할 때, 규장각은 이미 대단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에 산재한 문화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 산성도 훌륭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성남시에 위치한 장서각도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서각의 의미는 단지 옛 왕실 도서를 보관하는 수장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서각도 하나의 문화자본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장서각은 우리의 문화전통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관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장서각은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그러한 지적인

8) 전태수, “21세기 한국경제와 전통문화의 역할”,『문화경제연구』 제2권, 1999, 6쪽

9) 전태수, 삼계논문, 19쪽

욕구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서각은 고물한 박물관의 기능과 함께, 옛 문헌에 담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

성남시가 지닌 또 다른 장점의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문화환경과 잠재적 수요자층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은 이미 서구적 거주 환경 속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과 생활 양식에 대해 살달한 문화적 간증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자라는 세대들에게도 마땅히 전통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공간이 사실상 없다. 이와 함께 문화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고유한 한국적 모델을 찾고자 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된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시민 사회교육의 실태와 방향

지금까지 성남지역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상대적으로 그 활동이 부진하였다. 최근에 들어 각 공공기관이나 백화점 등에서 문화교실을 열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교육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성남 문화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변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문화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학교 등 제도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문화원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 기관을 활용해 실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학교의 사회교육 기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하나는 지역 사회 주민 또는 단체들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또는 사교적 프로그램을 학교가 직접 계획, 운영하는 일이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실험적인 형태로 실시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10) 황종건,『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정민사, 1994, 10쪽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대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국가적,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즉 사회나 국가목표 달성을 측면에서 사회 복리 수준 측정의 기준으로 취급되는 '생활수준'에 관계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매우 주관적 판단일 수 있는 개인의 생활 방식의 우수성의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다.¹¹⁾

성남시에서 시행할 교양 교육은 그 형태는 사회교육의 방식을 따르되, 그 추구하는 목표는 시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에서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과 단체들을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에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학교교육 혹은 제도교육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제도적인 경직성, 조직의 관료성, 형식화된 교과 과정 등 제도교육의 역기능적 현상이 시민 교양교육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 같은 문화공간도 이용 방식에 따라서는 철저히 비교육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정(大正) 12년에 소위 제국지방행정학회(帝國地方行政學會)라고 하는 단체에서 죽민자 지배를 위해 편찬한 『民衆之教化』라는 책에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때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유물의 합법적 수탈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일선동조론(日鮮同調論)을 강화하고 노예의 정신을 조선인에게 주입하기 위한 帝國主義的 방편으로 박물관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박물관과 같은 문화공간이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박물관을 어떠한 정신으로 운영하느냐, 어떻게 역

11) 황중건, 『상계서』, 17쪽

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박물관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실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박물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도 교육과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相補的인 관계라는 평범한 사실의 확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립 박물관을 포함한 여러 박물관들이 각종 전시나 고적답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각종 공공단체나 기업들도 다양한 교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눈에 띠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70~80년대 이후 국립 박물관과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 등이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자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어 박물관 강좌나 행사는 다른 사회교육 프로그램보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¹²⁾

특히 박물관은 사회교육을 통해 현재 교육개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³⁾ 특히 성인들의 경우, 형식적인 정규학교는 그 접근이 쉽지 않아, 비형식적 교육기관인 박물관을 통해 관련 지식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평생학습社会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¹⁴⁾

우리 나라에서 박물관을 이용해 사회교육을 실시한 역사는 매우 길다. 기록에 따르면, 1954년 10월 국립 박물관 경주 분관에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시작했다. 이 박물관 학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아니었지만, 매주 토요일 초·중학생들에게 답사와 강좌, 미술실기대회나 예술제 등을 통해 경주의 문화재를 습득케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4년 40주년에 이르기까지 초등부 40기와 고등부 12기로 무려 3,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¹⁵⁾

12) 안휘준, "한국 사회미술교육의 문제와 대처", 『한국의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3) 이혜주,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과 그 개선방안", 『사회교육학』, 제5권, 1997.7.

14) 이혜주, 상계논문 참조.

이러한 박물관 교육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사회교육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특설강좌'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7년, '박물관회'가 발족되면서 개설된 박물관 특설강좌이다. 본래 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의 학예직과 여타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40명 정원에 1년 과정 2학기제로 개설되었다. 고고학,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을 중심으로 총 50개 강좌로 커리큘럼을 짜고, 지침 노트의 사용과 평가를 통한 이수과정까지 마련하였다.¹⁵⁾

그러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까지 수강 신청에 가세하여 502명이나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신청자 중에서 230명을 선발하여, 60명으로 구성된 한 반은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다른 한 반은 160명으로 자연스럽게 성인 교양강좌로 변모하였다.¹⁶⁾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이 시기부터 문화강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증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렇게 개설된 박물관 특설강좌는 1982년부터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본격적인 사회교육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매년 약 400명 가량의 수강생을 받았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가정 주부의 참여가 높은 관계로 30~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참여한 계기는 대개 이전 수료자들의 권유로부터 비롯되고 있다.¹⁷⁾

1987년부터는 별도의 교육관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박물관 노인학교, 주부교실, 공사람 박물관 직원연수와 중등교사 연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본격적인 문화학교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움직이는 박물관을 운영하여, 오지의 초·중등학교를 방문하거나 노동자를 위한 꿈창지대를 찾아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복제 유물들과 안내 설명판을 만들어 차내 전시나 옥외 전시를 마련하고, 문화영화를 상영하며, 박물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⁸⁾

15) 이태호, "현단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교육철학』 제18집, 1997, 28쪽

16) 이태호, 상계 논문 36쪽

17) 이태호, 상계논문, 37쪽

18) 이태호, 상계논문, 37쪽

참고로 1998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강좌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²⁰⁾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강좌

강 좌 명	내 용
도요(역사·문화)강좌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한국의 전통 등 강의 및 고궁답사
박물관 특설강좌(22기)	한국사의 흐름, 언어와 문화, 한국도자기, 석조미술 등 강의 및 고적답사
주부 문화강좌(제4기)	한국전통문화, 현대사회와 체네교육 등 강의 및 문화유적지 답사
노인 문화강좌(제20기)	한국전통문화, 건강한 생활 등 강의 및 문화유적지 답사
박물관 도자고상	도자 이론 강의 및 실습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	박물관 공부, 전시실학습, 문화재 모형만들기
어린이 및 청소년 박물관 교실	박물관 공부, 역사·문화일반·강의 및 전시실 학습, 문화 유적지 답사
초·중등교사(문화)연수	선사문화의 흐름, 문화재의 이해와 관리 등 강의, 전시실 학습 및 문화유적지 답사
관광종사자(문화)연수	역사, 문화일반 강의 및 전시실 학습, 유적답사
박물관 현장학습	박물관 공부, 문화영화 관람
어린이 문화재미술체험기대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찰하여 그림
동작미는 박물관	자녀 전시, 육외 전시, 문화영화 상영
박물관 전통연예교실	전통연예의 이론 및 실습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러한 박물관 대학의 운영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립민속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속박물관의 특설강좌의 경우, 우리의 전통민속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 실기 교육과 문화유적 답사를 주 내용으로 하여 모집인원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혜택을 소외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민속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청소년 민속강좌, 주한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교실, 할머니·손녀 공예교실 등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과 지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 있다. 또한 민속 박물관의

19) 이태호, 상계논문, 39쪽

20) 이세주,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과 그 개선방안, 『사회교육학연구』 제 5권, 1997, 제11권.

특성을 고려하여 정월 대보름 축놀이 대회, 단오걸 행사, 장승제 시연, 전통 민속놀이 마당 운영 등 심로 다채로운 기회를 통해 민속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을 들 수 있다. 이 박물관은 1995년에 개관한 사립박물관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박물관 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일부 대학 박물관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대학 성인강좌'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부터 하기별로 개설하고 있는 영남대 박물관 강좌의 이수자들 사이에 기면 동장회가 설립되고, 강연회 개최, 국내외 학술답사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1992년부터는 인류학·민속학과 고고·미술사 분야로 나뉘어 중급강좌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²¹⁾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물관과 일선 학교교육의 교과과정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교육 목적에 의한 박물관 활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²²⁾ 그러나 현재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 가입교만 77개교에 이르고, 전국 행정구역의 도 단위별로 2~3개의 대학박물관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대학박물관이 활용될 경우, 대학교육 목적 외에 국민생애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사회교육이 더욱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²³⁾ 매우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한편 박물관교육과는 별도로 각 대학은 사회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교육은 그 강좌의 성격이 차츰 지나치게 대중적이고, 영리위주로 판증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예로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

21) 성태규,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박물관 대학 강좌", 『고문화』, 45집,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1994.

22) 나선화, "박물관 교육의 특성과 역할", 『교육철학』, 제21집, 1999, 247쪽.

23) 나선화, 상계논문, 249쪽 참조.

원의 경우, 그 교육과정이 난 기르기, 여성 이미지연출, 품수지리, 종이 접기, 스포츠마사지, 공연 중계사, 예방의학 선도 협력법, 바둑, 서예, 인터넷 등 기능적 지식을 기르기 위한 강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예외가 아니다. 창원도에 위치한 K대학의 경우, 99년 가을 학기의 강좌는 교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언어교육과정, 생활예술체육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강좌의 구성은 대체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교육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남에 위치한 K대학의 사회교육원도 교양과정, 언어교육과정, 생활예술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교과 과정은 시 등단, 컴퓨터, 생활도예, 영어회화, 마케팅원론, 시각디자인 등 매우 기능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사회교육원 운영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실적 요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대학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예로 기독교, 불교, 유교 등 각 종교단체에서는 그들 종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교리나 전통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한 임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강좌를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이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선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종교 단체 이외에, 각 지역의 공공단체나 지자체 단체가 있다. 이를 기관들은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꼼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도 비교적 높다.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우선 각 시·군에 자리한 문화원을 들 수 있다. 문화원은 각 시·군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그 운영 실태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시·군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문화원은 그 운영에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원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진해시 문화원의 경우, 그 교육사업을 보면, 청소년 문화유적지 답사, 항토유적지 학생자원봉사, 고양문화 초청강좌, 항도 사묘지 발간, 사화랑 봉수대 복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강좌의 경우에도 컴퓨터 강좌, 서예교실, 미술교실등의 취미교양교육 이외에도 오광대 탈춤과 같은 전통 민속놀이 전수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그 지역적 특색을 확보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각 지역 단체의 이러한 시민교양교육은 지자체의 정착과 함께 양적으로 매우 확대되고 있다. 예로 광주 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금호교육문화관의 경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려 33개 강좌, 35개 번이 운영되는 성황을 보여 주고 있다. 교양, 컴퓨터, 어학, 가정생활, 국악, 건강, 미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시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는 공공 도서관이나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시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예로 서울의 강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여성센터의 경우,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공공적 성격을 띤 시민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사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우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강좌의 질적인 수월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진작성은 있으나,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이 경우가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다. 1980년대 이후 문화센터는 각종 언론기관, 백화점, 또는 사회 단체에 의해서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형 사회교육은 자본에 논리에 의해 문화가 구성되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형 문화활동, 혹은 백화점식 사회교육의 등장은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홍보와 충동을 만족시키는 상업적인 프로그램이 '문화' 또는 '사회교육'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그러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

24) 황종건, 상계서, 26쪽

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우선 국립 박물관은 물론 대부분의 공사립 박물관에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교육 담당 전문인력이나 부서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박물관의 인적구성도 고고학이나 미술사 전공의 연구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²⁵⁾

미국의 경우, 박물관은 지역사회와의 중추적인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박물관 관람은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정착화되어 있다. 과거 미국 박물관들의 주요 기능이 수집해온 소장품들을 잘 정돈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가장 큰 기능은 소장품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가치와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²⁶⁾

미국의 박물관 시스템이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의 인적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박물관은 학예사(curator)가 주축이 되어, 보조원(assistant curator), 조사원(researcher) 등이 협력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 도서실 사서(Librarian), 작품 등반원(Registerar), 전시설계사(Museum designer)가 보조를 끊이 한다. 그리고 박물관 보급교육은 교육원(educator)이 맡고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은 자원봉사자(Volunteer)가 담당하여 관람자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에 맞추어 해설, 안내를 맡고 있다. 이런 전문직들의 활동이 박물관의 구성 중 건물, 유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²⁷⁾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박물관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많은 박물관들은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른 바 '핸즈-온'(Hands-on) 할 수 있는 컬렉션을 전시고 있다. 이 전시 기법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물을 자유롭게 만져보거나, 조작해 볼 수 있는 표본이나 소장품들을

25) 이태호, *상계논문*

26) 임종덕, "미국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제18집, 77쪽 ~89쪽

27) 유흥준, "전시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길은 없나", *『교육철학』*, 제18집, 1997, 53쪽

특정한 전시실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²⁸⁾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디스커버리'(Discovery)전시실이나 네브라스카 주립 자연사 박물관의 '만남의 장소(Encounter Center)' 등이 전형적으로 템즈 안 할 수 있는 특별 전시실이다. 이러한 체험 전시의 특장은 만져볼 수 있는 전시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실 내부 전체의 분위기에도 많은 배려를 하는데 관람객이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시물의 배치와 조명, 방안의 색깔까지도 일반 전시실과 구별하고 있으며, 특히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줄 수 있는 교육담당관이나 차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정확한 답변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준다. 혼자서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도록 관계서적이나 보충자료를 많이 구비해 놓고 있다.²⁹⁾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관람객들이 주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에 접하게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역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 특히 전시 내용이 딱딱한 역사 관련 문화 유산은 그것을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대표적인 예를 일본의 에도도쿄박물관 (江戸東京博物館)에서 볼 수 있다.³⁰⁾ 이 박물관은 점차 밟아가고 있는 항도의 문화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장소로 선정되었다. 일반 전시물의 전시 이외에 영상이나 음향 장치를 활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전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는 에도 동경의 역사적 전개의 줄기를 분명히 구분하여 주는 '에도실', '동경실', '통사 전시실'로 나누어, 각각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민족적 정체감을 살려 주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자나 외국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 수신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가이드북이 바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관람자의 회망에 따라 전시물을 고밀도 화상(하이비전 TV)으로 즐길 수도 있다. 한편 회의실, 학습실 등에는 동시 통역 설비나 비디오 프로젝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국제 회의나 강연회, 강습회 등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전통 예술감상회, 영화 상영, 체험 교실, 각종 강좌 등이 개최되고 있다.

28) 임종덕, *상계논문*, 80~81쪽 참조.

29) 임종덕, *상계논문*, 81쪽.

30)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해주, *상계논문* 참조.

우리 나라 박물관 교육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는,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각 박물관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³¹⁾ 시민교육을 담당할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리라 본다. 시민들이 요구와 관심에 항상 응답하는 성의 있고 유연한 기회가 필요하리라 본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꿈같기관과 도서관 등에 소장된 고자료는 향구적인 보존과 관리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만 않는다면,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꼴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다양한 교육기관의 경우를 검토해 보았으나, 일반시민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여 오히려 본래의 순수한 문화교육의 이념을 해손하지 않도록 향상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수의 시민 교육이 명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꿈공생의 해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형 사회교육은 자본에 논리에 의해 문화교육의 근본이념이 해손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IV. 끝말

본고에서는 오늘날 성남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인 구 시가지와 신도시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두 지역이 서로 相생활 수 있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두 문화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확산시킬 것과, 전통문화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성남시내에 독자적인 전통문화 박물관 등의 건립과 함께, 그러한 기구를 통한 시민교육의 구체적 실마스 등을 타 문화기관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는 성남 문화권내에 산재한 문화유적들을 과감하게 문화 자원화하여 새로운 문화자본으로 동원하는 적극적인 노

31) 자세한 논의는 이예주, 상계논문 참조.

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신구 시민이 동반 참여 함으로써 물필요한 상호 간등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방안

지교현(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목 차

I. 서 론	2. 노인복지의 유형
II. 노인복지문제의 대두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
1. 노인의 차이	IV. 성남시 노인인구의 동향과 노인 복지정책
2. 노인문제의 대두	1. 노인인구의 동향
3.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
III.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복지	V. 결론 : 성남시 노인복지정책 강 화를 위한 제언
1. 기본이념	

I. 서 론

노인의 복지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과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고 「노인복지법」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공권력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경로'라는 말은 노인을 공경한다는 말이고 '효친'이라는 말은 아버이에게 효도한다는 말로 해석되며 경로는 사회적 성격을 띠는데 반하여 효친은 혈연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로'라는 말에서 가리키는 '노인'이라는 것은 '효친'이라는 말에서 가리키는 '아버지'와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로와 효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때때로 중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찍이 '나의 늙은이를 늙은이로 공경함으로써 남의 늙은이를 늙은이로 공경한다'는 원리를 배웠고 그것을 실천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늙은이'는 나의 아버이를 가리키고 '남의 늙은이'는 남의 아버이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나의 아버이를 아버이로 공경함으로써 남의 아버이도 나의 아버이처럼 공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혈연적인 가족윤리로서의 효친이 사회윤리로서의 경로로 확대된다는 것이며 가족윤리로서의 효친이 사회윤리로서의 경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버이의 자녀로 태어나 아버이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버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여기서 자녀로 태어나고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은 자녀가 아버이를 육체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자녀는 아버이를 훌륭하게 계승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경전(經典)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전들은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은 유교경전 불교경전 천도교경전 도교경전 관성교경전 기독교경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경전에 속하는 『효경』에서는 효도를 덕의 근본이고, 사람의 행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하고, 효는 아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로 나아가서, 입신(立身)으로 마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효도를 덕의 근본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 뜻이 간단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버이를 계승한다는 것, 또는 아버이를 잘 섬긴다는 것이 단순한 가족적 혈연적 윤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얼핏 보면

가족적 혈연적 유통으로 보이기 쉬운 효도가 임금을 섬기는 태도 나아가고 입신행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임금을 섬기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끌어 나가는 공직자가 되어 현실하는 것이며 입신하고 행도(行道)하는 것은 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효도가 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효경』에는 천자의 효, 계후의 효, 경대부의 효, 선비의 효, 백성의 효가 각각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다시 간추려 말하면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던지 자기의 지위에 알맞는 덕행(德行)을 실천하는 것이 곧 효도라는 것이다.¹⁾

불교경전에 속하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는 효도에 관한 내용이 각 약작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경전은 중국에서 찰술된 위경(魏經)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조에서도 이를 여러차례 간행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²⁾ 이 경전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①자식을 양태하여 지켜주신 은혜 ②해산할 때 고생하신 은혜 ③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은 은혜 ④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여신 은혜 ⑤마른 자리엔 야기를 놓히고 젖은 자리에 누우시는 은혜 ⑥젖을 먹여 기르신 은혜 ⑦더러운 것을 쟁여주신 은혜 ⑧자식이 멀리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⑨자식을 위해 악업(힘드는 일)을 하는 은혜 ⑩자식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 등을 열거하고 있다.

효도는 본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일종의 보은(報恩)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은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치극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크게 분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기타

1) 유교의 경전에서는 『효경』 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 『예기』 『시경』 『춘추』 『서경』 『주역』 『공자기어』 등에서도 효의 내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원래본은 명종8년(1553), 18년(1563), 선조25년(1592), 인조13년(1635), 현종9년(1668), 숙종2년(1676)에 간행된 바 있는데 김홍도의 삽화가 들어있다.

경전의 효도에 대하여는 생략키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경전 외에도 효도에 관련되는 자료는 우리 나라의 사기류(史記類), 삼강행실류(三國行實類), 향약류(鄉約類)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삼국유사」 효선편에는 전정사 향득³⁾ 손순 대성 빈네양모파 기록이 있으며, 「동국신속삼강행설」에는 손순 성각 향덕 치은을 비롯한 많은 효자와 효부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행은 「고려사」 「동국신속삼강행설」 「조선명문록」 등에도 잘 서술되어 있고, 향약(鄉約)의 4대의목(강령)에 속하는 덕업상권(德業相勸)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계열 먼저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어제백행원」(御製百行源)과 고전시가류(古典詩歌類)와 한국구비문학(韓國口譜文學)에도 효도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경전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존중되는 성인들의 말씀(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요, 사기류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요, 삼강행실류는 윤리적 규범을 서술한 것이요, 향약류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위한 주민들의 생활규범이요, 「어제백행원」은 행실의 근본을 말한 제왕(帝王)의 저작이요, 고전 시가류는 옛 선비들이 지은 시가(詩歌)집이요, 한국구비문학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민간에 전해 오는 설화(전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헌이나 설화에 효도사상이 포함되어 전해오는 까닭은 무엇이며 오늘날에도 효도사상이 중요한 윤리적 규범으로 중시되고 강조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도사상을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부모)를 위한 미래(자녀)의 희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이요, 효도의 핵심 원리와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비인도적이고 폐관적(悖諺的)인 판단이다.

효도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폐관적인 판단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성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성의 상실은 비인도적이고 폐관적인 판단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3) 향득(向得)은 향덕(向德)을 가리키는 것이며 본디는 '장덕'으로 읽는다.

지금 우리는 효도정신의 퇴락현상을 통하여 인간성의 상실을 체험하게 되고, 뇌물한 인륜을 통감한다. 본디 효도의 윤리는 가족윤리의 윤타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늙은 부모들은 백안시되고 소외되고 도단에서 신음하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다.

II. 노인복지문제의 대두

1. 노인의 지위

노인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고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절음을 바치고 이제 기억이 쇠퇴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모(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낳아 놓기만 하고 기르지도 않고 교육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녀를 낳아 놓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도 부모가 기르고 교육하는 일을 국가나 사회가 완전히 맡아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핵심으로 하는 가정을 떠나서는 건전하고 유능한 국민이 양성되기 어렵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며 그처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활동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곧 노인들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모들보다도 자식을 위하여 많이 희생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를테면 엄청난 공교육비를 부담하여 학교를 보내면서도 그 외는 별도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18세만 되면 자식을 성인(成人)으로 인정하고 자력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게 하며 자력으로 혼인도 하고 가정도 꾸미게 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부모가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을 시키고, 혼인을 시키고, 살림까지 차려주는가 하면 그 후에도 계속하여 식량이나 부식을 보내고 심지어는 금전으로 도와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자녀가 아무리 힘겹더라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보다는 무엇으로든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들이다. 이런 결과는 자녀의 의과실이나 나태심을 조장하고 사치심과 낭비벽을 조장하게 되며 부모의 경제적 화생을 초래하기 쉽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심지어는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모의 재산을 텅掏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재산일 뿐이고 자식이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호의호식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철하고 합리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자식으로 말미암은 부모의 경제적 과단이 수반된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부모의 화생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안다. 초등교육을 거쳐 중등교육을 마친 것만으로도 그리고 대학교육을 마친 경우는 더더구나 말할 나위가 없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교육비는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 대학에서는 더 한층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자녀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부모들은 진정으로 부모의 대접을 받으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화생을 지극히 담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가 많다. 이번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끔찍으로 여긴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더 많은 유산으로 흥청거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여 권리도 없고 재산도 없는 자신의 부모를 형편없이 낮추어 평가한다. 충분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폐적한 의식주생활

을 누리도록 부모를 도와드리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부모가 더 도와주고 더 남겨 주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부모를 괴롭히고 형제자매들과도 반목하고 싸우기도 한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회자할 곳이 없고 간 곳이 없어서 거리를 망황하거나 공원으로 모여들어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 한 끼를 대접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다. 도시에 나간 자식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를 잘 찾아가지 않고 안부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는다. 돈이나 준다면 달려가지만 그밖에는 항상 바쁘다고 외쳐낸다. ‘효도’는 책 속에나 남아 있을 뿐 자식들의 마음 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형제나 친족끼리도 충고하거나 나무라지 못한다. 만일 충고하거나 나무라기만 하면 불변을 당하기 쉽다. ‘당신은 얼마나 효도했느냐?’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쳐라”라는 반격을 당한다.

이이(李珥)가 임의(立議)한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떠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대과악(大過惡)이라고 하여 범법자를 관찰에 고발하고, 계에서 제명하고, 말도 주고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낫을 불하며 대어드는 행위, 순종하지 않는 행위, 불양하지 않는 행위, 제사를 염숙하게 지내지 않는 행위는 그 범인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고, 부모 앞에서 단정히 앉지 않고 걸터앉기만 하여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도록 하며, 만일 이러한 처벌에 불복하거나 개과천선할 뜻이 보이지 않으면 관찰에 고발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모에게 낫을 불하고 대어드는 자식이 얼마나 많으며, 불양하기는커녕 제주도와 같은 먼 곳에 유키하거나 망로원에 유키하는 자식은 그 얼마나이며, 불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자식은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살해하기도 하는 사례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지 않는가.

한국의 노인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한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멀리 벗어나 국가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이다. 자식을 위하여 팽성을 희생하고도 존경을 받기는커녕 무능력자요, 질스런 존재요, 빨리 숨을 거두어야 할 존재로 자식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한국의 노인들이다. 그들은 고독과 질병과 경제적 궁핍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다.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⁴⁾

2. 노인문제의 대두

이 연구에서 말하는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뜻하는 까닭에 노인의 개념이 분명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지 않은 수가 많다. 많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때로는 생리적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말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고 멋맞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이를테면 1960년대 이후로 젊은 지도층이 부상함으로써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퇴진하게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은 늙은 것을 감추기 위하여 두발을 염색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참신하고 선진적인 신지식인 계층을 이루는 젊은 인재들이 지속적이고 대량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사회의 공공기관과 단체와 직장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점점 권위를 잃고 말았다. 여기서 나이 먹은 사람은 연령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미 일정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노인'의 개념은 노인이 속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항상 상이할 수밖에 없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의 개념을 정의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4) 1982.7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강조한 내용과 같다. 노정복『한·중·양국 노인복지의 제도사적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3~4 참조.

- ① 생리적 육체적으로 뇌화기에 있는 사람.
- ② 심리적으로 퍼스널리티의 기능(정신적 기능)이 침퇴하고 있는 사람.
- ③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하는 사람, 즉 과거에 누리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⁵⁾
- ④ 노인이란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작기능에 결함을 가진 사람.
- ⑤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침퇴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⑥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침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⑦ 생활체의 적용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⑧ 조직 및 기능의 침퇴로 적용 침퇴현상에 있는 사람.

을 가리키기도 한다.⁶⁾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개념은 실체로 완전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수반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사안(case)에 따라 보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역시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며 대체로 60세가 기준이 되는 수가 많다. 이것은 ①국민연금 지급기준이 60세이고 ②『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전통적으로 60세(만나이)를 최갑으로 기념하고 있으며 ④196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6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60세를 노령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⁷⁾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문제는 이미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류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노인문제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이행한 근대적 산업사회에서 뚜렷이 대두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인류는 서구의 산업화에 뛰어어 앞을 다투어 산업화의 과정을 밟아 오고 있으며 그 산업화의 과정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온 세계가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느니 만큼 노인문제의 발생은 온 인류의 문제임에 틀림이

5) 이것은 Leonard Z. Breen 의 견해이다. 노경록, 같은 논문 p.5 참조

6) 1951년 제2회 국제노령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의 견해이다. 노경록, 같은 논문 p.5 참조

7) 노경록, 같은 논문 p.5 참조

없다.

오늘날 선진산업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가출(家出)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버제스(E.W.Bugess)는 이를 산업혁명 이후의 모든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생산장소가 가정에서 공장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가정은 중요한 생산단위였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하나의 단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생산의 장소가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가정을 단위로 하는 가족의 유대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농촌의 생활양식이 점점 도시화한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농촌인구는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농촌인구는 격감하고 도시인구는 격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종전에는 농촌지역이었던 곳이 대규모의 신도시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된 가치관과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던 생활양식이 변모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과 가치체계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도시는 구성원의 학력이나 기능이나 역할이나 취미가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농촌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족은 주로 부모와 자녀라는 두 세대의 가족을 넘어서 조부모나 증조부모도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확대가족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가족은 그 구성원의 일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업과 직장을 찾아 도시로 옮겨감으로써 점점 축소되어 소가족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젊은 부부와 그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고 늙은 조부모나 증조부모들은 농촌에 남아 있게 되고 농촌에 남은 노인들(조부모나 증조부모)은 생산능력도 없거나 도시로 나간 가족과의 관계와 역할이 거의 단절되고 만다. 여기서 경로효친의 실천적 계기가 적어지거나 아주 단절되

고 대가족제에서 생성되고 지배되는 전통적 가치관도 회식되고 붕괴된다. 노인은 일정한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하고 불안하게 된다.

넷째, 다양한 거대 조직에서 노인경시 성향이 나타난다. 현대사회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회사나 광장이나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위의 조직사회는 많은 젊은이를 흡수하고 항상 새롭고 철단적인 기술과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까닭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사태)에 민첩히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경시되기 쉽다. 현대사회의 산업화는 항상 경쟁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다섯째, 기계적 자동생산에 따라 노인실업률이 증가한다. 종전에는 수공업의 비중이 커서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능도 중시되었으나 모든 것이 기계화하고 자동화한 현대 산업에서는 노인의 숙련된 수공업적 기능보다도 기계에 대한 젊은이의 기술과 지식이 중시될 수밖에 없고 노인의 실업이 조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섯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종전에는 영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영아의 사망률이 낮아서 국민의 평균수명도 많이 연장되었다. 또한 충분한 영양분의 섭취, 위생적인 환경, 의료혜택의 보급 등과 같은 생활이건의 향상으로 개개인의 수명은 연장되고 노인인구는 증가되었다.⁸⁾

위와 같은 사실은 노인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한 사례를 예시한 것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예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버제스는 하나의 사회학자에 지나지 않고 그의 관점은 사회학적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학자나 윤리학자나 교육학자와 같은 사람들은 버제스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버제스가 지적한 사례를 보충하여 설명할 수도 있음을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관점하기로는 버제스가 지적한 6가지 원인 외에도 차녀들(젊은이들)의 윤리의식의 변화를 지적하고 싶다.

8) 노정복, 같은 논문 pp.7~8

자녀들의 윤리의식이 변화하였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성(효실)이 악화하고 봉과하였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효성이 악화하고 봉과한 원인은 부모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잘못에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동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자녀들의 이기심을 조장하고 경쟁심을 조장하는 교육에 주력하였을 뿐,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의 효성을 기르는데는 너무나 소홀히 하였다.『국민교육현장』(1968. 12. 5)에서 조차 경로효친을 제외할 정도였다. 부모의 잘못된 자녀사랑과 학교의 잘못된 지식 교육이 중요한 원인이다. 학교교육에서는 진정한 인격교육(인성교육)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육은 노인문제를 발생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노인문제는 구체적으로 건강문제, 심리문제, 경제문제, 취업문제, 사회적 용문제, 여가활용문제로 대별하여 논의된다.⁹⁾

건강문제는 외모의 변화, 감각기능의 악화, 일반적인 체력의 악화, 질병의 발생과 기억력의 악화를 포함한다.

심리문제는 자포자기와 고독감과 불안을 포함한다. 노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를 쉽사리 포기하고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불안을 느끼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쉽다. 퇴직으로 오는 실직이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따위는 불안을 조장한다.

경제문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밖에도 많은 의료비가 포함된다. 자녀들이 별거하거나 혹시 둘거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고 간병인을 확보하려면 병원의 의료비에 뒷지 않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출은 많게 되고 새로운 수입은 없으므로 저축된 재산은 쉽사리 탕진되기 쉽다. 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취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면서도 나이 때문에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용문제는 금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구조조정이나 절단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면 즉시 새로

9) 노정복, 같은 논문 pp.8~10 참조.

운 직장을 얻거나 창업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구실로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노인은 젊은이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여가 활용 문제는 남는 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하는 문제이다. 노인들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건전한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만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려는 정신이나 봉사하려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 노인복지의 개념

예로부터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노인은 조금만 더워도 간디기 어렵고 조금만 추워도 간디기 어렵기 때문에 시원한 곳과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특히 초기술의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보호를 받는가 하면 먼길을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거나 헛겨운 노동을 피하도록 보호하였으며, 식생활에 있어서도 소화가 용이한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평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조경에서는 전국적으로 금주령(禁酒令)을 공포하여 시행하더라도 노인의 약주(藥酒)만은 예외로 인정하는 수가 많았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한 것은 마치 유아(幼兒)를 보호하는 것이나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전통사회의 노인들은 대체로 자식들의 부양을 반기기 용이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소가족(또는 혈가족)제도가 아닌 대가족(또는 확대가족)제도 속에서 여행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힘드는 노동에 종사하지만 노인들은 어린이들(손자녀)을 보살펴 주거나 집안에서 비교적 힘이 덜 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둘보게 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호도 받고 존경과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들은 전혀 다른 형편에 있다. 자녀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보호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식주생활에 있어서도 자례으로는 미흡한 경우가 많고, 더구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고통과 위험은 매우 심각하며, 심지어는 약간의 보호를 받지 못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 차식이 도시에 나가서 아무리 출세하고 잘 살아도 늙은 부모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수가 많다. 여기서 노인의 복지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된다.

복지(福祉)라는 말은 복리(福利)나 행복(幸福)이나 후생(厚生)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영어로는 'Welfare'라는 말로 대체된다. 따라서 불만족하거나 불행한 생활의 조건(환경)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이므로 노인복지는 노인으로 하여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인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캐플란(J.Kaplan)은 다음과 같이 7가지를 들고 있다¹⁰⁾

첫째, 건강의 증진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 및 정신의학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주택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통성을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만성병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노동력에 알맞는 일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창조력을 발휘하는 활동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7가지는 모두 노인의 복지를 증진 또는 확보하는 수단적 조치이고 이 가운데 1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열거된 항목들은 풍부한 내용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만족이 모두 바람직한 노인복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육체적 경제적 복지가 확보되더라도 정신적 사회적 복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살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되고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이사 죽기만을 바라게

10) 노경복, 같은 논문 p.11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빚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복지는 특히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따뜻한 애정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의 개념은 일률적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시대에 따라, 민족이나 국가에 따라, 역사적 전통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을 고찰함으로써 노인복지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밝혀 질 수 있을 것이다.

III.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복지

1. 기본이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제정된 이래 1997년 8월 22일 전문이 개정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는 그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실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요약하면 노인의 실신의 건강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법의 기본이념은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실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실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2조). 여기서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노인들의 인격적 가치와, 국가적 사회적 공헌을 평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노인이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것

은 아니지만 하나의 제정법(制定法)에서 명백하게 조문(條文)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대개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에 출생하여 역할과 수단 속에서 생물학적인 생존마저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는 할일독립투쟁으로 갖은 신고(辛苦)를 감내하였으며, 조국광복이후의 대혼란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오늘날의 국가발전을 이룩한 주인공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부채와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UN의 회원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세계 11위라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WTO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서 선진국의 뒤를 쫓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적 발전은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허용하고 땀흘려 일한 노인들의 헌신적 노력(努力)의 결과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예로부터 천시와 자리가 만화만 갚지 못하다(天時地利不如人和)는 말이 있거니와 아무리 기후가 좋고 부촌자원이 많아도 사람이 화합하여 땀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팽현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의 침략과 내전(内戰)을 겪으면서도 부촌자원도 빈약한 국토에서 오늘날의 면역을 이룬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 주역(主役)을 맡았던 인물들로 존경을 받을만 하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밝힌 바 노인이 존경받을 이유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노인들의 소외(疏外)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선언이다. 노인의 소외는 주워로부터의 고립(孤立)이요 따돌림이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명목적으로 노인을 기피하고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고 따돌리고 쇠출(退出)시켜 버리려는 행위를 보이는 수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 본다면 모든 젊은이가 모든 면에서 노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노인이 모든 면에서 젊은이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노인은 어떤 면에서 젊은이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은 단순히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업연한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은 자

기의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력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인 자리를 노인이 채워 주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젊은이가 이중 삼중으로 직장 밖의 일을 맡음으로써 본래의 직장에서 수행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젊은이는 본래의 직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젊은이가 이중삼중으로 과중하게 감당하는 일을 노인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노인은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2조 제3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제3항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사筌시키고 자신만의 만락이나 사치나 낭비로 무위도식하게 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인복지법』은 단순히 노인에게 물심 양면으로 베풀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기를 요구 한다.

이 법에서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는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1항)는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2항)는 규정은 모두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을 강화하고 실현케하는 보완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3조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경로 효친이라는 미풍양속에 의하여 유지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가족 제도를 붕괴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복지가 단순히 보건상의 복지나 경제적인 복지로 만족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의 애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2. 노인복지의 유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의 유형으로는 ① 경로연금지급 ② 사회 참여 지원 ③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④ 생업지원 ⑤ 경로우대 ⑥ 건강진단 ⑦ 상담 및 복지시설임소 ⑧ 치매관리 ⑨ 재활요양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 연금지급은 6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¹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제9조1항1호),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자 외에도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계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포함된다(제9조1항2호).¹²⁾

사회참여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제23조1항). 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이나 노인취업 앞선기관들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3조 2항).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도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

11) 『생활보호법』 제3조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인 정기준에 해당하는자'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포함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참조)

1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9조 2항 참조).

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가운데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② 도로의 교통 경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③ 중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④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제24조 제2항).

생업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제25조).

경로우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4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케 할 수 있다는 것(제26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것(제2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제26조 3항)이다.

건강진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제27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것(제27조 2항)이다.

상담 및 복지시설입소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①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케 하는 것, 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주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③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

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다(제28조 제1항).

그러나 만일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제28조 2항), 복지 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담임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28조 3항).

치매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제29조 1항).

재활요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30조 1항).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

위와 같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는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제31조).

여기서 말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제32조 1항 1호),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양로시설(2호),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 하위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유효노인복지주택(5호)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제3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3조 2항).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을 입소시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제34조 1항 1호), 노인을 입소시키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실비노인요양시설(2호), 노인을 입소시키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효노인요양시설(3호), 치매·중풍 등 중증(重症)의 질환노인을 입소시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4호),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키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효노인전문요양시설(5호),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해하는 노인전문병원(6호) 등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노인전문병원(6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제35조 1항 2항).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제36조 1항 1호),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운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로당(2호),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교실(3호),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노인휴양소(4호) 등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는 노인주거복지시

설의 경우와 같다(제37조 1항 2항 3항).

제가노인복지시설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제38조 1항 1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간보호시설(2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3호)이 있다. 제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와 같다(제39조 1항 2항 3항).

노인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수혜자로서의 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은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11조(경로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제45조 1항). 또한 제27조(건강진단등) 및 제28조(상담·복지시설입소), 제33조 제1항(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 제1항(노인이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 제1항(제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설치 비용과 운영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IV. 성남시의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정책

1. 성남시 노인인구의 동향

성남시의 노인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60세이상노인인구 통계자료를 몇 가지 보기로 한다.

<표1> 1980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계(0~80세 이상)	376,822	(남)	187,842	(여)	188,980	구성비	100.0
60~64세	6,095	(남)	2,723	(여)	3,372	구성비	1.6
65~69세	4,304	(남)	1,807	(여)	2,497	구성비	1.1
70~74세	2,681	(남)	1,016	(여)	1,665	구성비	0.7
75~79세	1,191	(남)	375	(여)	816	구성비	0.3
80세 이상	749	(남)	177	(여)	572	구성비	0.2
60세 이상 합계	15,020	(남)	6,098	(여)	8,922	구성비	3.9

<표2> 198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계(0~80세 이상)	447,647	(남)	222,750	(여)	224,897	구성비	100.0
60~64세	7,789	(남)	3,150	(여)	4,639	구성비	1.7
65~69세	5,442	(남)	2,217	(여)	3,225	구성비	1.2
70~74세	3,515	(남)	1,325	(여)	2,190	구성비	0.8
75~79세	1,938	(남)	661	(여)	1,277	구성비	0.4
80세 이상	1,161	(남)	271	(여)	890	구성비	0.3
60세 이상 합계	19,845	(남)	7,624	(여)	12,221	구성비	4.4

<표3> 1990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계(0~80세 이상)	540,690	(남)	271,377	(여)	269,313	구성비	100.0
60~64세	9,858	(남)	4,036	(여)	5,822	구성비	1.8
65~69세	7,479	(남)	2,927	(여)	4,552	구성비	1.4
70~74세	4,839	(남)	1,812	(여)	3,027	구성비	0.9
75~79세	2,785	(남)	940	(여)	1,845	구성비	0.5
80세 이상	1,872	(남)	488	(여)	1,384	구성비	0.3
60세 이상 합계	26,833	(남)	10,203	(여)	16,630	구성비	4.9

<표4> 199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계(0~80세 이상)	868,268	(남)	437,013	(여)	431,255	구성비	100.0
60~64세	20,497	(남)	9,486	(여)	11,012	구성비	2.4
65~69세	13,991	(남)	5,532	(여)	8,459	구성비	1.6
70~74세	9,990	(남)	3,617	(여)	6,373	구성비	1.2
75~79세	5,770	(남)	1,953	(여)	3,817	구성비	0.7
80세 이상	54,768	(남)	21,702	(여)	33,066	구성비	6.4

<표5> 1996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계(0~80세 이상)	914,240	(남)	460,018	(여)	454,222	구성비	100.0
60~64세	22,419	(남)	10,315	(여)	12,104	구성비	2.5
65~69세	15,426	(남)	6,005	(여)	9,421	구성비	1.7
70~74세	10,599	(남)	3,818	(여)	6,781	구성비	1.2
75~79세	6,776	(남)	2,268	(여)	4,508	구성비	0.7
80세 이상	5,768	(남)	1,433	(여)	4,335	구성비	0.6
60세 이상 합계	60,989	(남)	23,839	(여)	37,150	구성비	6.7

<표6> 1997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총 계(0~80세 이상)	923,226	(남) 464,303	(여) 458,923	구성비 100.0
60~64세	24,084	(남) 11,244	(여) 12,840	구성비 2.6
65~69세	16,241	(남) 6,553	(여) 9,688	구성비 1.8
70~74세	10,953	(남) 3,901	(여) 7,052	구성비 1.2
75~79세	7,199	(남) 2,378	(여) 4,821	구성비 0.8
80세 이상	6,213	(남) 1,645	(여) 4,568	구성비 0.7
60세 이상 합계	64,690	(남) 25,721	(여) 38,969	구성비 7.1

위에서 제시한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은 『성남통계연보』(제26회 1998, 성남시 1998)에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통계 숫자는 『통계연보』와 차이가 없다. 여기서 6개의 표를 다시 간략히 축소하면 <표7>과 <표8>을 작성할 수 있다.

<표7> 1980년 이후 인구 증가추세

연	총계	(남자)	(여자)	구성비
1980	376,822	187,842	188,980	100.0
1985	447,647	222,750	224,897	100.0
1990	540,690	271,377	269,313	100.0
1995	868,268	437,013	431,255	100.0
1996	914,240	460,018	454,222	100.0
1997	923,226	464,030	458,923	100.0

<표8> 1980년 이후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

연	총계	(남자)	(여자)	구성비
1980	15,020	6,096	8,922	3.9
1985	19,845	7,624	12,221	4.4
1990	26,833	10,203	16,630	4.9
1995	54,768	21,702	33,066	6.4
1996	60,989	23,839	37,150	6.7
1997	64,690	25,721	38,969	7.1

우선 <표7>에 나타난 1980년 이후의 성남시 총인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1980년 (376,822명)에서 1985년까지 5년 사이에는 70,825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0년까지 5년 사이에는 93,043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5년까지 5년 사이에는 45,972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7년까지 1년 사이에는 8,986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 사이에는 546,404명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1년 평균 32,141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제 <표8>을 통하여 1980년 이후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1980년 15,020명에서 1985년까지 5년 사이에는 4,825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0년까지 5년 사이에는 6,988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5년까지 5년 사이에는 27,935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6년까지 1년 사이에는 6,221명이 증가하고, 다시 1997년까지 1년 사이에는 3,701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 사이에는 49,670명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1년 평균 약 2,922명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서 1980년 이후 노인인구증가추세의 구성비를 보면 1980년 (3.9%)에서 1985년까지 5년 사이에는 0.5%가, 다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 사이에는 0.5%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 사이에는 1.5%, 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 사이에는 0.3%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년 사이에는 0.4%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 사이에는 3.2%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1년 평균 약 0.2(0.188)%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0~19세까지의 구성비가 1980년 45.8%에서 1985년까지 5년 사이에 41.4%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 사이에는 36.8%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 사이에는 32.7%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1년 사이에는 32.1%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년 사이에는 31.5%로 감소함으로써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 사이에 9.9%가 감소하고 1년 평균 약 0.6(0.58)%가 감소한 추세와 매우 대조적이다. 0~19세 인구감소 추세를 다시 도표로 작성하면 <표9>와 같다.

<표9> 1980년 이후 0~19세 인구 감소추세

년	구성비 (%)	구성비 (%)	연평균
1980	45.8	—	
1985	41.4	4.4	
1990	36.8	4.6	
1995	32.7	4.1	
1996	32.1	0.6	
1997	31.5	0.6	
합계	—	14.3	0.84%

위와 같은 통계에 따라 0~19세의 청소년인구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하여 60~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전국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는 자료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전국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추세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1985년 이후 전국 65세 이상인구 증가추세¹³⁾

년	전국 인구		65세 이상 인구		
	실수	성장률(%)	실수	성장률 (%)	전국 인구에 대한 구성비(%)
1995	44,870,000	1.0	2,543,000	3.4	5.7
2000	46,828,000	0.9	2,972,000	4.4	6.3
2005	48,407,000	0.7	3,687,000	4.4	6.3
2010	49,486,000	0.4	4,283,000	3.0	8.7
2015	50,025,000	0.2	4,903,000	2.7	9.8
2020	50,193,000	0.1	5,746,000	3.2	11.4

<표10>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만 계산하더라도 2020년에는 5,746,000명에 달하고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은 무려 11.4%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

13)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최근인구동태현황 및 신 인구추계결과』 1988. 노경복, 앞의 논문 p.15 참조.

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도외시한다면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노인복지정책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가장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¹⁴⁾ 그 동안 경제발전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은 마련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문제, 이혼으로 인한 자녀문제,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육아문제, 청소년문제 등 새로운 가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증설 및 운영비 지원화대,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교통수당지급, 노령수당지급, 부료경로식당 운영, 노인무료건강진단실시, 보육시설확충, 저소득모자부자가정보호,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 등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¹⁵⁾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성남시의 1997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4,690명으로 구성비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성남시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화를 예방하고 건전 가정의 육성과 노인복지정책의 다각적 개발과 추진이 요청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¹⁶⁾

1)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 풍양속의 하나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내의 어려운 노인 1,2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로위안잔치를 베풀고 있으며, 또한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

14) 성남시 『시정백서』 성남시 1998 제14장 『가정복지행정』 참조.

15) 성남시 1998 『시정백서』 성남시 1998 p.259 참조.

16) 위와 같음.

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장한 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기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기회확대 및 경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인취호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경로우대제도의 정착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등 8개 업종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82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내버스, 극장등 5개 업종을 추가한 13개 업종에 대하여 실시해 왔으나 경로우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승차거부, 물천절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997년까지 78,281명의 노인에게 분기별 36매분의 금액을 노인각자의 예금통장에 '노인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로우대대상업종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공영시설대상업종 및 요금 할인율

- 가. 철도(동일호 미들기호 및 수도권 전철)… 50%
- 나. 도시철도 (도시철도구간내와 국유전기철도 포함)… 100%
- 다. 고공, 능원, 국립립박물관 및 공원… 100%

② 민영시설대상업종 및 요금 할인율

- 가. 시내버스 … 교통비지급, 65세 이상 노인 매월 4,800원
- 나. 여타 민영시설 … 차음적으로 실시 (국비·도비 지원)

3) 노인여가시설 지원

성남시의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성남시에는 253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1,000,000인구에 대비하여 1999년까지는 54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액을 매월 60,000원(1995년)에서 100,000원(1996년)으로 증액하였으며 연료비도 연325,000원을 지원하였고, 노후한 경

로당에 대하여는 경로당현대화계획에 따라 난방시설교체와 노후길기교체를 실시하고 노인회구지회 3개소의 게이트볼장비구입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여 여가선용지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경로당은 1997년 현재 수정구 59, 중원구 56, 분당구 138, 도합 253개소이다.

4) 저소득노인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저소득노인에 대한 실질소득의 지원에는 노령수당지급과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이 있다. 노령수당은 1997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노령수당의 지급은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 노인들에게 적절적인 소득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셈이다.

노인 공동작업장의 운영은 노인들에게 소원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여가선용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경로당 9개소(수정 4, 중원 5)에서 관내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함으로써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말미암아 만성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많은 까닭에 성남시에서는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1차 기본검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서 노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해당보건소에 통보하여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경로식당 운영

성남시에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가운데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

득이한 사점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에는 8개소 (수정구노인회지회, 수진동복지회관, 중원구성남동중앙경로당, 중동제2복지회관, 에이스침대(주), 분당구청출·한솔·중답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1개소(남한산성민속공예관)를 중설할 계획이다.¹⁷⁾

7) 할머니 상설대학 운영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의 일환으로 여성교양교육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관내거주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며, 1998년의 경우에는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인원은 150명이다. 교육내용은 ① 건강관리 및 안정된 노후관리 ② 취미생활 및 전전오락이다. 이 밖에 고부교실을 통하여 여성교양을 넓혀주고 있으며 기타 예술교육(연 6회), 교양교육(연 5회), 한글 교실(연 20명)을 운영하는 것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되고 있다.¹⁸⁾

V. 결론 : 성남시 노인복지정책강화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을 위하여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이론적으로 서술해 왔다. 따라서 노인의 복지는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미풍양속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요 경로효친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해 온 효도와 다름없음을 밟히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경전 불교경전 천도교경전 도교경전 관성교경전 기독교경전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전을 통하여 효사상이 강조되고 보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효사상의 근본은 자녀가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임을 요약하여 서술하였고 또한 노인문제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윤리와

17) 1998 『시정백서』 성남시 1998. pp.259~262

18) 1998 『시정백서』 성남시 1998. pp. 269~273 참조.

매우 긴밀한 관계임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인문제는 개인문제나 가정문제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정법(實定法)의 전형을 이루는 『노인복지법』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이념과 노인복지의 개념을 고찰하는 동시에 노인복지의 유형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을 고찰하였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도 위와 같은 윤리적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법적) 기초위에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남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행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시행령』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기초 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염연한 사실로 말미암아 결코 만족할만한 복지행정을 성취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성남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자치단체의 재정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복지 시설업소(제28조), 치매관리사업(제29조), 재활요양사업(제30조)과 각종 노인복지시설(제31)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여 성남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¹⁹⁾

19)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개혁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기도 한다. ① 국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은 '국민의 무모'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범화해야 한다. ② 국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하여 기초적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증진시키는데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④ 국가는 재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주택정책을 강화하도록 한다. ⑤ 국가는 양로 시설이나 양로시설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⑥ 국가는 경로우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⑦ 노인여가시설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⑧ 국가는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왕무·유광호 「효사상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개혁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효사상과 미래사회』 1995 pp.481~48 참조.

연구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만 경로사상고취에 관련되는 몇 가지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1. 강연회 개최

매월 개최 일시와 장소를 고정하여 연12회쯤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 연사는 지역사회에 자원인사를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하고 청탁한다. 성남시에는 인구도 많거니와 퇴임교수나 공직자나 지식인이 매우 많으므로 동장(동창)을 통하여 자원인사를 파악하면 될 것이다.

2. 학술회의 개최

연 2회쯤 자원인사를 동원하여 공개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의 근본원리와 실천을 연구하고 토론해 한다. 학술회의 내용과 결과는 시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소개한다.

3.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강화

사회교육기관이란 교육법에 의한 정규 교육기관(초등학교, 중·고등학교·대학)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성인교육기관(이를테면 노인학교 문화학교 주부교실 고부교실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교육이란 반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으므로 정규학교교육에서 공부한 것을 반복하는 동시에 정규학교교육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사회교육이므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정(교과과정) 속에 경로효친사상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단위로 실시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4. 시민 백일장 개최

현재 성남시 일원에서는 한국문화성남지부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백일장을 개최하는 수가 있으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와는 별개이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표방하여 시민백일장을 개최함이 바람직하다. 성남시민은 1,000,000명에 가까운 대인구이므로 시민백일장, 구민백일장, 동민백일장으로 나누어 실시하

여도 좋을 것이다.

5. 직장인에 대한 배려

부모나 조부모 등을 비롯한 직계존속의 삼례나 제례와 같은 중요한 일에는 그 자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는 각별히 배려한다. 직계존속의 상고(喪故)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말단직장인으로서는 곤란하게 여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의 각부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급여하는 素도수당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 하고 금액도 너무 적지 않도록 책정해야 한다. 특히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직장인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6. 경로석 제도 강화

시내버스나 열차의 경로석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 탓인지 아주 없애 버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버스나 열차내의 안내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반상회의 회보를 통하여도 반복적으로 계몽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경로효친사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경로효친사상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결코 공헌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 그러나 경로효친사상은 가족윤리의 아름다운 정신을 사회윤리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사상임을 확실히 깨달아야하며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급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윤리의 붕괴요 터락이요 혼돈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직사회와 부정부패와 국민의 물지각한 사고의 행동은 모두 바람직한 윤리가 정립되지 못한 까닭이다. 경로효친사상의 윤마른 이해와 실천은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바람직한 윤리를 정립하는 지름길이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이다.

〈참고문헌〉

- 『노인복지법』 1999.2.8 개정 법률 제585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1999.8.7 개정 대통령령 제1652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998.9.4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74호
『생활보호법』 1999.2.8 개정 법률 제5836호
지교현, 『한국의 효사상』 민속원 1997
노경록, 『한중·양국 노인복지의 제도사적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허창무·유광호, 「효사상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개혁
방향」 『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성남시, 『시정백서』 성남시 1998
성남시, 『성남통계연보』 성남시 1998

〈표 목록〉

- <표1> 1980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2> 198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3> 1990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4> 1995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5> 1996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6> 1997년 60세 이상 노인인구
<표7> 1980년 이후 인구 증가추세
<표8> 1980년 이후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
<표9> 1980년 이후 0~19세 인구 감소추세
<표10> 1995년 이후 전국 65세 이상인구 증가추세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소진광(경원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지역발전에 관한 패러다임 변천
- III. 전통 자본의 한계와 사회적 자본
- IV.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한 성남시 발전방향

I. 서론

물리적 시설위주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국민소득증대로부터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민선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것은 인류가 늘상 하는 많은 선택중의 하나일 뿐이다(Haq, 1995). 도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목적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시 및 지역을 시각적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발전을 전제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정당화시키 준 바 있

다). 이후 주로 건축가와 공학도에 의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및 지역계획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개혁을 주제로 한 사회계획이 나타났으며, 현재는 환경친화적인 계획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대 이후 독일의 Frankfurt 학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비관적 계획논리이다. 이러한 계획논리는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재구조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가치는 사회환경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전달 체계를 통해 달성되게 되어있다. 즉 왜곡된 정보와 통신은 보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적 이론은 어떠한 사회행동의 정당성이 기준 물질적 조건을 다른 용도로 배울리거나 차취하지 않는 자유롭고 상장적인 상호작용과 제약받지 않는 의사소통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종래에 주장되었던 합리적인 공간계획은 누가 계획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평가되곤 했으나 이제는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사람들간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공간문제가 사람에 의해 출현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들의 역할과 사람들간의 관계에 의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다²⁾. 도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도시 및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채고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모두 물리적인 「삶의 여건」 즉 시설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한 계획의 정당성을 화려한 설계도면으로 대체하는 등 목표와 수단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채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 물리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시설을 활용할

1) 도시관련 계획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도시국가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존재해 왔으나 근대 도시계획은 미국 시카고의 도시비화운동(1897)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Joo-Chul Kim, 1999, "The Recent Changes of Planning Theor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Planning Theories*,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1999. 6. 10), pp.3~4.

2) 이창수, 1999, "도시계획의 새로운 과제다일"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1999. 6. 10)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각종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 도시별 「삶의 질」 평가인자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물리적인 시설지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와 기능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도로, 주택, 공원 등), 환경자본, 인간자본 보다는 상호신뢰와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 도시 및 지역발전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경제활동 결과 등 전통적인 자본축적정도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발전정도를 「삶의 질」 수준으로 접근하면서도 아직도 물리적인 시설이 이에 상응한 시민 만족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양자간의 연계는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역시 사회적 자본 기반의 바탕한 상태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형식논리에 합물되어 사회적 생산력 증대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문제점 확인으로부터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유통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성남지역사회 노력은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II. 지역발전에 관한 패러다임 변천

이제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발전현상도 인류사회와 종말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결정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이 절대적이 할 수 있는 공간함수측면에서 보면 도시 및 지역은 인류문명의 꽃이자 인류문명의 무덤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문명의 이기는 이제 종래의 인류사회 주류를 바꾸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되어 왔던 패러다임논쟁 자체가 의미없게 된 영역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상과학활동으로 치자지 오던 패러다임은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지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범위를 축소해석하

거나 방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의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지성계의 강박관념으로 현실이 무시되고 외면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소수의 구성인자가 전체를 능멸할 수 있게 된 사회가 도래되어 경상과학 활동에 대한 패러다임 구축이 어렵게 된 셈이다. 이제 날개의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전체구조의 틀에 대한 인식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공간체계에 관한 논리도 마찬가지다.

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지방화 시대」에 대한 열망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종래의 경제운동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데 목소리를 끌어 하고 있었다. 종래의 경제운동방식이란 계정단위로 전체적인 국가만을 상정하였지 보다 작은 공간단위인 지역, 즉 市·道나 市·郡과 같은 국가의 하부체계는 고려하지 못했던 경우를 말한다.

경제활동이 어디서 전개되든지 간에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총량성장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또, 그로 인한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과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적을 떠나서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이나 모두 평균적 풍요를 증대시키 나가는 것에 흡족해야 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 전체적인 「성장과실」을 크게 하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였지 그 과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지역,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거나, 조금은 덮어두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렇게 조금 참고 기다리노라면 결국은 뒤처진 사람들이나 낙후된 지역 모두가 국가전체적인 「성장과실」을 끌고루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가정하여, 분배문제는 조작적 정책의 대상이 라기보다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 등한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비교우위에 의한 경제체계가 국가전체적인 총량경제성장을 가장 능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경제활동여건 변화에 완전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역간 호흡 주체인 인구·자본·정보 및 의사결정 등은 나름대로 거리에 의해 그 호흡의 방향과 속도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발중심지역에는 발전과실이 과도하게 집적되고, 주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감식하는 등 견전

한 국민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정한 분배논리를 해곡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공간차원에서의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된 원인에는 충분한 실증적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식논리에 매료되어 신고전과 경제이론을 그대로 현실정책에 반영한 탓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차원의 계경제계를 악화시켰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행태의 탓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도시 및 지역발전이 종래의 의미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경제문제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효용을 감지할 수 있는 소득분배논리와 상호 연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소득분배논리는 사회계층 간에 있어서는 사회질의관에, 그리고 지역간에 있어서는 영토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주의에 기초할 때 보다 선두적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그간 국가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던 「능률성」이라는 것도 자원배분의 동태적 과정에서 보면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소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공간구조에 의해 구속받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구조를 형성해 가는 측면도 있어서,³⁾ 단기적으로는 「비능률적」인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능률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지역자원 활용기회를 협평에 맞게 배분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미 생산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은 또 다른 경제활동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도시성장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셋째는, 경제활동의 본질이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모아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경제활동은 본래 개체의 욕구에서 출발되는 것이지 전

3) Friedmann, J., 1972, "The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in Hansen, N.(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Free Press.

체적인 수요에서 차극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작은 영토적 단위로부터 확장되는 과정에서 경제흐름이 좌악되어야지 국가전체로부터 나누어지는 과정에 의해 경제흐름이 분석된다면 그것은 해구이기 쉽다. 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체의 합이 전체가 되어야지 전체를 임의로 나누어 놓은 것이 개체일 수는 없다. 또한 지역경제는 인간의 활동이 「거리」에 의해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토성」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 이전의 실체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경제는 「필요한 수단」이었지 본시 실체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하향식 자원배분논리는 수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금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모로 보나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은 궁극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과는 별도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종래의 경제운용방식이 추구해 오던 「발전」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두를 볼 수 있다. 즉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성장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존재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보다도 강력하게 종래 하향식 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자원배분논리를 거부하게 될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의 합이 국가 전체적인 국민경제로 수렴되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제껏 지역경제의 접근논리는 단지 전체를 임의로 나누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은 전체를 이루기 위한 부분쯤이었지 개체로서의 존재가치가 회박한 뿐이었다. 즉, 일부지역의 번영이 전체의 번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수의 최저치가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이며 소수의 최고치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고치에 의한 대표성'을 '실속있는 평균치' 혹은 '최고치가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⁴⁾.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임의로 나누어 놓은 단순한 계층적 단위로서가 아니라 독자

4) 지역경제의 발전은 양적 성장과 구조개선으로 좌악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 비하여 이전까지의 지역경제는 양적 성장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운용되어 온감이 없지 않다.

적으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장치가 다름아닌 지방자치체인 것이다.

여섯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종래 인간활동방식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종래 인류문명의 발전방향과 속도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 만큼, 그러한 발전을 주도해온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래의 제도권이나 기존체제의 실패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에 더욱 크게 기대된다. 환경문제에 관한 국경이나 시·군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신무정부주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운동이 세계질서 재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구성논리의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게 될 것이다. 가족체계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가상공간, 가상기업의 출현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영향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위치와 면적을 전체로 논의되어 오던 도시발전 패러다임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인구 규모나 지역의 화장 등 도시성장이 도시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도시화폐화나 도시쇠퇴를 초래했던 사례는 시카고 등 서구의 도시화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남의 경우도 급격한 인구규모증대는 도시활동 여건을 열악하게 하여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때가 있었다.

여덟째, 구조와 기능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활동이 미약한 초기단계에서라면 최소의 구조나 시설만으로도 인간활동을 촉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인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추가적인 구조개선이나 시설보강이 반드시 그에 상응한 활동이나 효과로 이어

5) 생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신무정부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세기에 풍靡하던 (사회적) 무정부주의와 다르고,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의한 환경파괴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무정부주의와도 다르다.

지지 않는다. 구조와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한 상호관계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따라서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도시시설을 구축하는 일 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아홉째, 발전정도를 가늠하던 종래의 척도가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형광하는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발전정도를 형광했던 자본은 생산력있는 가치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생산요소와의 결합비율, 결합방식에 따라 이윤크기를 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전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별 구성요소의 합이 반드시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기 시작한 구조주의 논리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즉 자본이 기계라든가 편의와 같은 실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닌 지라도 그러한 표현 방식에 따라 기능이 다르고 또 자본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이윤발생정도를 달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회의 부문 활동간 구분이 어렵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종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부문체계 영역은 독자적 의미로 정의된 바 있다⁶⁾.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경제논리, 정치논리, 문화논리 등이 대상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되며 보다 활동주체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III. 전통 자본의 한계와 사회적 자본

자본(capital) 이란 용어는 머리(head)를 뜻하는 라틴어 “caput”의 형용사형에서 비롯되었다. 혼히 자본은 생산요소의 하나로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화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이자(interest)라는 달리 부채의 중요부분인 미리예 해당하는 대부금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자를 낳는 화폐의 총계”의미를 띠고 있다.

6) 이를 부문체계는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Hoselitz, Bert F., 1971,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in Stanley, Manfred(ed), *Social Development :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 Basic Books, Inc., pp.39-78.

Smith(1776)는 자본과 이윤의 개념을 연계시키고 자본의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한 최초의 경제학자였다(Rubin, 1989:208). 즉 경제를 국민경제와 사(E)경제로 구분할 때, 전자의 경우 자본은 그들 사회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존하는 생산수단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자본은 생산의 물질과정과는 구분되어 존재하게 된다. Smith는 후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재산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를 자본이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그때그때 소비에 충당하는 것이다. 즉 자본은 이윤이라는 형태로 소유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재산인 것이다⁷⁾.

상품이 자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Walras는 모든 경제체를 자본과 소득(income)으로 나누고,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화를 자본으로 불렀다. 그에 의하면,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내구재는 자본에 속한다. Kuhnast는 자본을 본질적으로 형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본은 구체적인 목적물이나 재화 자체가 아니고, 물질적인 재화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력의 가치인 것이다. Fisher 또한 예외 없이 존재하는 모든 부(wealth)를 자본에 포함시키고, 이 경우 자본은 부(wealth)를 이루는 재화의 재고(stock)가 아니라 그러한 재화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rx(길수령 역, 제1권 (상), 1996:183)는 상품유통을 자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후의 산물인 화폐는 자본의 최초현상형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Marx는 화폐(M)로서의 화폐와 자본(C)으로서의 화폐를 구분하고 있다. 즉, 상품유통의 직접적인 형태인 [C-M-C]과정(단순 구매활동)과 이와는 전혀 다른 [M-C-M]과정(판매를 위한 구매활동)을 분리하고 후자의 형태로 유통되는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결국 자본이라는 용어는 생산력 있는 가치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

7) Smith의 자본에 대한 견해는 종종 이중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자본을 기업가가 기계라든가 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총 가치(total value)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의 기계라든가 원료 등 그 자체를 자본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일반적인 교전주의 학파와 마찬가지로 Smith도 생산수단 자체와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Rubin, 1989:209).

른 생산요소와의 결합비율, 결합방식에 따라 이윤 크기를 달라할 수 있음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이러한 기능주의적 견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별 구성요소의 합이 반드시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기 시작한 구조주의 논리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즉, 자본이 기계라든가 원료와 같은 실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님 자라도 그러한 표현 방식에 따라 기능이 다르고 또 자본이 작동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이윤 발생정도를 달리한다.

따라서 자본은 전통적인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외에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인간자본(human capital), 환경자본(environmental capital)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분류도 전체적인 국민경제와 개인적인 사(私)경제라는 분명한 두 영역을 연계시켜 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자본도 동일한 여건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변화의 양태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개인적 생산력과 사회적 생산력을 각기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러한 구분은 전통적인 자본의 규모에 따른 효과와는 별개의 것이다.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결과적인 이윤 발생정도가 모두 다르다⁸⁾. 이러한 차이는 자본을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문제와도 별개의 것이다⁹⁾. 이는 개별 구성원을 전체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단위의 존재가치 외에 구성원간의 신뢰(trust)라든지¹⁰⁾ 네트워크와 같은 또 다른

8) 동일한 공간상에서 대규모 공장의 이윤률이 소규모 공장의 그것보다 낮거나, 동일 업종의 동일 규모 공장과 대도시에서 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윤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다.

9) 누가 자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윤발생정도가 다른 경우는 인간자본(human capital)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자본을 무엇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윤 발생정도가 다른 경우는 산업구조론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10) Fukuyama(1995)는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경제성장도 낮다고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간 신뢰도가 또 다른 생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형의 자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즉 개별 구성원을 단순히 합해 놓았다고 해서 전체 사회를 이루는게 아니라 개인적 자본(personal capital)과는 별개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사회형성과정에서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이의 수많은 일상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혹은 사회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space)안에 있다(Bullen & Onyx, 1998). 조직이나 시장(market) 혹은 국가가 사회적 자본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특정 조직이나 시장, 혹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인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및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유사하게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과 행동을 쉽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의 기원이 비록 19세기 고전적 사회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활발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게 된 계기는 Pierre Bourdieu(1986)와 James Coleman(1988)에 의해 마련되었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1970년대 어떤 지역사회에서 회원제(membership)를 통해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추가 이익과 기회창출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정밀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사회적 연대(social ties)로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자원이란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oleman(1988)에 있어 사회적 자본은 은행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과 인간의 두뇌안에 있는 인간자본(human capital)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Putnam(1993a)도 물리적 자본 및 인간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을 사회의 생산적 품질력을 증진시켜주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trust)와 같이 사회조직의 특징과 연관시켜 정의하고 있다. Fukuyama(1995) 또한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Fukuyama는 최근 연구(1999)에서 산업혁명을 전환점으로 기술진전이 개

인주의 성향을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선택자유를 신장시킨다는 미명 아래 규범과 규칙을 끊임없이 혼란시켜오고 있는 사회는 점차 조직이 와해될 것이며, 원자화되고, 고립되어 결국 공동의 목표와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기술혁신을 무한정 추구하는 사회는 또한 개인의 다양한 행태에도 한계를 두기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범죄증가, 가족화해, 자식양육의 무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이웃간에 책임 따님기기, 공중도덕에 대한 시민들의 의면 등 사회질서의 붕괴를 가져온다. Fukuyama (1999:60-68)는 이러한 사회질서의 붕괴를 사회적 자본감소로 보고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첫째는 (상대적) 민족의 성화와 소득불균형증대이고, 둘째는 근대 복지국가의 산물로서 정부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셋째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변동의 결과로서, 예를 들어 종교의 몰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자아만족을 추구하려는 개인주의 성향을 들고 있다.

Grootaert(1998)는 사회적 자본개념에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관계, 태도 및 가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사회자본을 받쳐주는 제도의 합이 아니라,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기존 현상의 암영대(shadow zone)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SCIG(1998)는 이를 다른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한 개인 혹은 다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잠재적 이익, 편의 및 우대(preferential treatment)로 정의하고 있다¹¹⁾.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현재 가치가 아닌 잠재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사회적 자본형성과

11)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제간 연구단체로 (the Social Capital Interest Group)의 약자이며, 1998년 4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정 이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SCIG(1998:3)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특징을 다른 자본형태와 비교하면서 그 기원을 “사회적”이라는데 두고 있다. 즉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이 금융시장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고, 인간자본(human capital)이 기술과 재능이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이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적 재화의 수용과정에서 대두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모인 SCIG(1998:2)는 학문분야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달리 정의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자본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의가 모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정지(measure)로 이어져야 하며, 결과 종속적인 사회적 관계로 쉽게 확인되어야 하고 널리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초의 학술회의가 1998년 4월 20일부터 22일 까지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Kellogg Center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학술회의의 분과 구성을 보면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연구영역이 공식적인 학술회의에서 관심영역에 따라 첫째 가족(family), 둘째 인구이동(migration), 셋째 비영리분야(non-profit sector), 넷째 지역사회와 농촌의 개발(community and rural development), 다섯째 교육, 여섯째 지구촌의 불평등(global inequalities),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기업(international firm)의 발전으로 나누어 접근되고 있다. 이를 영역별로 발표되었던 논문의 특성은 사회적 자본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동향은 분야별로 문화권별로 다양한 향후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준 국제질서를 재해석하고 특히 후기 산업 사회에서의 발전적 쪽도를 재구성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Grootaert(1998)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Putnam(1993b)을 예로 들고 있는데, Putnam(1993b)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결합”

(horizontal association)"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조직(즉,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과 관련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는 두 가지 경험적 추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즉 네트워크와 규범은 경험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이것들은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다 생의의 개념으로 Coleman(1988)을 예로 들고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실체(entities)로 보고 있고, 그러한 실체들은 모두 사회구조적 양상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개인적이든 집합적이든 그러한 구조내에서 행위자의 어떤 행동들을 쉽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Coleman, 1988:598).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자본의 대상을 수평적 단체뿐만 아니라 수직적 단체로까지 확대하고 있고 기업과 같은 다른 실체내에서의 행태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수직적 단체(vertical associations)는 구성원간의 계층적 관계와 불균등 권력분배로 특징지워진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Coleman(1988)의 개념은 사실상 개인간 행태를 지배하는 규범의 전제적인 조화뿐만 아니라 개괄적인 사회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입장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사회적 자본에 규범으로 하여금 사회구조를 발전시키고 형성하게 하는 사회·정치적 환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주로 비공식적이고 지방적이며, 수평적 혹은 계층적 관계를 다룬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에 대하여 세 번째 입장은 정부, 정치제도, 법의 지배, 재판체계 그리고 시민 및 정치자유와 같은 가장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관계와 구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제도가 경제성장과정 및 경제발전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입장은 각각 대안적이라기 보다는 현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각기 다른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적, 계층적 단체와 거시적 제도 등은 경제 및 사회적 생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존할 수 있고, 또 공존

해야 한다.

질론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정체성을 지닌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시켜 주는 규범과 비공식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동시에 사회적 자본은 다른 실체(entity)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구성원 각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이와 인지방향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기원이 개별 구성원의 조직화과정에 있고 이러한 조직화과정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①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와 ②가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생산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형성 자체보다는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의될 수 있다.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네트워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나 기능, 전통적인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의 수용이 생산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어 있다¹²⁾. 가치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형성 자체가 사회체제의 목표로 수용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자본형성이 공동의 선은 아닐지라도 '삶의 질'의 대용지표로 공간선호도와 대중관계에 있다면 지역사회는 사회적 자본형성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 혹은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자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자본의 대체기능으로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론을 달리할 때 나타난다. 신뢰와 동경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12) 예를 들어 통합물류 생산시스템인 CALS(Commerce At Light Speed)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군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제조업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계약을 축소, 완화시켜 주어 사회적 생산력을 제고 시켜준다.

로 친남빛을 갚을 것인지, 이해관계로 원금 천냥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것인지는 수단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전통적인 자본축적기반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자충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역량을 갖추든지 신뢰사회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자본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기능은 소비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협동실을 강조하는 생산현장에서도 나타난다.

둘째는 전통적인 자본과 함께 결합하여 생산성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기능을 둘 수 있다. 이는 특히 생산현장에서 기계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잘 정비된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보완기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기능이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도 있다.

IV.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한 성남시 발전방향

간접침족에 의한 가상공간(cyber space) 혹은 전자공간(electronic space)이 등장하면서 자연적 지역사회(the community)보다는 공동의 유대(common ties)와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rnard(1973:4)는 이러한 공동체를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와 관련시키고 이것이 자연적 지역사회 개념보다 먼저 나타난 인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경우 도시 및 지역개발은 사회의 어떠한 속성의 적극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논리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개발(development)이란 용어는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파거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 시점에서 유도해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변화의 성분을 방향과 속도로 나눌 때, 이제까지 개발행위의 결단성은 속도성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인간욕구와 현재 상황간의 시차적 문

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절차논리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 구조개편 등 발전현상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변화의 방향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의 변화가 추구할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 변화의 전제조건과 방향이 함께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속도만 고려되는 경우가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종종 발전현상을 도모하려는 지역개발의 목표가치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지표와 연계시키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자원투입, 새로운 규범의 형성 등 인간의 사회적 노력을 요하는 개발 행위는 변화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별개의 것으로 접근하여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개발논리는 사회적 자본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이 특별히 논의되어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경제성을 지닌 집단이나 도시 및 지역사회 전체의 동원가능한 자본, 즉 수단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단순히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합산한 것과 같지 않다는데 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여건에 놓여있는 별개의 도시 및 지역사회가 반드시 동일한 주민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삶의 질에 대한 과정 논리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본을 모두 합했다고 하여 도시 및 지역 전체의 사회적 자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지역개발 논리는 사회적 자본형성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도시 및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제까지 담연시 여겨 왔던 “조건=결과”的 등식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체간의 경험적 관찰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주민 개별행동과 도시 및 지역 전체의 행동사이에는 일종의 매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이의 과정논리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개발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동원과정을 통해 지역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과 관련하여 그 실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

사회적 자본형성 과정이 상향적(bottom-up) 속성을 지니고 있고, 신뢰원칙, 상호 호혜주의 및 행동규범에 근거한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와 네트워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지역개발의 주요 전략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의 대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the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은 전제사회가 그 운명에 책임을 져야하고 각각의 환경에 맞는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택과 참여의 범위를 개인 차원을 넘어 전제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본질적으로 사회규제의 자발적 형태인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형성은 주민들간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이 그들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 선택 및 참여를 확대해간다는 생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조직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촉진시키 줄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개발이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인간자본형성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형성도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결국 지역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준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모두 지역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남시 지역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합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은 접근방식에 따라 또 통합정도에 따라 '단순히 구성원의 개별 자본을 합산한 것'과 '개발 가능한 최대의 사회적 자본'과의 차이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급속한 도시성장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도시 형태, 다양한 지방색을 포함하게 된 성남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성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기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다. 새로운 시대, 새 천년에는 다양성을 여실히 조화롭게 조직화할 수

있는가가 지역사회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남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지방색, 다양한 도시구조 특히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 이질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의 발전 잠재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 특히 성장과실의 분배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여야 한다. 본래 자본은 기능적 속성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역할에 상응한 결과가 보잘되지 않는다면 작동하기 어렵다. 개인별 능력의 차이를 뛰어 넘어 전체적인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회생이 장기적으로 보상되어 전다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정의에 기초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특히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전환기에 활동간 분배메카니즘의 변동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공통분모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 수록 최빈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의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시민사회와 형성을 통한 사회정의의 공감대논리 마련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셋째는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들이 개발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방어하고 대변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분야,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에서 그들 일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논리를 터득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논리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기본생리다. 다행히 성남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조직의 순기능을 찾아내고 성남지역사회 사회적 자본형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물론이고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이들을 참여케하는 과정논리가 필요하다.

넷째는 국가와 시민사회제도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가치와 관계 수준에서, 민주주의 풍토 및 참여와 책임의 메카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공헌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는 반드시 결과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신의 바자회에 참여율을 높이는 것 등도 공동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하고자하는 일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 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지표의 개발은 성남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주민 참여율 높여 경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선 불가능한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안전성은 지역사회개발의 전제조건이고 사회적 자본형성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안전성은 상호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형성은 지역사회개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통해 새 친년 성남지역사회가 앞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논리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거주 및 활동의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행 역, 1996, 「자본론」, 비봉출판사
- 권태준, 1987, “지역개발의 새로운 주제로서의 지역주의”, 금호문화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국가발전과 지역주의」 자료집(1987.5.7-9),
pp.91-101.
- 나이스비트, 에버딘 저, 김홍기 역, 1990, 메가트랜드 2000: 세기말 대변
혁 10가지, 한국경제신문사
- 소진쯤, 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
발연구」 제24집 1호, pp.29-47.
- 이창수, 1999, “도시계획의 새로운 파라다임”, 강남대학교 산학기술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1999.6.10), pp.6-14
- Bernard, Jessie,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Lond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 Bernard, Jessie,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Lond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llen, Paul & Onyx, Jenny, 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sations and Management (CACOM),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Carnhis, Marios, 1979, *Planning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upplement)*
94:s95-s120.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 1999,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Order" *The Atlantic Monthly*(May, 1999):55-80
 - Grootaert, Chris, 1998, "What is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Resource Paper*.
 - Haq, Mahbub ul, 1995,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selitz, Bert F., 1971,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in Stanley, Manfred.(ed.), *Social Development: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Inc.,
 - Joo-Chul Kim, 1999, "The Recent Changes of Planning Theor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Planning Theories*. 강남대학교 산학 기술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1999.6.10).
 - Kuhn, Thomas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atos I.,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Lakatos I. and Musgrave A.(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pper, K. R. 1968,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Hutchinson.
 - Putnam, Robert D., 1993a,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35-42.
 - —————, 1993b,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65-78
 - Rubin, Isaac Illyich, 1989,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PLUTO

PRESS.

- SCIG, 1998, *Abstracts: Social Capital Conference*(April 20-22, 1998).
Kellogg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 Taylor, Nigel, 1998, *Urban Planning Theory Since 1945*, SAGE
Publications Ltd.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전보삼(신구대학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산성리 전통 마을 형성의 배경
- III. 산성 발전에 주민 참여의 사례
- IV. 산성리 전통 마을의 현황
- V. 산성 발전에 주민 참여 방안
- VI. 맺는말

1. 머리말

남한(南漢)이라는 치명이 가져다 주는 의미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남쪽의 주산, 진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산이 남한산다. 한강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강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남쪽을 일컬어 남한산이다. 한강을 확보한 민족은 흥하였고, 한강을 암은 민족은 패하였다라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말

하면 한강은 우리민족사의 충주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교통수단의 중심축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강을 통하여 모든 물자가 이동되었고, 문화가 교류되는 교통, 통신의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강 남쪽의 넓은 땅 중심지에 남한산이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성 남한산성이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20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절(節)과 목(目)의 역할을 하여 왔다.

백제 온조대왕은 이땅에서 백제개국의 개척정신과 창조정신을 펼쳤고, 국가의 흡성기와 번영기를 누렸다. 한성 백제 470년간 백제 역사의 중심부대였던 한강 남쪽 드넓은 땅 그 한가운데 고원분지를 이루고 있는 남한산성은 백제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스러운 땅이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 내에 백제 개국의 대왕인 온조임금의 사당인 숭열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을 두어 백제의 개국 정신의 높은 뜻을 세기는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팔도의 전체 역량을 모으기 위하여 8도민이 모두 참여하여 한마을 한뜻 되어 빛아울린 성들이 모여 우리나라 최고의 성곽이 있는 남한산성은 8도민이 모두 모여 하나되고, 조화되는 화합의 땅이요, 호국 충절의 정신 남한산성을 떠올리게 된다.

삼학사의 숨결이 들리는 현걸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에서는 조선 산비 정신을 고향을 발견하게 되고, 실학의 정신을 임태한 근기학파의 산실로서 조선의 자아를 찾아낸 남한산성 광주의 정신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역사의 땅, 민족 자존의 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일어 나더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역사 주제 공원으로서의 새 탄생, 남한산성 종합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즈음에 남한산성 발전 방안에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면서 주민의 적극적 공동체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 보자는 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1971년 남한산성과 산성 부근 일대가 도립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산성 복원 및 각종 경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법제도와 경제 등의 미비로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이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을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도 많이 해손되

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한 산성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 남한산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 이해의 팔방론이 과거의 식민지 사관과는 다른 주체적인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고조되었다. 성남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선도적인 역할로 남한산성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산성을 연구하는 모임과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한산성의 체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재고되기 시작하였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성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 및 복원하려 하고, 문화재가 많은 남한 산성의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 시켜 남한 산성을 문화 관광지로써 활성화시키고, 또한 남한 산성 거주 주민의 생활 복지를 개선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한산성의 올바른 역사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더한층 전진되어 져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직업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경기도 도립공원 남한산성 안에 있는 산성리 마을 탄생 배경을 살펴야 될 줄 안다. 그것은 이 마을이 자연 발생적인 마을 형성의 역사라기 보다는 동북아의 국제 정세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의 형성 배경과 더불어 마을이 가졌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은 특수 목적에서 이루어진 마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흥망의 역사와 부침에 따라 마을의 역사 또한 흥하고 쇠하고를 반복하여 왔다. 그러므로 산성리 마을의 역사를 통하여 내일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산성리 마을의 형성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자. 그리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주고 받았는지도 살펴보자. 그리고 나가서 현재의 산성리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어떤 미래가 가능 할까를 꿈꾸어 보자. 주민 참여의 산성리 발전을 위하여 이것이 기본 천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산성리 전통 마을 형성의 배경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취락을 구성하며 삶을 영위하여 왔을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산줄기와 물줄기를 따라서 취락이 생겨나고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예 일 것이다. 우리는 남한산성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주변과의 관계도 살펴야 될 줄 안다. 그 중에서도 한강과 남한산과의 함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의 의미가 한강 남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남한산은 한강 남쪽의 주산이요 전산의 개념이기도 하다. 한강은 우리 민족사 정신의 발원지요 생활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문명이 오고 가는 길목이요 문화의 교통로였다. 한강은 교통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한민족의 문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한 중요한 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한강은 남다른 위상을 갖고 있는 큰 강이다. 한강을 확보하는 민족은 흥하였고, 한강을 잃은 민족은 소멸하여 간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 한강 남쪽에 고원 분지를 이루고 있는 큰 산 남한산이다. 남한산성을 광주라 부르던 시절 그 이전부터도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추 해리 부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남한산성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발전하였으며 그 마을의 내력과 마을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산성리의 정체성을 찾아 내야 한다. 남한산성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을 어떻게 활용시키며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성리 마을의 형성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터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아주 먼 과거로 올라 갈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 16대 인조 임금이 즉위 한 다음 해인 인조 2년(1623년) 남한산성의 축성이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일 것이다. 남한산성의 축성이 본격화 된 인조 2년에 시작된 산성 축성은 인조 4년 즉 2년 6개월의 대역사가 완공되고 인조 5년(1627)에 광주부의 유통을 산성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다. 유통을 산성으로 옮기고 성곽을 다시

쌓고 광주부 수령의 벼슬을 정 2품 당상관인 유수로 승격시켰으며 광주부의 관아를 산성리에 설치함으로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산성리 마을 형성이 시도되었다고 보여진다.

인조 임금은 산성의 축성이 완료되고 성내 거류민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산성 거류민 모집을 시도하였다. 산성 내 읍치에는 남한산성의 내성의 길이 8킬로미터를 빙어하는데 필요한 병력은 1천호의 주민 약 5~6천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가 유사시 산성을 주민이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서 산성 거류민을 전국적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고향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 조상 대대로 이어 살아온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뿌리를 잃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세금의 혜택을 주고, 부역도 면제하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지만 300세대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 이후 인조, 효종 임금을 이어 왕위에 오른 숙종 임금은 남한산성의 외성을 더 견고하게 쌓고 남한산성의 여래곳을 보강하였고, 특히 봉암 외성을 완성함으로서 현재의 위용을 갖춘 12.4킬로미터의 산성 모습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인조 이후 시도된 산성 거류민 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갔다. 마침내 숙종 실록 17년 7월 13일 차례 보면 1000호를 완성하여 주민을 산성 안으로 들어보내지 말 것을 명한 대목이 나온다. 경향 각지의 주민이 산성 주민이 되겠다고 모여 왔다는 결론이다. 산성리 마을은 국가 계획으로 마을의 형태를 갖춘 국내 최대의 산성 취락 구조를 완성하였다. 산성리 마을의 역사는 이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마을 탄생 319주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즐비한 전통 가옥을 보면서 산성리의 위상을 짐작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광주부 관할 지역은 노량진, 암구정동을 포함한 한강 남쪽의 가장 넓은 지역으로서 남한산성을 중심에 두고 사방의 넓은 땅을 광주였다.

그 이후 호구 총수를 보면 한강 남쪽의 최대 도시가 산성리 마을이었다. 마을 인구의 자연 증가가 이루어져 1186호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의 지번도에도 옛 칠들의 지번으로 1186호 까지가 나오고 있다. 산성 내 마을 형성은 우리 나라 거주 양식의 하나지만 남한산성처럼 대대적인 취락을 형성시킨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당시 광주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북으로는 한강 남쪽의 지금의 노량진과 암구정이 있는 강남지역에서 남으로 이천 경계에 이르는 서울 남쪽의 가장 넓은 지역이었다. 아울러 산성 내의 읍치에는 1천호가 넘는 수 많은 가옥들이 줄비해 있었다.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호구 총수」에 나타난 광주부의 인구 통계에 의하면 당시 경기 도내 37군데 읍치 가운데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부 성내의 주민 수는 성내의 남동(南洞)의 경우에 호구수 585호에 인구수 남자 1019명, 여자 1030명으로 합계 2049명이요, 성내의 북동(北洞)의 경우에 호구수 460호에 인구수 남자 860명, 여자 722명으로 합계 1582명으로 산성 내 총인구수는 3,631명이었다. 산성 내의 승려의 호구수는 계와된 숫자로 승려 만도 150명 정도 성내에 거주하였으니 그 숫자는 개설부, 강화부에 이어 한강 이남의 최대 도시 였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그 이후의 인구 통합을 살펴보면 광주부읍지(1842-1843)에 나타난 성내의 호구와 인구를 집계한 인구 실태를 살펴보면 1161호구에 남자 2100명, 여자 1947명 합계 4047명이고 승려의 호구수 68호에 143명이 추가된다. 호구가 116호, 인구수 416명의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무 3년(1899)의 산성 내의 호구와 인구 현황을 보아도 대략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성안의 호구수는 1000여호를 전후하여, 인구수는 4000여명 정도를 웃도는 숫자를 볼 수 있다.

산성 내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청주 상당 산성이나 전주 위봉산성에서 보듯이 조선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또한 산성 내에 주민이 거주하는 방식은 이미 삼국 시대 이전으로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우리나라 거주 양식의 하나였다. 그러나 산성 내에 읍치가 자리잡고 1천 호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예는 달리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 그만큼 남한산성의 성내 마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발달한 산성리 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산성리 마을은 20세기초까지도 그 성세를 잊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러던 것이 1917년 읍치가 지금 위치인 경안역(현재의 광주)으로 옮겨지면서 광주라는 지명까지 옮겨 갔다. 그러므로 산성리에는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

어들어 지금은 변종하였던 때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인 3백여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산성리의 마을은 광주부 읍치가 산성 내에서 3백년 이상 이어져 온 증거이며, 산성에 주민들이 거주해 온 우리 나라 거주 방식의 독특한 면모를 남겨 주는 중요한 흔적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산성리 마을을 전통 마을로서 보고, 전통마을지 남한산성이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금년에 출판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면유를 알 수 있다.

산성리 취락은 300년 이상 되는 우리 나라 주거 양식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통 마을이다. 198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산성 승번제도와 관리 제도가 국가 관리에서 멀어지면서 산성리는 국가 관리의 체계에서 차면 상태의 취락 구조로 바뀐다. 그 이후 산성리 마을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는 계기는 일제의 식민지 폭력 때문이었다.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고 조선 군대를 구식 군대로 몰고 신식 군대를 조직한 후 조선인의 무기와 화약을 수거하기 시작하였다. 산성리 성곽따라 각종 무기류와 산성 승번의 무기류 그리고 약200여곳의 창고에 남아 있던 무기류와 화약들은 끝까지 반납되지 않았고 산성리 주민들이 끝까지 저항하였다. 1907년 8월 1일 일본 군대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산성에서 무참히 폭파되면서 우리의 많은 문화유산이 함께 소실되었다. 일제는 민족질기가 흐르고, 민족혼이 살아 있는 남한산성을 초토화하기 시작하였고, 관아를 경안으로 이전하였고, 천호의 주민을 소개시키고, 치욕적인 땅, 폐전의 땅이란 차과감을 섬었다. 조선왕조 시대 민족의 자존을 지켰던 남한산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부분의 주민은 산성을 떠나는 미국적인 식민지 역사가 전철되던 시기였다. 1917년 이후 광주 관아의 경안역으로 이주 후 남한산성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때 산성리 주민들은 한량으로, 경안으로, 천호동으로 흩어졌으며 300여호의 취락으로 줄어들었다가 광복 이후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하여 해방된 조국의 공간에서도 남한산성은 식민지 명예를 뒤집어쓰고 100여호로 전락되는 마을로 폐폐하여졌다. 여기에다 1970년 이후 도립 공원 지정, 그린벨트 지정, 자연 환경 보존 지구 지정, 한강 살수원 보호 구역 지정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남한산성의 전통 마을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한 과정 속에서 산성리 마을은 금기야 100여호의 주민들만이 산성에 최후로 남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III. 산성 발전에 주민 참여의 사례

남한산성의 산성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식이 실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산성을 쓸고 산성 내에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산성을 지켰던 산성리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산성 가꾸기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남한산성 내의 청량산 주봉의 수어장대에서 서쪽 방향으로 120미터쯤 가다가 우측에 병암이라는 큰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병암은 바위가 병풍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산성리 주민의 의식을 고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병암의 엄친 이야기를 정리하면 경조 3년(1779년) 6월 18일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수어사 서명옹의 지휘 아래 산성 서문 근처가 창마비에 파괴된 것을 이곳 주민들이 협조하여 대대적으로 보수한 사실을 전하여 주는 금석문이다. 우리는 이 비문을 통하여 산성을 중개하고 보수하는데 산성리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산성이 관리 유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나아가 그 당시에 참여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둘에 새겨 넣으므로서 선조들의 건축 실명계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리 주민들의 산성 사랑의 좋은 교감이 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내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향토 사랑의 전형을 발견하는 것 같다. 산성을 가꾸는 일에 관보다도 먼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산성인들의 자세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귀감의 사례다.

또 하나의 예는 남한산성 행궁 좌측 옆에 두 개의 금석문이 자리하고 있다. 산성리 주민들이 자발적인 소나무 가꾸기 이야기가 전하여 오는 현장이다. 오늘날 남한산성의 노총 군락이 20만평이나 조성된 경위와 소나무 사랑의 산성리 주민들의 노력을 알리는 중요한 금석문이다. 산성 내 금립조합비는 1934년에 세워진 금석문이다. 남한산성의 본래 모습이 많이 훼손된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협력하고 주민의 대표들은 남한산성 소나무 사랑에 남다른 애정을 갖었다. 山城里禁林組合長石公東均永世不忘碑요, 하나는 山城里禁林組合長李公永來永世不忘碑가 그것이다. 금립조합비는 1934년 도감독 이순명의 37인이 함께 세운 비석이다. 오늘날 산성의 소나무 군락이 산성리 주민들의 손에 의해 가꾸어져서 수도권 시민의 청정한 기운, 청량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산성리 주민들의 노력이 결코 적게 평가되어어서는 안된다. 산성리 산 18번지 소나무 군락 속에는 취성암이란 바위가 있다. 숲에 취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 술이 뺨다는 이야기가 전하여오는 곳이다. 소나무 숲 속의 이 바위에 앉아 있으면 소나무 향기가 가슴속 까지 스며드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 술이 뺨다는 이야기는 남한산성의 소나무 사랑의 한 단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는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놀고, 계곡에는 개새들이 살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청정자연의 모습이 이러한 선조들의 산성 가꾸기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열녀, 효열비가 있는 마을이고, 효자경을 위시한 효와 관련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전통 마을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산성리 주민들의 단합된 나라사랑의 정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은 물론 산성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산성리 주민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주고 있다. 오늘에도 그뜻을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산성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산성 가꾸기 사례는 산성의 역사 만큼이나 다양하다.

IV. 산성리 전통 마을의 현황

남한산성 마을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주민 참여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남한산성은 근대화의 과정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곳이고 의도적인 파괴의 현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의 부침이 겪침하였던 현장에서도 굿굿하게 이 땅을 지킨 주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남한산성은 이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혹자는 남한산성의 주민들의 상업 활동 때문에 산성이 파괴되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밀려난 지역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성리의 요식업은 일반음식점으로 가족이나 친지들 중심으로 조용하게 음식을 나누는 공원이자 일반적인 유통장화된 음식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행락객들의 무질재한 공원이용은 산성리 발전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발전에도 저해되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산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있는 우리의 전통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심어가야 한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 왔다는 엄청난 비극은 지금도 남한산성의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어 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정 당국이나 시민의 의식, 주민의 역할 등이 새롭게 정비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이 현재의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는데 행정관이나, 주민이나, 학계가 지혜를 함께 모색하고 노력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때 탐방객들이나 시민의 의식 문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남한산성의 역사가 탄생되어 질 것이다.

그러면 남한산성 내의 각종 기관과 단체 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성 내 교육기관으로는 해공 신의회 선생을 배출한 남한산 초등학교가 1912년에 개교하여 88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지역 교육의 중심지이다. 산성리 마을의 청장년 대부분은 산성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도 취학 아동 수의 절대 감소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립공원 남한산성 관리 사무소가 있다. 본 사무소는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158호)이 되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공원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으로서 경기도 관할에 있어야 하나 행정구역으로 광주군인 관계로 광주군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어 행정체계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깨끗하고 아늑한 공원 역사가 있고 문화적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탐방객과 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그러나 탐방객의 의식수준이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에서 오는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있어서 현재로는 역 부족 현상이 사실이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인 남한산성 사랑의 정

신이 필요한 곳이다.

다음으로 남한산성우체국은 33년의 연륜을 갖고 산성리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여 왔다. 작은 쉼터, 종합민원 창구 역할까지를 표방하며 주민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그리고 산성파출소는 33년간 서비스로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1884년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산성 내의 기관으로는 가장 오랜 1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과출소다. 그리고 산성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사회복지 문제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종 공공 단체를 살펴보자. 30년의 전통으로 서민들에게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충북농업협동조합 산성리 농협분소가 설치되어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산성리 새마을금고는 1987년 창립된 이래 주민의 금융기관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환원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인 회관과 마을 회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마을 복지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의 주민의 세대와 주거 환경 건축물 농지 현황을 살펴보자.

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통계를 보면 산성리에는 140 세대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96명, 여자 181명으로 총 377명이다. 그리고 주택 수는 106동이고 국민반수는 4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문안 마을, 동문안 마을, 서문안 마을, 북문안 마을로 구분하고 있다. 새로운 동선과 교통체계에 의하여 도로를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나눈 결과이다. 이것은 산성 내의 행궁과 동문을 남북 축으로 하여 남동과 북동으로 구분하였던 예전의 구분과는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산성 퀴역이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 얼마나 계획된 구도를 갖고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34채이고 음식점이 73채 기타로 불리되는 종교 시설, 창고, 문화체 시설 등이 30채로 도합 128동의 건물이 있다. 산성리 농가 및 농지 현황을 보면 담은 없고 천만 14헥타로 농가수

14 세대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업농은 아니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터발 정도를 가꾸는데 지나지 않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성리는 음식점 즉 요식업을 주민 대다수의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V. 산성 발전에 주면 참여 방안

산성 내 자연 부락은 현재로 4곳으로 나누어 진다. 남문안, 북문안, 동문안, 서문안이 그곳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비교적 성안 마을이라는 특성상 내부적으로 단합이나 내부적 질서 의식은 강한 편이다. 그리고 뿌리를 갖고 살아온 선민 의식 또한 강한 편이다.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남한산성의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나친 상업주의에 의한 일부 폐단도 나타나고 있지만 남한산성 상인협회와 마을 이장은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 마을이다.

그러면 현재의 산성리 마을을 살피적으로 이끌어 가는 마을의 여러 가지 단체와 주민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의 50~60세 이상 원로들로 구성된 산수회(회장 : 김태식)는 영월회의 전통을 이어 15년째 마을의 일을 뒤에서 돋고 있다. 특히 산수회의 전신인 영월회 때부터 정월 대보를 마을 행사가 되어진 영월제를 개최하여 잊혀진 세시풍습을 되살려낸 마을의 원로들이다. 그리고 마을의 청년들로 구성된 연무회(회장 : 유풍환)가 있어 지역의 봉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왕실분원도자기 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시 이들의 봉사활동은 두드러진다. 그리고 스포츠 클럽(회장 : 이종화)등이 있어 친목과 마을의 예경사 활동에 열성적이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큰 조직으로는 상인연합회(회장 : 손명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가입된 남한산 내의 최대 조직이다. 상인 80여집이 가입된 단체다. 금년으로 10주년의 행사를 치른 성내 최대 조직이요 단체다. 산성내 요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자율적인 조정기능과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산성내의 가장 큰 조직이다. 그리고 산성리 마을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산성리 리장(이장 : 이종화)이 있다. 마을의 일부를 문이호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 공원 발전 위원회(회장 : 오용한)는 공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의하고 시정시키는 적극적 주민 참여 시대를 선봉에서 이끄는 시민 단체의 성격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최근에는 마을 신문인 남한산성(발행인 : 이중화) 그리고 인터넷 신문 산성도 발행되어 마을 언론의 정도를 실현시키려는 마을인의 의지를 담아 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남한산성 마을지 신문은 주민의 품질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더나아가 탐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마을 언론의 역할을 차임하고 있다.

산성리 마을에는 여러 조직과 단체가 있어 그들 나름의 고유 영역과 특성을 살리는 작업을 하여 왔다. 이러한 단체들도 좀더 조직적으로 훈련하여 남한산성을 가꾸는 길에 주인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행정 관청으로부터 무었을 하여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가 찾아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요망된다.

주민이 주인 되기 위한 방법 즉 남한산성 발전에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산성내에 방문자 안내소 운영을 주민이 주인되어 운영하여 보자는 계획이다. 역사 문화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방문자에게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립공원 남한산성 방문자 안내소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서 탐방자의 애로점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남한산성 운영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남한산성은 주민이 주인되어 가꾸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은 상설이 어렵다면 주말만이라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 남한산성 신문, 인터넷 산성 신문을 운영하면서 정보와 더불어 문화를 주자. 방문자의 가슴에 닿는 안내소를 운영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남한산성을 만들어 가는 길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여야 할 때이다.

둘째는 산성을 찾았을 때 탐방객들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 산성리 주민은 산성 안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남한산성의 역사

와 문화 그리고 관광지에서 주민으로서 하여야 할 에티켓 정도는 확실히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지역 안내자의 자질과 교육을 통하여 산성 주민은 누구나 우리지역을 찾는 탐방객의 산성 안내 전문가, 산성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주말만이라도 스스로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처음은 좀 어렵지만 관계기관,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를 통하여 변하는 남한산성, 찾아오고 싶은 남한산성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

셋째는 산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남한산성에 관한 한 모두가 전문가라는 자긍심으로 자세를 가다 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갖을 때 남한산성 발전 방향을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이 주인공으로 대접받고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에서도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할 때 남한산성의 종합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주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남한산성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끔 개최하여 주민의 자질 향상과 관광자 안내자로서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은 분들과 진지한 대화 형식의 충분한 대화의 모임이 필요 할 것 같다. 그리고 관심있는 산성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하여 토론 형식으로 남한산성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남한산성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주민의 어떤 역할이 일정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성 발전을 논하는 첫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담기는 예정 어린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남한산성 발전 방향은 앞으로 행정, 주민, 학계가 맹활약을 펼쳐야 하는 사례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준비 자체가 치밀하고 어느 특정 집단 내지는 개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막고 전체적으로 꼽고 두 혜택이 돌아가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마을과 주변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산성 발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남한산성은 성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존재함으로써 그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필수로 자신들이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 당국과 마을 주민간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이나 관련 시설들은 현대화 해 가면서 그 형태가 산성 내 경관에 잘 조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획일적으로 한식 기와 지붕을 강요하는 전통 마을이라고 행정적 규제는 하면서 전통 한옥이 갖는 가능성, 조화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구조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옥의 지붕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높이를 8미터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행정 논리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산성 내 주택들에 대해서는 각건물의 위치나 거주자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전제적인 건물의 조화를 모색한 새로운 건축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 또 집의 기능에 맞춘 다양한 설계 자침이 마련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산성 내에 많은 문화유산들, 문화유적들이란 표석만이 남아 있는 문화재 터는 시급히 문화 유적 사적 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경자 터나 많은 사연을 담은 바위들, 경기도 내 가장 면적이 넓은 소나무 숲,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과 보존을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는 전정한 발전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VI. 뱃 는 말

남한산성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문제는 본 발전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특히 남한산성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형성의 배경과 주민 참여의 사례 그리고 산성리의 현황과 주민 참여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민의 의지를 담아 보자는 취지에서 산성리 마을을 주민 차치로 이끌어 가는 각종 단체의 현황도 살펴보았다.

산성리 마을의 형성 배경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 내야 한다. 주민 거주 시설만 하여도 18세기 말에도 성내 거주민의 호구 수가 1000호를 유지하였던 산성리가 지금은 그 10분의 1정도인

100여호로 줄었다. 그만큼 성대했던 옛 마을 모습도 거의 사라졌다. 성내 중심에 있던 여섯간 종각 건물과 대종도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종로거리 라는 명칭도 희미한 산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마을의 부침이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보는것과 같아 쓸쓸한 생각 마저 든다. 즐비하던 기와집들도 사라지고 지금은 역자로 지붕만 한식 기와를 덮은 불품없는 건물들이 도로변을 따라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규모라도 성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성격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한때 광주부 읍치로 한강 남쪽의 최대 도시를 이루었던 산성리 마을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산성 휘락 구조에 맞는 특성화된 마을의 새 탄생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남한산성 종합 발전 방향이 주민 참여를 어떻게 담아 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18-9세기 만 하여도 대도희의 하나를 이루었던 산성리의 혼적들을 되찾아 특성화된 마을의 전통을 되살려 수도권의 많은 시민의 휴식처로 안식처로 자리 매김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제 남한산성의 역사와 더불어 민족 자존의 역사를 이 땅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산성리 마을은 새롭게 경비되고 복원되어져야 한다. 우리를 모두의 자산이요 민족의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면 우리의 역사가 보이고, 민족의 얼이 보이고, 민족의 혼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21세기가 보인다는 말에 귀기울려야 할 때이다.

편집위원

위 원 : 조병로, 백남욱, 전보상, 천화숙, 박순임

간 사 : 김후정, 안심훈

城南文化研究 (999, 제6호)

인쇄 : 1999년 12월 30일

발행 : 2000년 2월 29일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항동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전 화 : 0342)781-1020 / 781-2802

팩 스 : 0342) 709-5246

※ 이 연구집 발간은 성남시 항동문화연구
소 사업지원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
습니다.